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전략 수립 연구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전략 수립 연구

2024. 10.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전략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연구기간 : 2024. 5. 14. ~ 10. 31.
연구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남수경(강원대학교)
연구원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박주병(강원대학교)
이희숙(강남대학교)
최현정(한림대학교)
연구보조원 : 신민중(강원대학교)
연구협력 : 김종선(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황미연(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최민음(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목 차

I. 연구의 개관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방법과 추진전략	8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5
II. 정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과 전망	17
제1절. 교육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19
제2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38
제3절. 지방정부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50
제4절.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62
III. 주요국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 사례	69
제1절. 미국	71
제2절. 일본	79
제3절. 캐나다(온타리오 주)	92
제4절. 유럽 국가	98
제5절.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109
IV. 서울의 특성과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123
제1절. 서울의 인구 특성	125
제2절. 서울의 사회·문화적 특성	145
제3절. 서울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162

V.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 및 성과관리 방안	169
제1절.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	171
제2절.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 방안	193
제3절.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성과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222
VI. 요약 및 결론	239
제1절. 요약	241
제2절. 결론	251
■ 참고문헌	253

표 목 차

〈표 I-1〉 초점집단면담(FGI) 및 전문가협의회 개요	10
〈표 I-2〉 서울소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업무 담당자 대상 FGI 주요 내용	12
〈표 I-3〉 평생교육연구전문가 대상 FGI 주요 내용	13
〈표 II-1〉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관련 주요 재정지원사업 개요	22
〈표 II-2〉 LiFE 사업 운영 주체 및 역할	27
〈표 II-3〉 LiFE 사업비 배분 방식 및 관리	28
〈표 II-4〉 LiFE 사업 핵심성과지표 중 공통지표	28
〈표 II-5〉 LiFE 사업 참여 대학 및 지자체 현황	30
〈표 II-6〉 HiVE사업의 주요 내용	32
〈표 II-7〉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사업 유형)	33
〈표 II-8〉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선정 현황(2022년 기준)	35
〈표 II-9〉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수도권 컨소시엄 현황	36
〈표 II-10〉 HiVE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36
〈표 II-1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운영 및 국비 지원 현황	39
〈표 II-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주요 내용	41
〈표 II-1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 요청 사례	45
〈표 II-1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제 하의 지역 변화	48
〈표 II-15〉 지역혁신중심 대학중심지원체계(RISE) 기반 대학 연계 사업 통합 방향	48
〈표 II-1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LiFE(3유형)과의 유사성	49
〈표 II-17〉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50
〈표 II-18〉 경상남도 RISE 중점 추진 사업 내용	56
〈표 II-19〉 경상남도 RISE 시범사업 주요내용	57
〈표 II-20〉 경남 평생학습대학 운영지원 현황	58
〈표 II-21〉 전남 권역별 시군 및 대학 현황	61
〈표 III-1〉 보이즈 주립대학교의 구독대학 비용과 기간	73
〈표 III-2〉 Open Loop University의 개념 및 특징	74
〈표 III-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비전 2030 성과목표	77

〈표 Ⅲ-4〉 순환교육 등 사회인의 다시 배움의 충실화 사업(2023년 예산 기준)	79
〈표 Ⅲ-5〉 도쿄대학 오픈유니버시티 강좌예시(2024년 10월)	83
〈표 Ⅲ-6〉 도쿄도립대학 프리미엄 칼리지 개설과목	84
〈표 Ⅲ-7〉 도쿄도 호세이 대학(法政大学, 사립) 평생교육·리커런트 교육의 주요 내용	85
〈표 Ⅲ-8〉 도쿄도 호세이 대학의 평생교육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 개요	86
〈표 Ⅲ-9〉 교토대학의 비정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87
〈표 Ⅲ-10〉 일본 히로시마 팔레트의 주요 기능	88
〈표 Ⅲ-11〉 하치오지시 평생학습지원 내용	89
〈표 Ⅲ-12〉 교토시 대학연계 교육 정책	91
〈표 Ⅲ-13〉 온타리오주 성인교육 프로그램	93
〈표 Ⅲ-14〉 핀란드 알토대학 주요 프로그램 및 조직	104
〈표 Ⅲ-15〉 핀란드 수도권 헬싱키의 ILMONET 플랫폼 정보제공 카테고리	107
〈표 Ⅳ-1〉 서울특별시 연령대별 인구 추계(2020~2040)	126
〈표 Ⅳ-2〉 서울특별시 지역구 연령대별 인구(2023)	130
〈표 Ⅳ-3〉 서울특별시 유입·유출 인구수(2022)	132
〈표 Ⅳ-4〉 서울특별시 권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2)	136
〈표 Ⅳ-5〉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지역구별 현황(2023)	138
〈표 Ⅳ-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5대 권역생활권 구분	146
〈표 Ⅳ-7〉 서울 권역별·자치구별 대학교 현황(2023)	152
〈표 Ⅳ-8〉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소재별 재정지원액(서울/전국)	157
〈표 Ⅳ-9〉 서울 소재 대학의 사업별 재정지원액(일반지원/전체)	158
〈표 Ⅳ-10〉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액(서울/타 시·도)	158
〈표 Ⅳ-11〉 서울 소재 대학 유형별 서울특별시 재정지원액(일반지원)	159
〈표 Ⅳ-12〉 서울 소재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재정지원 규모 순)	160
〈표 Ⅳ-13〉 서울시 사회·문화 부문별 전략계획	162
〈표 Ⅴ-1〉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실적	172
〈표 Ⅴ-2〉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간 MOU 체결 현황	172
〈표 Ⅴ-3〉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 운영 실적	173
〈표 Ⅴ-4〉 대학연계 시민대학 공모사업 운영 실적	174
〈표 Ⅴ-5〉 '23년 중장년 Career Jump Up 사업 운영 실적	175
〈표 Ⅴ-6〉 '23년 나노디그리 과정 운영 실적	175
〈표 Ⅴ-7〉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대학 유형 구분	177

〈표 V-8〉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내용	178
〈표 V-9〉 대학연계 시민대학과 서울마이칼리지 간의 차별화	179
〈표 V-10〉 '24년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교육과정 개요	182
〈표 V-11〉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182
〈표 V-12〉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 유형별 내용	184
〈표 V-13〉 '24년 서울마이칼리지 점프 교육과정 개요	185
〈표 V-14〉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186
〈표 V-15〉 서울시의 중앙정부 지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참여 현황	190
〈표 V-16〉 서울형 LIFE사업의 주요 내용(안)	206
〈표 V-17〉 서울마이칼리지 2.0(서울형 DX)의 주요 내용(안)	208
〈표 V-18〉 서울 캠퍼스 타운+의 주요 내용(안)	210
〈표 V-19〉 서울 리빙랩의 주요 내용(안)	212
〈표 V-20〉 서울특별시 권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2019~2024)	214
〈표 V-2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상 지원서비스	216
〈표 V-22〉 서울형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안)	220
〈표 V-23〉 사업 맞춤형 성과지표 예시	223
〈표 V-24〉 자율성과지표 예시	224
〈표 V-25〉 컨설팅 내용 및 성격 예시	226
〈표 V-26〉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 거버넌스	229
〈표 V-27〉 서울시와 RISE센터의 역할 구분	232
〈표 V-28〉 서울시의 RISE 운영 조직: (총괄) 대학협력과	232
〈표 V-29〉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 요청 사례	237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 추진 전략 개요	8
[그림 II-1] 대학평생교육 시기별 변천	20
[그림 II-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통합 방향	21
[그림 II-3] LiFE 사업의 비전과 목표	24
[그림 II-4]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	25
[그림 II-5] 2기 사업 유형별 주요 추진내용	26
[그림 II-6] HiVE 사업의 비전과 목표	31
[그림 II-7] HiVE 사업의 운영 체계	34
[그림 II-8]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44
[그림 II-9] RISE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 연계를 위한 조성 요건	46
[그림 II-1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기반 지역 변화	47
[그림 II-11] 경남 RISE 사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	55
[그림 II-12] 전남 2021년: 3개소, 6개 과정 운영	59
[그림 II-13] 전남 RISE 비전과 목표	60
[그림 III-1] 일본 지역총합학과의 개념	82
[그림 III-2] 하치오지시 학원도시 비전 전체상	89
[그림 III-3] The Lifelong Learning Model	92
[그림 III-4] 독일 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지역 만들기	103
[그림 IV-1] 서울특별시 연령대별 인구 추계(2020~2040)	127
[그림 IV-2] 전국 주민등록인구 추이(2000~2023)	128
[그림 IV-3] 서울특별시 지역구 연령대별 인구(2023)	131
[그림 IV-4] 서울특별시 유입 및 유출 인구 현황(2010~2022)	132
[그림 IV-5] 서울특별시 유입-유출 인구수(2022)	134
[그림 IV-6] 국민기초수급자 현황(2022)	137
[그림 IV-7]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변화 추이(2010~2023)	138
[그림 IV-8]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지역구별 현황(2023)	139
[그림 IV-9]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외국인 거주 목적 현황(2023)	142

[그림 IV-10] 서울 권역생활권 구분	146
[그림 IV-11] 동북권 발전구상	147
[그림 IV-12] 서북권 발전구상	148
[그림 IV-13] 서남권 발전구상	149
[그림 IV-14] 동남권 발전구상	151
[그림 IV-15]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 대학교 수(2023)	154
[그림 V-1] 대학별 특화 직업평생교육과정 개발·운영 현황	174
[그림 V-2]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203
[그림 V-3]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재구조화 기본 틀	204
[그림 V-4]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24.5.20)	215
[그림 V-5] 글로벌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안)	218
[그림 V-6]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운영체계	221
[그림 V-7]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기본 틀	227
[그림 V-8]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	231
[그림 V-9]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체계	234
[그림 V-10] 서울 RISE 운영체계 안에 따른 서평원의 사업 모델	234
[그림 V-1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제 재구조화 방안(안)	235
[그림 V-1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지역교육협력본부’ 조직체제 구성(안)	236

I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방법과 추진전략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고등·평생교육 자원체제 및 재정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기반의 고등·평생교육 재정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직접 운영하던 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양하여 지역 기반으로 재편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
- 교육부가 지자체로 넘기는 재정지원사업은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으로 모두 5개이며, 이들 5개 사업은 2025년 3월말(예정) 대학으로의 직접 지원이 중단 예정임

☑ OECD 국가의 성인교육 최근 변화 동향 기반의 평생교육 사업 재편 필요

- 제5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성인교육보고서(2022)에서 성인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함
 - 첫째, 성인교육은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 모두 노동시장에서 생산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 둘째,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건강, 행복, 범죄율 감소, 공동체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의 세

대 간 전이와 결속력 강화 등 비경제 부문 발전에 기여함

- 이에 따라, UNESCO 회원국 간 성인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다음의 재정 기준을 제시함
 - 국민총생산(GNP)의 6% 교육재정 확보와 성인교육 부문의 재정을 증가시켜야 함
 - 통합적인 정부의 성인교육정책에 따라 모든 자원을 확대해야 함
 - 문해교육과 그 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초국가적인 국가 간의 자원 지원을 증가시켜야 함
 - NGO, 지역, 개인 등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새로운 자원 확충을 장려해야 함
 - 여성, 소외지역,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함

☑ 성인교육에 대한 국제적 재정 투자 추이

- 국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인교육재정의 추이 또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특히 재정은 청소년, 실업자, 여성 등의 대상자에게 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그룹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성인교육재정에 있어 2018년 이후 국제적인 변화 중 하나는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시민교육보다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남
 - 2018년 이후 주요한 성인교육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투자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문해교육의 경우는 이전과 비교하여 유지 및 증가되는 경향이 있음
 - 직업훈련과 계속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은 가장 많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시민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는 기존 투자와 유지되는 경향이 강함

나. 연구의 목적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와 운영체제 개편

- 국내외 재정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RISE 기반의 대학 연계 사업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개편하는 등 시민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등의 연계하여 대학의 강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그동안 진흥원이 해오던 대학 연계 사업을 새로운 RISE 플랫폼 하에서의 정책 메뉴에 담음으로써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의 확장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진흥원 사업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에 확장에 따른 진흥원 사업 담당 부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거버넌스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
 - 지역의 상생적 균형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및 체계적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장차 지자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가 중요함
-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추진 과제별로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서울시)와 의회 등 재정지원 당국에게 정량적·정성적 지표 중심의 재정지원 논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내용

가. 중앙정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변화 전망

- 교육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주요 내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편 이후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 지방정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나. 주요국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사례 고찰

-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주요국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사례에 대한 고찰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다. 서울의 특성과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 서울의 인구 특징
- 서울의 사회·문화적 특성
- 서울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전망에 주는 시사점

라.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에 대한 관련 주체별 수요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서울 소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가운데 LiFE사업과 HiVE사업, 서평원 지원 대학연계 평생교

육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대학에서의 업무 담당자 대상 향후 개선 방안과 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

- LiFE나 HiVE 사업 관련 국가 정책을 기획 운영한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RISE체제 개편 이후 서평원의 역할과 기능,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분석 결과

- 1) RISE체제 하에서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
- 2)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 현황
- 3)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 방향
- 4)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의 조직체계
- 5)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등에 대한 개선 방향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도출

마.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 성과관리와 운영체제 개선 방안

-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운영 실적과 현황
-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 및 성과관리 방안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운영체제 개편 방안 (서평원 역할과 기능 재구조화 기반 조직 개편 방안)
- 지속가능한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제3절. 연구방법과 추진전략



[그림 1-1] 연구 추진 전략 개요

가. 선행연구, 관련 문헌, 국내외 운영 사례 등 문헌조사

-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현황, RISE체계 변화 전망, 대학 기반 평생·직업교육 사업의 목적, 세부 내용,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정책 관점,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사업의 운영체제와 성과관리 방안, 교육 주체 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가운데 프로그램, 학습자 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위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운영체제 등에 대한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나. 서울 소재 대학의 지자체 협력 실적 분석

○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

- 대학재정알리미에서 최근 3개년도(2019~2022년) 결산 지자체 지원 실적 자료 수집
- 대학 선별 : 대학소재지 기준 서울지역 대학(일반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 대학 등) 가운데 재정 지원 금액이 있는 기관
- 지원단위(대학, 집단, 개인) : '대학' 단위 지원 사업만 추출(개인단위 지원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지자체의 장학금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제외)
- 재정지원 지자체 : 지자체 소재지에 따라서 서울과 서울외로 구분

○ 분석 방법

- 대학단위 지자체 총 지원액 기준(서울시로부터 대학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서울시립대 제외)
- 서울의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 지원액 기준
- 서울 외 타시도 지자체 지원액 기준 등

다.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전문가협의회 개최

1) 목적과 대상

○ 총 5회에 걸쳐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실시

○ 목적

- 그동안 진행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 현황·문제점·개선과제, RISE체제 개편이후 서평원의 역할과 기능, 사업 개선방향 등에 대한 대학 업무담당자, 평생 교육 정책전문가, 서평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RISE체제 개편 이후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 도출

○ 조사 대상 및 방법

-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과 정부 재정재원사업(LiFE 및 HiVE 사업 등)을 운영한 경

힘이 있는 서울 소재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각 1회씩 온라인 기반 집단 면담 실시

- 평생교육 관련 국가정책 기획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집단 면담 실시
-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운영 현황, RISE체제 이후 서울시의 사업 개편 방향, 향후 서울형 사업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온라인 기반 집단 면담 실시

○ 구체적인 관련 주제별 참석자, 일시 등은 다음과 같음

〈표 1-1〉 초점집단면담(FGI) 및 전문가협의회 개요

회차	가명	직위	소속	비고
1차	전문_가	팀 장	A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전문대학 업무 담당자
	전문_나	부교수	B전문대학 HIVE사업 평생교육팀	
	전문_다	팀 장	C전문대학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운영팀	
	- 일시: 2024.07.11.(목) 10:00-12:00 - 방법: ZOOM 기반 화상회의			
2차	일반_가	교 수	D대학교	일반대학 업무 담당자
	일반_나	차 장	E대학교 기획처,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	
	일반_다	팀 장	F대학교 미래융합대학교학팀, 사업추진팀	
	일반_라	주 임		
	일반_마	팀 원		
	- 일시: 2024.07.11.(목) 14:00-16:00 - 방법: ZOOM 기반 화상회의			
3차	연구_가	교 수	G대학교, OO도 대학평생교육자치센터	LiFE (대학평생교육)
	연구_나	교 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iFE 사업관리위원회	
	연구_다	학 장	H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연구_라	교 수	J대학교 LINC 3.0 사업단	LINC (산학협력)
	연구_마	국 장	K대학교 홍보·대외협력국	
	연구_바	교 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	HiVE (전문직업교육)
	- 일시: 2024.07.12.(금) 10:00-12:00 - 방법: ZOOM 기반 화상회의			

회차	가명	직위	소속	비고
4차	실무_가	본부장	00평생교육진흥원 대학협력사업팀	00평생교육진흥원 대학협력 업무 담당자
	실무_나	대 리		
	실무_다	주 임		
	실무_라	팀 장		
	- 일시: 2024.07.19.(금) 10:20-12:00 - 방법: ZOOM 기반 화상회의			
5차	일반_가	교 수	D대학교	일반대학 업무 담당자
	일반_나	차 장	E대학교 기획처,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	
	일반_마	팀 원	F대학교 미래융합대학교학팀	
	전문_가	팀 장	A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전문대학 업무 담당자
	전문_다	팀 장	C전문대학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운영팀	
	- 일시: 2024.09.27.(금) 10:00-12:00 - 방법: ZOOM 기반 화상회의			

2) 조사의 주요 내용

○ 조사 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운영 현황,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방향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개선방향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시 주의점과 개선 방향
- RISE체제 하에서 평생·직업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향
- RISE체제 하에서 성과 기반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지자체-대학 연계 활성화 방안 등

○ FGI 및 전문가협의회 참석 대상 집단에 따라서 상세 내용은 다르게 구성

- 집단별 상세 내용은 <표 1-2>와 <표 1-3> 참고

〈표 1-2〉 서울소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업무 담당자 대상
FGI 주요 내용

영역	질문 내용														
일반 공통 질문	- RISE체제 하에서 향후 사업 운영의 기대와 우려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에서 서평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 및 개선 방향	(사업 운영 현황)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실행과정에서의 현장 목소리(애로사항, 효과, 향후 개선 방향 등 포함) (우수 사례 모델 공유) 현재 대학에서 운영 또는 추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대학연계 우수 모델. 또한, 이를 위한 대학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서평원)의 역할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개선 방향	(RISE 체제 준비) RISE 체제로의 변환을 위해 현재 귀하의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상황 및 준비,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 (RISE 체제 변환 시 역할 변화) RISE 체제로 전환이 된 이후 지역 상생을 위한 대학-시·도평생교육진흥원(서평원)-지자체의 역할 변화 2023년 3월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주요 내용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3~'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5년 전면 도입 예정 ② RISE 추진 내용 - 선정지역: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 - 선정된 7개 시도는 '25년 RISE 도입을 위해 추진체계 마련 및 계획 수립 등을 추진 -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여 RISE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 -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RISE센터 지정·운영 <table><caption>지역별 RISE센터 지정·운영 예정 기관</caption><thead><tr><th>경상남도</th><th>경상북도</th><th>대구광역시</th><th>부산광역시</th><th>전라남도</th><th>전라북도</th><th>충청북도</th></tr></thead><tbody><tr><td>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가칭인재양성재단 으로 전환 추진)</td><td>경북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td><td>대구정책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td><td>부산테크노파크</td><td>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td><td>전북테크노파크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td><td>충북연구원</td></tr></tbody></table>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가칭인재양성재단 으로 전환 추진)	경북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대구정책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부산테크노파크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충북연구원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가칭인재양성재단 으로 전환 추진)	경북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대구정책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부산테크노파크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충북연구원									
조직 재구조화 시 개선 방향	(서울형 특징)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제에서 '서울형'이 갖는 특징과 방향성 (재구조화 시 필요 자원) 대학에서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영역	질문 내용
성과관리 방안	• (성과 관리 현황) 운영 중인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성과 관리 현황 및 성과 창출의 어려움, 한계, 개선방안 등 • (성과 관리 개선 방안) 대학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사업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성과 관리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성과 관리에 대한 의견
지자체-대학 연계 활성화 방안	• (연계 활성화) RISE체제 개편 이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지자체-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 방안 • (향후 개선 과제) 향후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
연구진의 “서울형” 개선방안(안) 검토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비전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 방안의 적절성과 타당성 • 서평원 역할과 기능 발전방향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등

〈표 1-3〉 평생교육연구전문가 대상 FGI 주요 내용

영역	질문 내용
일반질문	• RISE체제 하에서 향후 평생교육정책의 전망 • RISE체제 하에서 서평원의 역할과 기능 변화 전망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 및 개선 방향	• (사업 운영 현황) 현재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운영에 대해 인식하고 계시는 장/단점, 한계점, 개선사항 등 • 특히,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평생교육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개선 방향	• (RISE 체제 준비) 현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하여 평생교육 기관들은 RISE 체제로의 변환을 앞두고 조직 개편에 대한 필수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단기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준비, 방향성 등)에서 개선 과제 • (RISE 체제 변환 시 역할 변화) RISE 체제로 전환이 된 이후 지역 상생을 위한 대학-시·도평생교육진흥원(서평원)-지자체 간의 관계 설정과 협력체제 개선방향
조직 재구조화 시 개선 방향	•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서평원의 역할) 현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제에서 ‘서울형’의 중점 방향성 • (재구조화 시 필요 자원) 해외의 경우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이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독창적인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으로 재구조화 할때 서평원 조직이나 운영체제,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영역	질문 내용
	(예시)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사례 ● 미국 스탠포드 대학 ‘Open Loop University’ 교육 모델 - 대학의 교육이 20대 초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4년 내외의 단기 교육 체계를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모델 - 4년 동안 정형화된 교육과정 이수 방식에서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오가는 6년제 교육으로 전환 - 특정 학문에 관한 지식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으로 도모 ● 대학이 평생교육 플랫폼이며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 제시 (이희영, 2024) - 마이크로 단위의 교육과정 모듈화 - 일-학습 병행제도의 정착 - 대학 교육의 온라인 개방 - 표준화된 기초교양교육의 제공 등을 제안함.
성과관리 방안	(성과 관리 현황) 현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성과 관리 및 개선방안 등 (성과 관리 개선 방안) 현재 서평원이 운영 중인 평생교육 사업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성과 관리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 방안
지자체-대학 연계 활성화 방안	(연계 활성화)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지자체(중앙정부-광역-기초)-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역할 재정립 방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등 (향후 개선 과제) 향후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

3) 결과 분석 방법¹⁾

- FGI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에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참석자들에게 보내고 면담시에도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 참여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면담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은 답변이 진행되면서 조정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과 성과관리, 서평원의 역할과 기능을 찾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면담 진행
- 수집된 자료는 참석 집단의 특성별로 정리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관계자 대상 분석 결과는 크게, 1) RISE체제 하에서 향후 대학연계

1) FGI 분석결과는 본문 중에 직접 반영하여 활용하되, 자세한 정리 내용은 <부록 Ⅲ>에 제시하였음.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 2)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 현황, 3)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 방향, 4)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의 조직체계, 5)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등의 다섯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

- 평생교육정책 전문가 대상 분석 결과는 1) RISE체제 이후 정책 전망, 2)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방향, 3) 성과관리 방안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
- 서평원 업무담당자 대상 분석 결과는 1) RISE체제 하에서 기존 서울시민대학과 차별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개선 방향, 2)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주요 특징, 3)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와 거버넌스 개선 방향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가.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재구조화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기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기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확대 재구조화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 기반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정책방침에 따라서 2025년 이후 RISE센터로 대학연계 평생·직업교육 재정지원사업이 이관될 전망임
- 이 시기에 맞추어 현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정책 변화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나.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허브로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자료로 활용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질적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국내·외 대학연계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의 운영 현황, 강점과 약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함
- 조례에 제시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와 과업, 기초단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다.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체제 정립 기회로 활용

- 디지털 미래사회, 인생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현행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체제를 정립함으로써 향후 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RISE체계 하에서 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선도 모형을 제시함
- 직업 재교육과 복지 차원에서 서울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양적 확장과 질적 내실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사업 운영 체제를 정립함

라. 지속가능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체제 확립

- 지자체, 의회 등 재정 당국의 안정적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제를 확립함
- 서울시민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무성 대시보드 운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II

정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과 전망

제1절. 교육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제2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제3절. 지방정부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제4절.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II

정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과 전망

제1절. 교육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1.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개념과 변천과정²⁾

가.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개념

- ‘대학연계 평생교육’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의미하며, 여기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고등교육기관을, ‘평생교육’은 대학 내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함
- 「평생교육법」 제5장은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며, 대학에 관한 내용은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규정됨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은 그동안 논문이나 정부사업에서 사용된 ‘대학평생교육’(양흥권, 2019), ‘대학기반 평생교육’(교육부 사업)을 통칭하는 것임.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개념과 변천과정은 양흥권(2019)의 대학평생교육 개념과 현황을 기반으로 작성함.

-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정규학위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함
- 최근에는 비전통적 성인학습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서 비전통적 성인학습자는 직업 및 사회생활 경험 후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학습자를 의미하고 있어 이미 새로운 형태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같이 ‘대학연계 평생교육’은 대학에서 일반인을 위해 대학의 강좌개방, 비학위 과정의 운영, 대학의 학사 운영 체제를 개편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 이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비학위과정, 학점과정, 학위과정 등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나.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변천 과정

- 대학 평생교육의 변천 과정은, 출발기(1900년대~1970년대 후반), 발전기(1980년대~1999년), 확산기(2000년~2007년), 전환기(2008년~현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양흥권, 2019)



[그림 II-1] 대학평생교육 시기별 변천

출처: 양흥권(2019)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작성.

- ‘출발기’는 190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로, 일반인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 형태의 교육과, 각 대학이 농촌봉사활동과 실습을 통해 문해교육을 실시함
 - 이 시기는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발전기’는 1980년대로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가 확대됨
 - 한국방송대학과 개방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시간제 학생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하게 발전적인 양상이 나타났음
- ‘확산기’는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국가 평생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대학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사업이 본격화되었음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전환되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유연화되었음
 - ‘학점은행제’와 ‘시간제 등록제’ 과정이 활성화되는 등의 대학평생교육이 확산되었음
- ‘전환기’는 2008년 이후 대학 평생교육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이 시기에 교육 당국에서는 비전통적 성인학습자 대상의 학위 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평생교육중심 대학지원사업 및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사업(2008),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2016), 이 두 가지 사업이 통합되어 추진된 대학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2017) 등이 실시되었음

다. 향후 대학 기반 평생교육의 전망

- 앞으로 대학연계 평생교육은 ‘지자체 기반 운영기’로 전망됨

대상 사업	'23 예산(억원)	'23~'24(기법 지역)	'25년 이후
1 RIS(지역혁신)	3,540	5개 지역 내외 RISE 전환	RISE로 통합* * RISE 사업의 하위 메뉴 사업 전환 가능
2 LINC 3.0(산학협력)	4,070	지자체-대학간 협력 강화 대학 사업추진시 지자체 의견 반영 지자체 대학의 사업 지원	
3 LiFE(대학평생교육)	510		
4 HiVE(전문직업교육)	900		
5 지방대학활성화	2,500		
(예산 총계)		11,520억원(국고 기준)	

[그림 II-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통합 방향

- 2025년부터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들이 지자체를 통한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재구조화되어 운영될 예정임
- RISE체계 본격 가동시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하 서평원)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가운데 향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①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②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③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④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이 있음

2. 교육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³⁾

가. 개요

- 서평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표 II-1>과 같음
- 이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서평원이 관리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평생교육지원 체제 지원사업(LiFE)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임. 따라서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표 II-1>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관련 주요 재정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① 평생교육지원 체제 지원사업(LiFE)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일반대 20개교, 전문대 19개교 등 총 39개교 대학 대상 2024년 기준 500억 원 지원
②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HiVE)	• 지역 특화 분야 인력 양성 및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 지원으로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 대응, 지역 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재교육 및 향상 교육 • (주요 내용) 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②지역특화 분야연계 교육과정 개편, ③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④지역공헌 프로그램 • (지원대상)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 (지원 규모) 30개 컨소시엄 × 국고 13.5억 원(2022 기준 405억 원)
③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 ‘대학 산학연협력’을 보편화한 1·2단계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연협력 역량 고도화를 위한 모든 산학연협력 요소 종합 지원 및 인근 지역 대학 간·특화 분

3)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27)과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LINC 3.0)	- 야 유사 대학 간 산학협력 공유·협업 체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 산학협력 요소: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취·창업, 공유·협업 체계 마련 등 -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제고를 위한 링크(LINC) 3.0은 일반대 76개교, 전문대 59개교 등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3,025억 원을, 전문대에 1,045억 원 지원 (사업 기간) '22~'27년 (사업 규모) 수요맞춤성장형 44개교, 협력기반구축형 15개교 (총 지원금액) 수요맞춤성장형 44개교(교당 20억원), 협력기반구축형 15개교(교당 11억원) 등 총 1,045억원 지원				
④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table border="1"> <tr> <td>Ⅰ 유형</td><td> - 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전문대학 Co-op, 고교-전문대 통합 교육과정 등)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03개교 - 사업비: ('22) 4,020억원 → ('23) 5,620억원 → ('24) 6,179억원 </td></tr> <tr> <td>Ⅱ 유형</td><td> - 지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지방대 특성화 및 역량 강화(지역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학사구조 개편·유연화 등)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 69개교 - 사업비: ('23) 600억원 → ('24) 750억원 </td></tr> </table>	Ⅰ 유형	- 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전문대학 Co-op, 고교-전문대 통합 교육과정 등)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03개교 - 사업비: ('22) 4,020억원 → ('23) 5,620억원 → ('24) 6,179억원	Ⅱ 유형	- 지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지방대 특성화 및 역량 강화(지역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학사구조 개편·유연화 등)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 69개교 - 사업비: ('23) 600억원 → ('24) 750억원
Ⅰ 유형	- 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전문대학 Co-op, 고교-전문대 통합 교육과정 등)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03개교 - 사업비: ('22) 4,020억원 → ('23) 5,620억원 → ('24) 6,179억원				
Ⅱ 유형	- 지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지방대 특성화 및 역량 강화(지역사회와 거버넌스 구축, 학사구조 개편·유연화 등) -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 69개교 - 사업비: ('23) 600억원 → ('24) 750억원				
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 지역의 전략 및 선도산업 등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의 특화된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신산업 기술인재 집중 양성 (지원대상) 전문대학 12개교 (총 사업 기간) '21.06.~'24.02.(총 3년) (지원 규모) 교당 10억원 내외(총 120억원, 사업관리비 불포함) (산업 분야와 사업권역별 지원교) 9개 신산업분야, 수도권 5개교, 지방 7개교 지원				
⑥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21년까지 LINC+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다가, '22년부터 분리 별도 사업으로 운영 (사업목적)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업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전문대학의 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 기간) '21년~(3+2) (사업 규모) '21년 전문대학 7개교/ '23년에는 8개교로 확대 (교당 12억원 지원, '23년 총 예산 96억원)				
⑦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 신산업분야의 고숙련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시범사업('21~'22)을 통해 도출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확대 및 활성화 - 마이스터대: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 2023학년도 마이스터대 모델 운영 예정 대학(6교) 전체가 신산업 관련 교육과정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 최소연한(2년) 동안 학생 지원 및 기자재 확보 등 모델 운영 기반 구축 지원 '21년부터 5개교(교당 20억원 지원)에서 '23년에 추가 1개교(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대학) 총 6개교에 대해서 총 120억원 지원				

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1) 개요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이하 LiFE 사업)은 200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대학을 지역 내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며,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임
- LiFE 사업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을 성인학습자 중심의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임



[그림 II-3] LiFE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출처: 교육부(2024a: 6).

○ LiFE 사업의 변천과정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시작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은 초기에는 ‘단년도 사업의 비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비학위 중심에서 학위과정 중심으로 개편
- 2019년에는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다년도(2+2) 지원으로 전환. 지원대상 역시 기존 4년제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까지 확대



[그림 II-4]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

출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LiFE사업 대학은 기존의 학령기 중심의 대학을 지역사회와 연계된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 추진(배영주, 2021)

- 단과대학형(일반대학의 경우)은 학부형, 학과형, 컨소시엄형과 같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 교육체제 모델 설정
- 지역 내 성인학습자 및 지역사업, 그리고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기존의 대학의 입학전형과는 다른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 입학전형을 마련하여 성인학습자를 모집
- 성인 친화적인 학사제도 및 학습자 지원체제를 통해 성인학습자가 학업 수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학업 부담을 완화

2) LiFE 2.0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

○ 2기 LiFE 사업의 주요 내용

- 대학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성인친화적 대학으로 체질 개선 추진
- 이를 위해 평생교육체제구축형(1유형), 고도화형(2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3유형)으로 사업운영모형을 분류하여, 평생교육체제의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

1유형	·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학부 학과 필수 운영 · 학습경험인정제 및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활용 ·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생교육체제 구축형
2유형	·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학부 학과 필수 운영 · 학습경험인정제 및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센터 설치 가능 고도화 ·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
3유형	· 지역수요를 반영한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학부 학과 필수 운영 · 학습경험인정제 및 지역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활용 · 지역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지역 내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	광역지자체 연계형

[그림 II-5] 2기 사업 유형별 주요 추진내용

출처: 교육부(2024a: 5)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 총 39개 대학(일반대 20교, 전문대 19교), 5개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유형별 지원규모는 총 500억 원 규모임
 - (1유형) 평생교육체제 구축형: 19교(총 200억 원)

- (2유형)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 20교(총 200억 원)
- (3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5개 컨소시엄(광역지자체 1개 + 대학 2교, 총 100억 원)

○ LiFE 사업의 운영 관리 추체 및 체계는 크게 중앙정부 수준과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구분

- 중앙정부 수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하여 사업관리 위원회와 컨설팅단
- 대학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 대학, 광역지자체, 산업체 등 지역사회

〈표 II-2〉 LiFE 사업 운영 주체 및 역할

중앙수준 단위		대학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총괄	대학	- 교육체계, 학과 정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특화 분야와의 연계성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분석 - 대학 컨소시엄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사업 방향 설정 - 대학 내 사업 총괄관리센터, 광역지자체, 지역사회와 논의를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사업 방향 및 학습자 모집 분야에 따라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추진
국가 평생 교육 진흥원	- 사업 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비 집행 관리 - 사업 참여 대학 컨소시엄 선정 및 성과평가 - 성과 분석 및 컨설팅 - 사업위탁기관은 평가단 및 컨설팅단 구성 운영 - 사업참여대학 협의체 관리 지원	광역 지방자 치단체	- 지역특화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수요 조사 및 분석 - 광역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부합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 - 지역사회 과제 발굴 - 재학생 및 재직자 등에 대한 지역 정주 지원방안 마련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 사업 추진 시 사업운영 상황 상시 점검 - 컨소시엄 참여대학과의 공유 및 협업 -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대응 - 전반적인 사업운영 점검
사업 관리 위원회	-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상 선정 - 지원금 확정 연차 종합평가 및 사업 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컨설팅단	- 대학 컨소시엄별 사업 계획 검토 및 자문 등 수행 - 평생교육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	산업체 등 지역 사회	-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문 및 멘토링 학생 현장 - 실습 기회 제공 교육 이수자 일자리 제공 현장 애로사항 발굴 등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3: 284-285).

- 사업비 배정 방식은 사업 유형(1·2유형/3유형), 대학 컨소시엄의 성인학습자 전체 모집 규모 및 정원 내 모집 규모 연차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최종 배정 차등 배분

〈표 II-3〉 LiFE 사업비 배분 방식 및 관리

구분	예산배분액 산정식	사업비 관리
구축형 (1유형)· 고도화형 (2유형)	예산배분액 =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¹⁾ × ①성인학습자 규모)+② 운영 경비} × 조정지수] + 연차평가 인센티브 ²⁾	대학의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중 대학 여건에 따라 선택되 선택한 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
	1) '23년도 전국 일반대, 전문대 학생당 교육비 2) 연차평가 인센티브의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	
3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예산배분액 = ① 지자체·대학 협업 예산 + {(② 대학별 예산 합산 ¹⁾ ×조정지수} + 연차평가 인센티브 ²⁾	- 지자체 전담 기관(교육부장관 지정)의 법인 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컨소시엄 내 자체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 광역지자체의 매칭비(지방비)는 국고 교부 후 개월 이내 전담 기관 회계에 편입하여야 함
	1) 컨소시엄 내 대학교를 유형 산식으로 계산하여 합산 2) 연차평가 인센티브의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관리 위원회에서 결정	

출처: 교육부(2024a)를 토대로 저자 작성.

- LiFE 사업 핵심성과 지표 중 세 가지 공통지표는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충원율’,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중도탈락율’, ‘대학 규모 대비 성인학습자 정원 확보율’로서 세부 산출식 및 핵심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II-4〉 LiFE 사업 핵심성과지표 중 공통지표

구분	핵심성과지표			
성인전담 학과 신입생 충원율	• 산출식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충원율	=	$\frac{\text{성인전담학과 총 입학인원 (명)}}{\text{성인전담학과 총 모집인원 (명)}} \times 100$	

구분	핵심성과지표						
	- 정의 :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 정의 - 기준 : 올해 3. 31 기준 사업참여학과와 올해 신입생 최종 등록 인원 - 모집 인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사업참여학과와 총 모집인원 수 (총 모집인원 = 정원 내 모집인원+ 정원 외 모집인원) - 입학 인원: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사업참여학과에 입학한 총 인원 수 (모집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 내·외 구분)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성인전담 학과 신입생 중도 탈락율	산출식						
	<table><tr><td rowspan="2">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중도탈락률</td><td rowspan="2">=</td><td>성인전담학과 중도탈락 학생 (명)</td><td rowspan="2">× 100</td></tr><tr><td>성인전담학과 재적학생 (명)</td></tr></table>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중도탈락률	=	성인전담학과 중도탈락 학생 (명)	× 100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중도탈락률	=	성인전담학과 중도탈락 학생 (명)	× 100				
		성인전담학과 재적학생 (명)					
- 정의: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고등교육 참여가 가능한 교육환경의 조성 - 노력 및 구축 정도 - 기준 - (연차평가) 올해 3. 31 기준 사업참여학과와 올해 신입생 중 중도탈락 학생 - (종합평가) 올해 3. 31 기준 사업참여학과와 사업참여학과와 학년도 신입생 중 중도탈락 학생 - 재적 학생: 올해 신입학 전형으로 입학하여 최종 등록한 자의 수 - 중도탈락 학생: 재적 학생 중 기준기간 동안 제적생과 자퇴생의 합 (※ 휴학생 제외)							
대학 규모 대비 성인 학습자 정원 확보율	산출식						
	<table><tr><td rowspan="2">성인전담학과 정원 확보율</td><td rowspan="2">=</td><td>성인학습자 정원 수 (명)</td><td rowspan="2">× 100</td></tr><tr><td>대학 전체 정원 수 (명)</td></tr></table>			성인전담학과 정원 확보율	=	성인학습자 정원 수 (명)	× 100
성인전담학과 정원 확보율	=	성인학습자 정원 수 (명)	× 100				
		대학 전체 정원 수 (명)					
- 정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성인학습자 정원 확보 정도 및 노력 - 기준 : 신입생(올해 3월, 다음 해 3월) 모집요강 - 성인학습자 정원 수: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총 정원 내 성인학습자 정원의 수 - 대학 전체 정원 수: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대학의 총 정원 내 정원의 수							

출처: 교육부(2024a)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24년 2월 기준 LiF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지자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5〉 LiFE 사업 참여 대학 및 지자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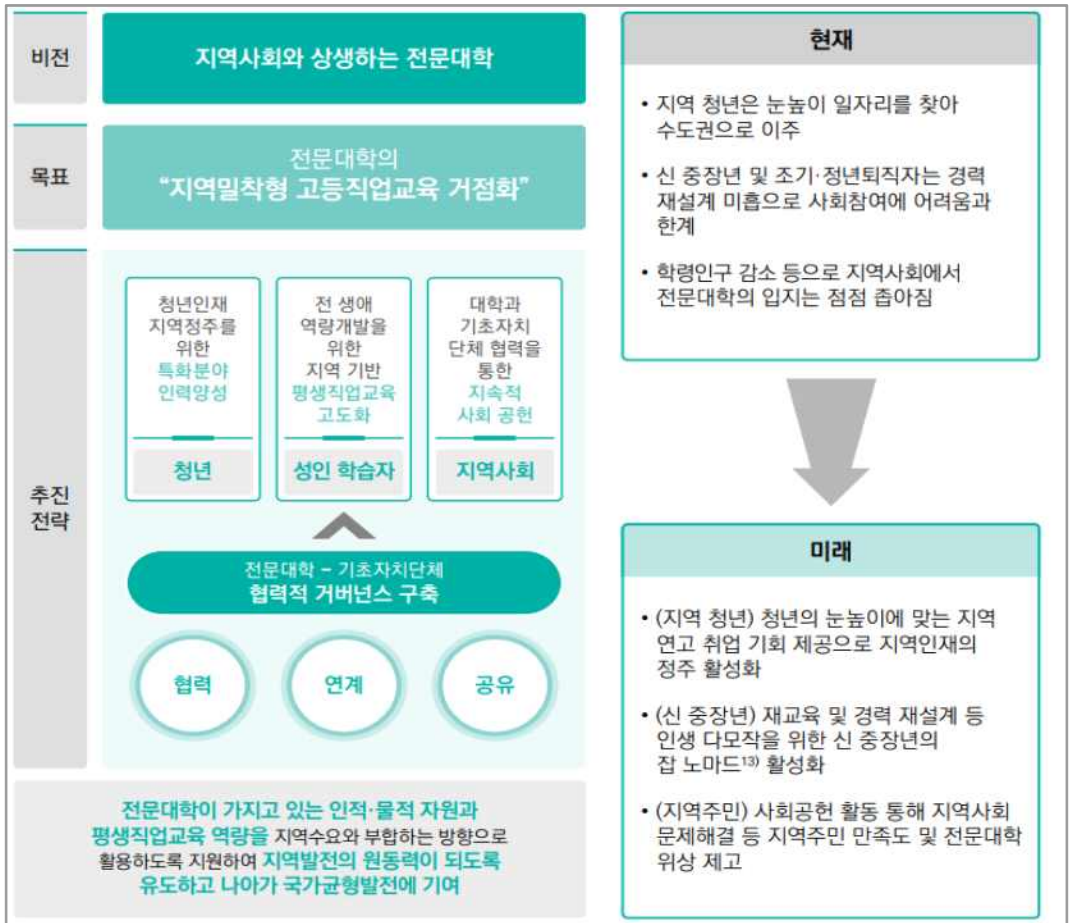
학제 유형	일반대			전문대		
1유형 (평생교육체제 구축형)	수도권	1교	광운대	수도권	2교	경민대, 안산대
	충청권	1교	배재대	충청강원권	2교	백석문화대, 충북보건과학대
	호남제주권	2교	우석대, 초당대	호남제주권	3교	광주보건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대경강원권	2교	대구대, 위덕대	대경권	2교	계명문화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동남권	2교	경남대, 동의대	동남권	1교	춘해보건대
	총 8교			총 11교		
2유형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	수도권	3교	가톨릭대, 명지대, 인하대	수도권	2교	서정대, 인천재능대
	충청권	2교	청운대, 한국교통대	충청강원권	-	-
	호남제주권	2교	전주대, 제주대	호남제주권	2교	군장대, 목포과학대
	대경강원권	3교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대경권	2교	성운대, 호산대
	동남권	2교	동서대, 영산대	동남권	2교	경남도립거창대, 부산경상대
	총 12교			총 8교		
3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 강원특별자치도 컨소시엄 : 가톨릭관동대+상지대 - 경상북도 컨소시엄* : 경일대+대구가톨릭대 - 전라남도 컨소시엄* : 동신대+목포대 -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 : 전주대+호원대 - 충청북도 컨소시엄* : 건국대(글로벌)+서원대 * RISE 시범지역					
	총 5개 컨소시엄(광역지자체 5개, 일반대 10교)					

출처: 교육부(2024a)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1) 개요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이하 HiVE 사업)은 지역 특화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여 지역 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재교육 및 향상 교육 사업임(교육부, 2022)
- 주요 내용은 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② 지역특화분야 연계교육과정 개편, ③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④ 지역공헌 프로그램 운영



[그림 II-6] HiVE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3: 296).

2) HiVE 사업의 주요 내용

- HiVE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과 지역화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인력양성으로 정주의 선순환 체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6〉 HiVE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축·운영	- 컨소시엄 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대학 총장, 기초자치체장, 교육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 추진	-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수요를 분석하여 지역특화분야 선정 - 선정된 지역특화분야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을 토대로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 운영 및 중등 직업교육과의 연계방안 모색 - 직업계고-전문대학-지역 내 산업체 취업을 연계하고, 지역 청년 인재의 취업과 정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체 협력 및 주거 지원, 교통편의, 문화 등 정주 인프라 지원(행안부, 산자부 협업)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지역의 특화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인재양성 기능 수행 - 전문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내 교육 수요, 구직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주민 전직교육 등 단기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지속적 사회 공헌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사항을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 추진

출처: 교육부(2024b)를 토대로 정리.

- ‘22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5년 간 총 45개(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의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대해서 총 810억 원의 국고 지원
- ’22년 30개, ’23년 15개 컨소시엄으로 진행(’24년 신규 선정 없음)
 - ’25.2. 사업 종료 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으로 재원 통합 예정
 - 전체사업비(국고+지방비)의 10%(2억 원, 국고지원금 18억 원 기준) 이상은 지방비 부담

○ HiVE 사업의 유형별로 예산, 지원내용, 컨소시엄 구성 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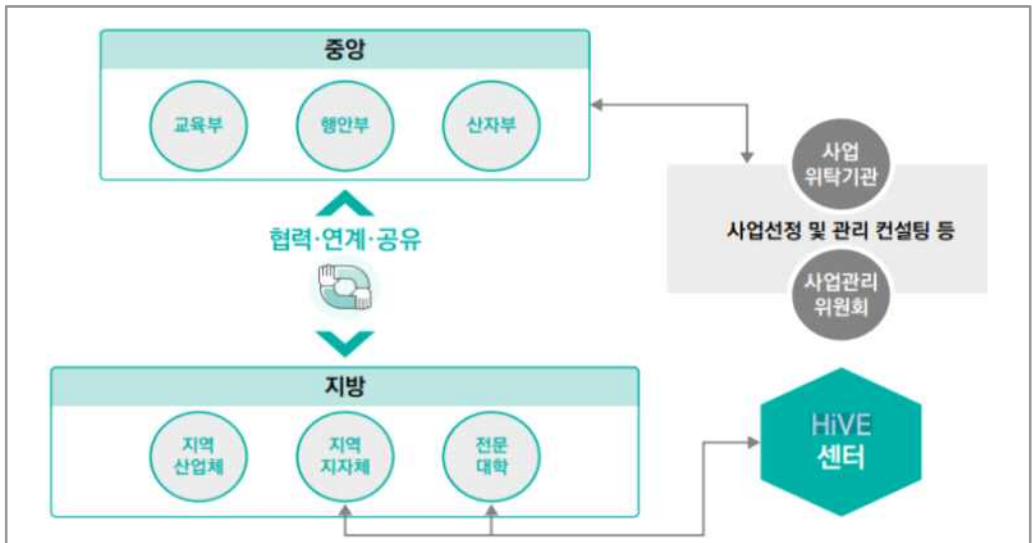
〈표 II-7〉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사업 유형)

구분	HiVE 유형 I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HiVE 유형 II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사 업 기 간	• 2022. 6. ~ 2025. 2. (3년) • 2023년 선정 시 ~ 2025. 2.(2년)	
사 업 예 산	연간 국고 810억원	연간 국고 90억원
지 원 내 용	•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 •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 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	• 전문대학이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준별 DX 역량 교육과정 및 지역 산업체 수요 맞춤형 제직자 DX교육과정을 제공 •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중장년의지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역할 수행 지원
컨소 시엄 구성	•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소재지) 간 컨소시엄 •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등 총 6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6개 컨소시엄 등 총 36개 컨소시엄을 선정 지원함. • 단, 권역 밖 지자체라도 시 군 구 경계가 대학 소재지 지자체와 인접하고 해당 지역에 전문대학이 없는 경우, 생활권역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표준모델 예외모델 ① 예외모델 ②	

출처: 교육부(2024b)를 토대로 정리.

○ HiVE 사업의 참여 주체별 역할

- 전문대학: 학과 정원 분포 및 교육과정 등의 교육체계를 분석, 지역 특화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인력수급 현황 등),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 설정,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교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 및 시행, 중점 육성 세부 분야 정하고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추진, 동일 특화분야 내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할 세부 분야를 정하고, 해당분야육성을 위한 학사구조·교육과정 개편·신설 등 추진
- 기초자치단체: 지역 특화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 발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된 사업 방향 제시 및 추진, 지역사회 공헌 과제 기획 및 수행, 지역 특화분야와의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재학생 및 재직자에 대한 지역 정주 지원 방안 마련,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산업체 등 지역사회: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문 및 멘토링 제공, 학생 현장 실습 기회 제공, 교육 이수자 일자리 제공,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안



[그림 II-7] HiVE 사업의 운영 체계

출처: 교육부(2024b: 298).

○ 2022년 HIVE 사업은 최종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표 II-8〉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선정 현황(2022년 기준)

권역 구분	컨소시엄 연합체 명
수도권 (6개교)	① 경민대-의정부시 ② 대림대(연성대)-안양시 ③ 동서울대(신구대)-성남시 ④ 동양미래대-서울 구로구 ⑤ 서정대-양주시(연천군) ⑥ 오산대-오산시
충청강원권 (6개교)	① 강릉영동대-강릉시 ② 강원도립대-양양군(고성군) ③ 충청대(충북보건과학대)-청주시 ④ 한국영상대-세종특별자치시(공주시) ⑤ 한림성심대-춘천시(홍천군) ⑥ 혜전대-홍성군
대구경북권 (6개교)	① 가톨릭상지대(안동과학대)-안동시 ② 경북보건대(경북과학대)-김천시 ③ 경북전문대-영주시 ④ 계명문화대-대구 달서구 ⑤ 대구보건대(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대구 북구 ⑥ 영남이공대-대구 남구
부산울산경남권 (6개교)	① 거제대-거제시 ② 경남정보대-부산 사상구 ③ 김해대-김해시 ④ 부산경상대-부산 연제구 ⑤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울산 남구 ⑥ 한국승강기대(경남도립거창대)-거창군
호남제주권 (6개교)	① 광주보건대-광주 서구 ② 동아보건대-영암군 ③ 목포과학대-목포시(신안군) ④ 원광보건대-익산시 ⑤ 전남과학대-곡성군 ⑥ 전북과학대-정읍시

출처: 교육부(2024b: 297).

-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컨소시엄 현황

〈표 II-9〉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수도권 컨소시엄 현황

연번	대학명	기초지자체
1	경민대	의정부시
2	대림대(연성대)	안양시
3	동서울대(신구대)	성남시
4	동양미래대	서울 구로구
5	서정대	양주시(연천군)
6	오산대	오산시

○ HiVE 사업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관리방법 : 지표 특성에 따라 성과지표별 평가주기는 차별화하되, 각 성과지표 관리는 매년 실시. 유형II의 경우 매년 평가 기반 성과관리
- 핵심성과지표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필수 성과지표
- 자율성과지표 : 개별 컨소시엄에 특화된 사업 비전과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성과지표

〈표 II-10〉 HiVE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유형	성과지표		
유형 I (고등직업 교육거점 지구사업)	- 지표 특성에 따라 성과지표별 평가주기는 차별화하되, 평가와 관계없이 각 성과지표 관리는 매년 실시 - 핵심성과지표		
		영역	핵심성과지표
	1	거버넌스 구축·운영	• 거버넌스 구축·운영·협업 성과
	2	특화분야 정규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정량 • 특화분야 개편학과 충원율
	3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직업교육심화과정 이수 실적
	4	지역사회공헌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수혜자 만족도
	5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청년 정주여건 향상률

유형	성과지표												
	• 자율성과지표(5개 이내)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대학 시설·자원 공유실적, 직업심화교육과정 연계 지역주민 창업실적, 지역 소상공인, 산업체 대상 애로기술(컨설팅) 지원, 직업계고 재학생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유형Ⅱ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각 성과지표 관리 및 평가 매년 실시 • 핵심성과지표 <table><tr><th></th><th>영역</th><th>핵심성과지표</th></tr><tr><td>1</td><td>DX 교육과정 운영 성과</td><td> • DX 교육과정 이수율 • DX 소단위 학위과정 취득률 </td></tr><tr><td>2</td><td>DX 교육 진로 성과</td><td> • DX 교육 이수자 취·창업률 • DX 직무 전환 추진률 </td></tr><tr><td>3</td><td>DX 직업전환교육기관 만족도</td><td> • DX 직업전환교육 이해관계자 만족도 </td></tr></table> • 자율성과지표(5개 이내) : DX 시설·자원 공유실적, DX 교육 전담 인력 확보율, 성인학습자 디지털 역량 지수 등		영역	핵심성과지표	1	DX 교육과정 운영 성과	• DX 교육과정 이수율 • DX 소단위 학위과정 취득률	2	DX 교육 진로 성과	• DX 교육 이수자 취·창업률 • DX 직무 전환 추진률	3	DX 직업전환교육기관 만족도	• DX 직업전환교육 이해관계자 만족도
	영역	핵심성과지표											
1	DX 교육과정 운영 성과	• DX 교육과정 이수율 • DX 소단위 학위과정 취득률											
2	DX 교육 진로 성과	• DX 교육 이수자 취·창업률 • DX 직무 전환 추진률											
3	DX 직업전환교육기관 만족도	• DX 직업전환교육 이해관계자 만족도											

출처: 교육부(2024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2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하 RIS)은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계획 수립부터 추진까지 전 단계를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첫 사업임(교육부공식블로그, 2021)
 - 각 플랫폼 별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지원하는 실체화된 조직으로서 지역협업체계를 구성
 - 「지방대육성법」과 동 법 시행령을 개정(2021.6.1. 시행)하여 지역혁신플랫폼 내 총괄운영센터가 지역협업체계의 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
 - RIS사업 계획은 대학, 지자체, 혁신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단위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
 - 일반대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전문대학은 산업체계 구성을 위한 인력양성
- RIS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큰 국립 일반대학 중심으로 진행되어 소규모 대학과 전문대학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이에 교육부는 2022년 전문대와 기초지자체가 연계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을 새로 추진
 -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이 지역 상생 주체로서 위치를 정립하고 생애 전 주기 고등·직업교육의 거점화를 목적으로 전문대 위주로 설계
- RIS 사업 운영 및 국비 지원 현황

〈표 II-1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운영 및 국비 지원 현황

연번	지자체	선정년도	대학	국비 지원
1	광주·전남	‘20년 선정	전남대, 목포대 등 15개 대학	480억 내외
2	울산·경남	‘20년 선정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3개 대학	480억 내외
3	충북	‘20년 선정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4개 대학	300억 내외
4	대전·세종·충남	‘21년 선정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대학	480억 내외
5	강원	‘22년 선정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	300억 내외
6	대구·경북	‘22년 선정	경북대, 영남대 등 23개 대학	480억 내외
7	부산	‘23년 선정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21개 대학	300억
8	전북	‘23년 선정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9개 대학	300억
9	제주	‘23년 선정	제주대 등 4개 대학	300억

출처: 이정미, 왕문혜(2023: 84).

- RISE 체제로 전환되면 RIS 플랫폼에 투입되던 예산 지원방식 등 사업 추진의 선택권도 각 지자체에 맡겨짐
- 복수의 지자체(광부·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로 운영되고 있는 초광역형 플랫폼과 공유대학 등 운영 시스템 역시 2025년부터 RISE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4차 연도를 맞아 각 지역혁신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공유대학 및 취업 지원 사업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임
- RISE 사업의 도입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RIS) 사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설계
-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나,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한계에 부딪힘
- 이에 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RISE 사업 설계. 이로 인해 RISE 사업

은 대학지원재정의 기획·집행·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 방점을 둠

- RIS 사업은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임(교육부, 2022a)
 -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등이 협업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대학-기업 협업과제 등을 추진함
- 반면, RISE 사업은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3~'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5년 전 지역에 도입 예정임(교육부, 2023b)
 -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추진함
- RISE 사업의 주요 전략은 대학재정에 대한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대학 협업 거버넌스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통합된 재원을 교육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배분
 - 2025년 체제의 본격 도입 전까지 광역지자체가 대학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및 대학지원 사업 관리, 지역 RISE 센터를 지정하여 중앙정부-지자체가 대학재정지원 관련 사항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시·도는 광역지자체 내 대학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수요 기반의 재정지원 계획을 제안하며, 교육부 및 타 부처와 지자체 간 RISE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지원함. 이를 통해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등 교육모형을 실행함

나. RISE 사업의 주요 내용

- 교육부의 RISE체계 이후 재정지원 방향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주요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확대

-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RISE 예산으로 전환 추진)
- 정책메뉴판 등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대학의 자원 확보
- 지자체 계획수립 등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 지원



②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

-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실수요 기반 대학 지원계획 수립 - RISE 협약 체결·실행 - 대학 지원 -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③ 규제 개혁으로 대학 자율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확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각종 규제 특례 적용
(교직원 인사·학기단위, 특별채용 허용 등/ 학사운영-공동교육과정 학점기준 완화,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 완화 등)
- 시·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한 지자체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사업관리 등 진행
-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법령·부령·지침 등 신속 개선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활용)

④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조직(부서 및 기관) 신설
- 지역주도 대학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법률 개정
-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 신설, 지방대 육성법 개정,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5년 단위) 수립 내실화(중앙부처 대학지원사업 연계·통합,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출처: 교육부(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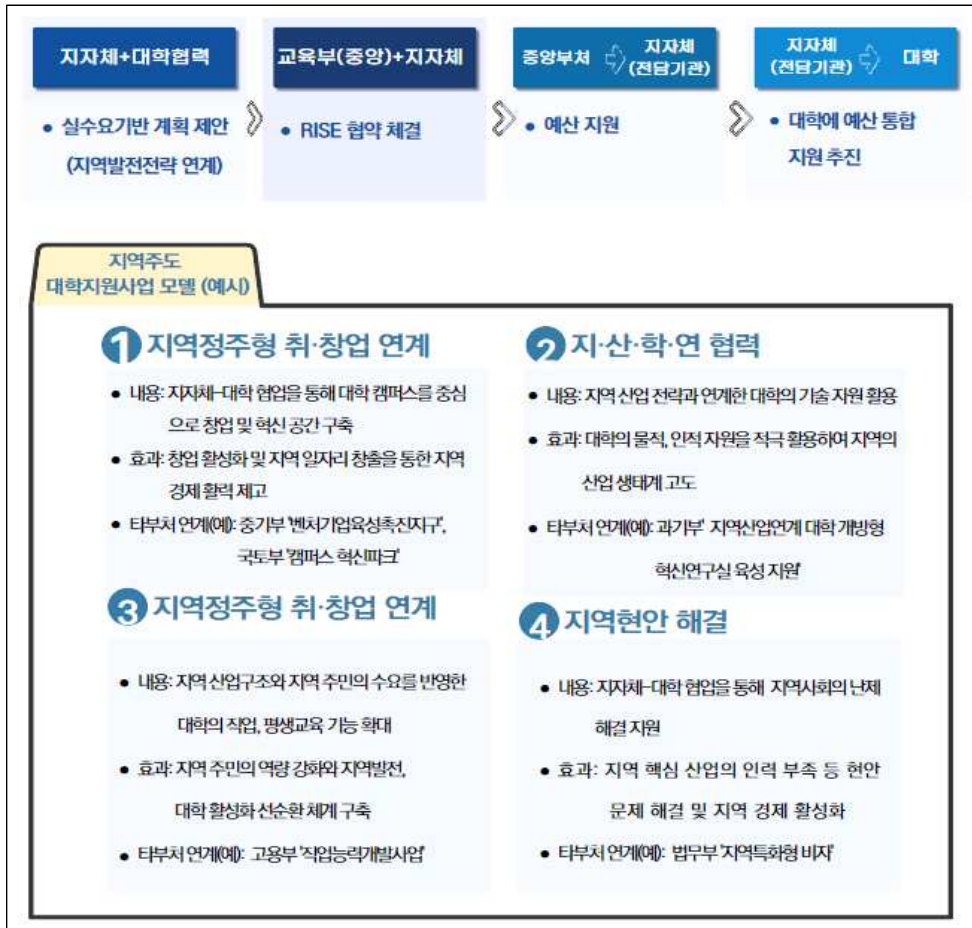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 확대

- RISE 체계에서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RISE로 통합하여 지원
- 5개 사업의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예정
-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RISE로 전환할 예정⁴⁾
- 지자체(시도)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지방대육성법」 제21조)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별대학을 지원할 예정

2)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

-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근거하여 지역대학을 지원
- 교육부는 지자체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해 지자체의 RISE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운영

4)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2021년 결산 기준)는 약 15조 원(사업 수 1,026개)이며,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약 5조 원 추산(교육부공식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13967>)



[그림 11-8]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3) 규제 개혁으로 대학 자율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확대

-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방대육성법」제22조)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 (권한위임) 지방대육성법 등, (규제개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개정 추진

〈표 II-1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 요청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교직원 인사	• 겸임교원 학기 단위 임용, 별도 채용 절차(특별채용) 허용 등
학사 운영	•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 완화, 국내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학점기준 완화 등
타부처 관련	• 자율주행 도로를 활용하여 인근 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 운영 허용,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학과의 이동수업 거리 제한 예외 등

출처: 교육부공식블로그.

4)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RISE 구축을 위한 선제조건으로는 지역의 대학지원 추진기반이 충실하게 갖춰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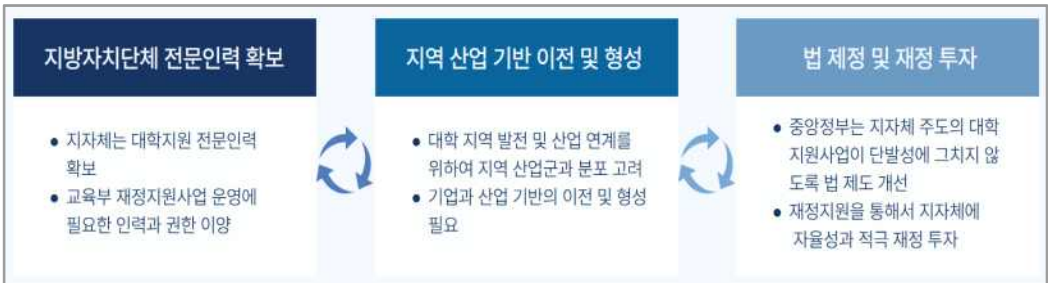
-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의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의 심의·조정하도록 함⁵⁾
-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 대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교육부는 RISE 체제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 중임

○ 한편, RISE 체제 구축 안에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국가적 차원의 요인과 지역차원의 요인이 있음(Nam & Lee, 2010)

- 국가차원의 요인 : 중앙정부와 대학 간 자율성과 권한문제, 재정 지원의 특성 등
- 지역차원의 요인 : 대학과 지역의 거버넌스, 대학의 강점과 지역 수요 일치 정도, 지역경제 여건, 지역 네트워크 존재와 유형, 지역 산업기반의 특성, 지역 풍토·문화·정체성 등

5) (전담부서) 시·도 자율운용 정원·범위 내 시범지역 운영, (협의회)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 RISE 체제하에서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통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하려면 여건의 조성 필요(하민지, 2023)
- (전문인력 확보) 지역대학의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대학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야 함
 - (산업기반 이전 적극 추진)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필요한데, 각 지역들의 산업군 분포로 볼 때 수도권에 밀집된 현재의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기업과 산업기반이 지역에 이전, 형성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강력한 전략과 지원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법적·제도적 근거 확보) 중앙정부가 지자체 주도적으로 대학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예산 이양 외에도 지자체가 대학교육 투자에 재량을 갖고 대학 지원 계획 및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 필요



[그림 II-9] RISE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 연계를 위한 조성 요건

2. RISE체계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변화 전망

가. RISE체제 하에서 변화되는 지역의 변화

- RISE 체제 하에서 지역의 변화는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의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 주민들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지역발전 계획과 RISE 계획이 연계됨에 따라, 지역사회는 대학의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
 - 산업체 및 민간과의 협업 구조가 강화되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이 향상되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직업훈련이 대학과 연계되어 제공
 - 협의체(지역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대학, 지자체, 산업체, 평생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
 -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및 평가체계가 운영되어 외부 피드백을 통해 자율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



[그림 II-1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기반 지역 변화

출처: 교육부(2024c: 13).

- RISE 체계 하에서의 지역 변화를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역 주민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교육부, 2024c)

〈표 II-1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제 하의 지역 변화

주체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난제 해결 •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증가 • 지역산업협력 활성화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대학	• 혁신 인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은 지역혁신을 통해 광역적 허브화 •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예산지원 받기 위한 사업책임/자부담 완화 및 유연한 재편으로 가능성 확보
지역기업	•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 R&D 효율성 제고 • 지역대학이 길러낸 우수한 지역인재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역 인재 적기에 확보
지역주민	• 유휴 대학/시설을 문화, 복지, 교육, 평생학습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여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 • 재난을 견뎌내고 싶은 지역 내 우수대학이 많아지면 교육비 부담 경감 • 다양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출처: 교육부(2024c: 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RISE 체계 본격 가동 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가운데 서평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① LiFE, ② HiVE, ③ LINC 3.0, ④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이 있음

- 가장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LiFE사업’과 ‘HiVE사업’이 있음⁶⁾

〈표 II-15〉 지역혁신중심 대학중심지원체계(RISE) 기반 대학 연계 사업 통합 방향

사업		'23예산(억원)	'23~'24(시범지역)	'25년이후
1	RIS(지역혁신)	3,540	• 5개 지역 내외 RISE 전환 • 지자체-대학간 협력 강화 • 대학: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의견 반영 • 지자체: 대학의 사업 지원	RISE 체제 통합하여 RISE 사업의 하위 메뉴 사업 전환 가능
2	LINC3.0(산학협력)	4,070		
3	LiFE(대학평생교육)	510		
4	HiVE(전문직업교육)	900		
5	지방대학성화	2,500		
예산 총계		11,520(국고 기준)		

6) 이들 사업의 내용은 제1절에서 자세히 정리 제시하였음

- 특히, LiFE사업 3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자·산·학을 연결하여 유형별 사업들을 견인하여 대학평생교육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RISE 사업을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RISE 체제와 LiFE2.0 3유형(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지역 발전과 대학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각 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함
 - RISE 체제는 지역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둠.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 연구소와 기술센터를 운영하여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LiFE2.0 3유형(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지역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둠.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실무중심의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함
 - 따라서 RISE 체제는 전체적으로 연구와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LiFE2.0 3유형(광역지자체 연계형)은 교육과 산업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
-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을 추진하는 RISE 체계와 LiFE2.0 사업의 3유형인 ‘광역지자체 연계형’과의 유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이희수, 2024)

〈표 II-1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LiFE(3유형)과의 유사성

구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LiFE2.0 유형 중 ‘광역지자체 연계형’(3유형)
추진 방향	•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 대학(전문대)의 평생교육 체계 지원
추진 목표	•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RISE 체계 추진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개발
사업 특징	• 지자체 주도도의 대학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 지역 특화산업 또는 지역 수요 분야를 반영,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편제(전문학-필수과목) 포함)
연계 주체	• 광역(혹은 기초자치단체) + 시·도진흥원 + 대학 + 지역사회(산업체)	• 대학(전문대), 컨소시엄(대학-광역자치단체-산업체)
추진 체계	• 광역시도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RISE센터) 설치, 관련 업무 총괄·기획 및 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대전제로 하여 지자체-대학-기업 컨소시엄 구성

출처: 이희수(2024: 17).

제3절. 지방정부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과 최근 변화 동향

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1) 개요

○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함.
-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직접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형태가 혼재하였으나 점차 직접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함.

○ 구성 현황

- 2024년 8월 기준 17개 모든 광역지자체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중

〈표 II-17〉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2024. 8. 기준)

시·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www.smile.seoul.kr
부산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www.bgli.re.kr
대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www.dle.study.daegu.kr
인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itle.or.kr
광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gie.kr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www.dile.or.kr
울산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www.ulsaninja.or.kr
세종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sjhle.or.kr
경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www.gill.or.kr
강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www.injae.gwd.go.kr/injae
충북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cbitle.or.kr

시·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충남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www.cile.or.kr
전북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www.jbitle.or.kr
전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jntle.kr
경북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gitle.or.kr
경남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www.gndamoa.or.kr
제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www.jiles.or.kr

출처 : <https://www.nile.or.kr/usr/wap/detail.do?app=13309&seq=19&lang=ko>

나. 주요 사업 내용

1) 법적인 역할

- 「평생교육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생교육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 향후 RISE 체제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교류의 채널로써 협의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2) 시·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 그동안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구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지역평생교육 사업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두었음

- 구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유관 사업,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임
- 대학과 연계한 사업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마다 차이가 많으나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함
- 대학의 경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대체로 적고 대학에서 필요한 인건비 지원 등에 제한이 있어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3) 지역 수요 기반 시·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개발·운영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 평생교육시행계획 수립,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확대, 광역 규모 취·창업 등 학습형일자리 창출 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 지자체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
- 그동안 광역단위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기초단위의 평생학습도시간 역할과 사업의 차별성 확보가 이슈가 되기도 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별로 기초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별화와 협력의 정도는 지자체장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음

다. 최근 변화 동향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제로의 변화 대응

- 교육부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2023~2024년)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를 선정함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3년 중 시·도 전담부서, RISE센터 지정, RISE계획(2025~2029년) 수립 등 RISE체계를 구축함(교육부, 2023)
-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RISE센터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한 지역은 경남, 전남, 강원 세 곳에 불과함

- 나머지 지역은 서울과 같이 광역 시·도의 연구원이나 기술진흥원을 RISE센터로 지정하여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RISE 체제하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지역 RISE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임
- RISE 사업 가운데 평생교육 사업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는 각 시·도마다 지자체장의 의지나 지역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충남RISE센터의 경우 충남연구원에 조직이 설치되어 있고 센터장을 포함 행정원 1인, 연구원 4인 등 6인의 인력으로 구성됨
- RISE 체제에서 광역 시·도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RISE센터간의 역할 분담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대학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지역평생교육 사업의 핵심으로 판단함

2) 지역 기반의 사업 비중 확대

-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평생교육 전문가 연수, 지역내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역 지자체 단위의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공통적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 기반 사업으로 확인됨
- 다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 사업추진 역량의 향상 등으로 지역의 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 기반 사업의 비중이 더 확대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RISE 체제에서 지역 대학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더 지역 기반의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23~'27년) 제안한 우수 평생학습도시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역산업 전환 대응 재교육 필요 지역, 고령층 다수 지역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3년간 집중지원하는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도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부족 등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은 없는 상황

-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광역+기초지자체(교육청 포함)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학, 기업, 관련기관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는 사회부총리 중심의 협력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부처별 자원을 활용해 지자체 중심의 컨소시엄을 지원 예정

2. 시·도별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운영 사례

- 2020년 1차년도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에 선정되어 RISE 센터가 설치되어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경남, 전남)를 중심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음

※ 참고자료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운영 및 국비 지원 현황

지자체	선정년도	대학	국비 지원
광주·전남	'20년 선정	전남대, 목포대 등 15개 대학	480억 내외
울산·경남	'20년 선정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3개 대학	480억 내외
충북	'20년 선정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4개 대학	300억 내외
대전·세종·충남	'21년 선정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대학	480억 내외
강원	'22년 선정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	300억 내외
대구·경북	'22년 선정	경북대, 영남대 등 23개 대학	480억 내외
부산	'23년 선정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21개 대학	300억
전북	'23년 선정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9개 대학	300억
제주	'23년 선정	제주대 등 4개 대학	300억

- 지역별 RISE센터 지정·운영 예정 기관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 가장 인제양성재단으로 전환 추진)	경북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대구정책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부산테크노 파크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충북연구원

출처: 교육부(2023b).

가. 경남

1) 경남 RISE사업의 주요 내용

- 경남은 RISE사업 시범운영 지역으로 RISE센터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
 -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 8명의 인력 배치⁷⁾
 - 같은 조직내에 구성되어 있어 RISE 사업 가운데 진흥원내에 평생학습정책팀이나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센터와의 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 미션 : 지역정주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
- 목표 : 지역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고도화(경남형 글로벌 대학육성, 10+ α 산업특화대학 육성, 글로벌 연구특성 대학 육성, 평생교육 거점대학 육성, 지역 정주환경개선)

미션	지역정주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				
비전	지역(인재, 기업)을 위한 RISE, 도약하는 경남 "Rise for You, Rise up 경남"				
목표	지역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고도화				
	경남형 글로벌 대학육성	10+ α 산업 특화대학 육성	글로벌 연구 특성 대학 육성	평생교육 거점대학 육성	지역 정주 환경개선
전략	A	경남형 글로벌 대학육성 프로젝트			
	B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 프로젝트			
	C	글로벌 연구 및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육성 프로젝트			
	D	지역혁신성장 선도·정주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마련			
	E	일자리창출 및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정주 환경조성			

[그림 II-11] 경남 RISE 사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

출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4)

7) <https://www.gndamoa.or.kr/01344/01355.web>

○ 경상남도 RISE 중점 추진 사업모델

〈표 II-18〉 경상남도 RISE 중점 추진 사업 내용

프로젝트	추진 세부내용
경남형 글로벌 대학 육성	▶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경남형 글로벌대학으로 지정, 대학의 대도약(Quantum Leap) 지원 - 구조개혁 등 대학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Flagship)으로 육성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	▶ 지역산업·기술혁신 거점 대학 구축·활성화 - 도 10+α 전략산업 육성지원과 투자유치 산업 연계 관련분야 우수 인재양성 ▶ 대학의 산학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학연계 중점대학 육성
글로벌 연구 특성화 대학육성	▶ 글로벌 연구중심 고급 인재양성(기초과학, 응용과학) - 글로벌 역량강화 R&D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 고도화 ▶ 연구특화 위케이션 클러스터 조성
지역혁신성장 선도·정주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마련	▶ 전주기 기반 평생교육 거점대학 육성 프로젝트 - 경남형 공동교육과정 체계 운영을 통한 공유기반 교육 체계 지원 - 평생교육 거점대학 육성(성인학습자 유형 평생교육 등) -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산업기능인력양성)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정주 지원
일자리창출 및 지역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정주 환경조성	▶ 일자리·창업 등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거점대학 육성 ▶ 취·창업 연계 지역정주 제도 구축 및 활성화 프로젝트 - 지산학연 협력기반 창업선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현안·문제해결 지원 프로젝트 - 기초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문제 공동해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한계 대학의 역할전환

출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4).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사업기간) 최종 선정 시 ~ '25. 2. 28.까지
- (사업규모) 7개 사업 / 45.45억원(국비 31.82, 지방비 등 13.63)
- (선정방법) 지역산업 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적합한 지역 전략산업 인재양성 수요 대학의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
- 시범사업 주요내용

〈표 II-19〉 경상남도 RISE 시범사업 주요내용

(사업비 : RIS 자율과제, 단위 : 백만원)

구분	시범사업	예산액
(경남 RISE 5개년 기본계획안에 따른) 10+ 전략산업 산업기능인력양성 등 시범사업	① 산업기능인력 육성(전문대형)	1,545 이내
	①-① (항공) 항공기 제조 및 수리 산업기능인력 양성	545 이내
	①-② (조선) 조선산업 생산 및 디지털 전환 산업기능인력 양성	500 이내
	①-③ (기계자동차) 스마트공장, 친환경자동차 등 기계자동차 산업기능인력 양성	500 이내
	② 산업중점 평생교육체계 구축	1,000 이내
	③ 산업중점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체계 구축	1,000 이내
	③-①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500 이내
	③-②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등 외국인 유학생 인력양성	500 이내
	④ 산학중점 공동 연구제조인력 양성과정 운영(2개 이내)	1,000 이내
	합계	4,545 이내

출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4).

2) 경남 평생학습대학 운영지원

- 기존에는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이었으나 2023년부터 도내 도립대학 (거창, 남해) 협력사업으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 2023년 사업비는 55,000천원으로 지원방식은 보조금 지원임하고 사업내용은 대학의 자원 (강사, 시설 등)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프로그램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기초 단위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20〉 경남 평생학습대학 운영지원 현황

연도	선정기관	사업명	교육 인원
2023년 : 2개소, 9개 과정 운영	경남도립거창대학	지역민과 함께하는 힐링팜 평생교육 (힐링팜 키친가드닝, 베이커리, 식음료 마케팅, 부동산상식, 응급처치법)	60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남해군민 역량강화 특별교육과정 (로컬푸드 홈베이킹, 카페 바리스타 자격과정, 생존수영, 스쿠버다이빙)	55
2022년: 2개소, 4개 과정 운영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대학 도민강좌 역사문화아카데미, 지역문화유산탐방, 생활문화체험강좌 프로그램	141
	창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뷰티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50
2021년: 3개소, 6개 과정 운영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대학 도민강좌 역사문화아카데미, 지역문화유산탐방, 생활문화체험강좌 프로그램	70
	가야대학교 평생교육원	웰빙음식 및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	95
	인제대학교 미래교육원	신중년 커리어개발: '50~65 제2인생학교'	60

출처: <https://www.gndamoa.or.kr/01288/01562.web#tabs1pane11>

3) 기타 경남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 2024년 경남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경남도 차원에서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지원 외에도 지역-대학 연계 대학위탁 평생교육강좌(40개 사업, 3,883,860천원), 지역-대학연계 대학 자체 평생교육강좌(16개 사업, 2,767,260천원), 지역대학 연계 평생학습 운영(1개 사업, 1,000,000천원)의 사업을 추진 예정
 - 상기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단위 사업을 모두 포괄
-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의 지역 대학 연계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의 차별성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음

나. 전남

1) 전남 RISE사업의 주요 내용

- 전남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 RISE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남 RISE추진단은 단장을 포함 7명의 인원으로 구성⁸⁾
-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RISE추진단의 업무는 RISE 사업에 포함된 LiFE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
 - 평생교육 이외에 R&D나 산학협력 등 RISE사업에 포함된 기타 대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 내 RISE추진단의 업무로 자세히 제시하지는 않음
- 2021년: 3개소, 6개 과정 운영는 전라남도(대학혁신과)가 RISE 계획수립, 행정/제도/예산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전남 RISE센터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



[그림 II-12] 전남 2021년: 3개소, 6개 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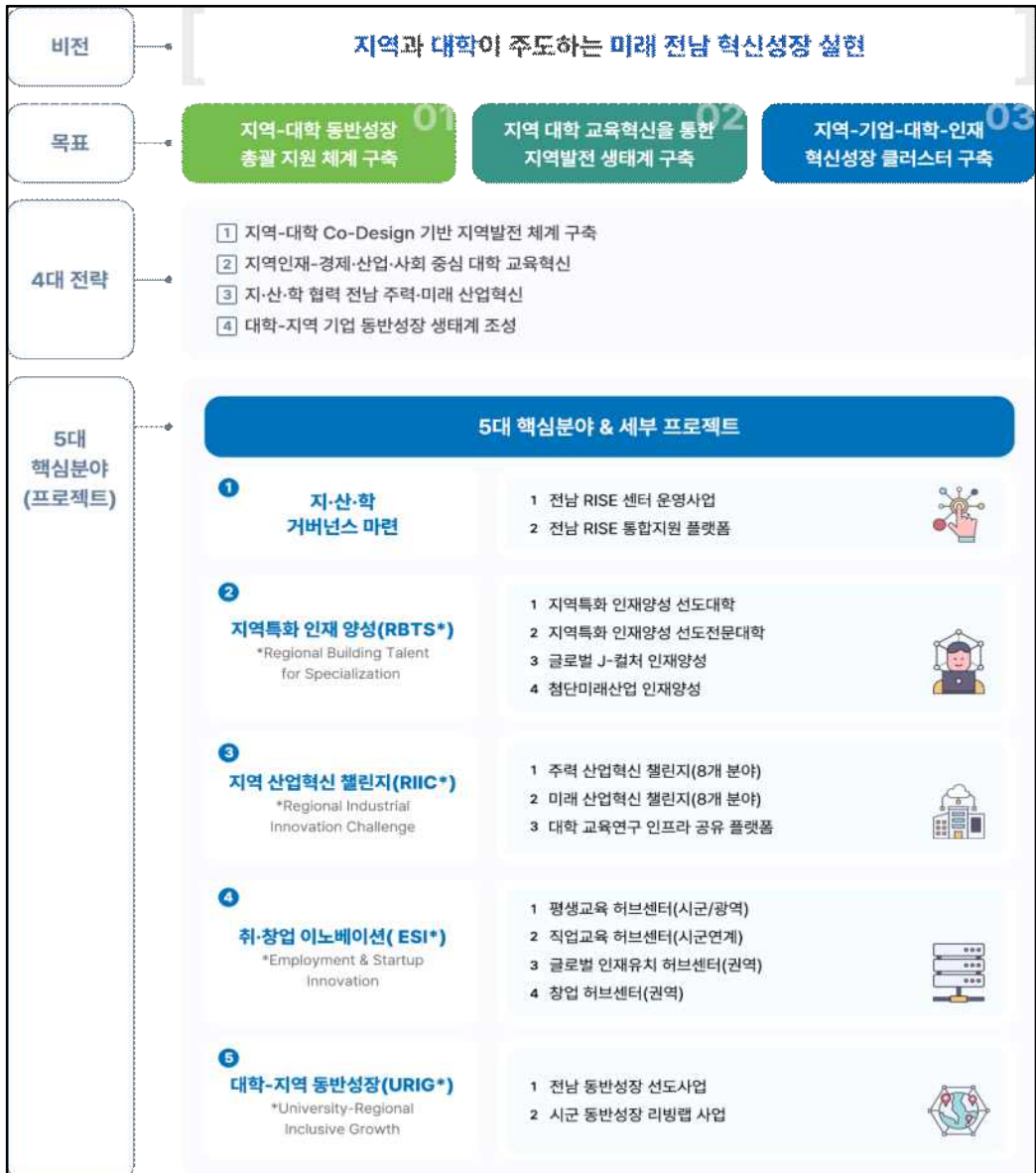
출처: <https://www.jntle.kr/main/contents/visionAndGoals>

○ 전라남도 RISE 비전 및 목표

- 비전: 지역가 대학이 주도하는 미래 전남 혁신성장 실현

8) <https://www.jntle.kr/main/contents/organizationChart>

- 목표 지역-대학 동반성장 총괄 지원체계 구축, 지역 대학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지역-기업-대학-인재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 4대 전략, 5대 핵심 분야(프로젝트) 선정



[그림 II-13] 전남 RISE 비전과 목표

출처: <https://www.jntle.kr/main/contents/visionAndGoals>

2) 전라남도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RISE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
- (사업기간) 2024년 선정 시 ~ 2024. 12월
- (지원대상) 도내 대학(본교·분교 구분 없이 도내 소재 대학)
- (사업규모) 3개 컨소시엄(권역별 1개 컨소시엄)
- (사업예산) 컨소시엄별 70백만 원 내외
- (사업내용) 대학-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신청대상) 일반대학(주관대학)

- 권역별 대학과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 주관대학(일반대학)이 신청
 ※ (주관) 일반대학, (참여)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군, 연구혁신기관, 기업 등
- 해당 권역 내 모든 대학과 시군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①시군 경계가 대학 소재지 시군과 인접한 경우 ②생활권역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③기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 밖 시군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표 II-21〉 전남 권역별 시군 및 대학 현황

구 분		시군 및 대학
서부권	시군(8)	목포,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대학(7)	동아보건대, 목포가톨릭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세한대, 초당대
동부권	시군(7)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장흥
	대학(6)	광양보건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청암대, 한영대
중북부권	시군(7)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대학(5)	나주대, 동신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한국에너지공대

출처: 전라남도(2024).

제4절.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1. RISE 체계 하에서 서평원의 역할과 기능

가. 명확한 사업추진 체계 확보

- 평생교육 전담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RISE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전남과 경남뿐이라서 RISE 체제하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사례는 이들 두 지역에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이들 두 지역의 RISE센터 조직 및 운영을 살펴볼 때 다양한 사업이 RISE에 포함되었고 광역지자체에서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과는 조직 및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RISE사업 중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 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아 RISE센터만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치하고 있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에 RISE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은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RISE사업에 평생교육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서울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내에 지역대학 평생교육사업을 전담 조직을 강화하여 서울RISE센터와 대학간의 유기적인 사업수행 및 의사소통 채널로 역할 담당 필요
 - 서울의 경우 RISE센터가 서울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어 평생교육관련 지역대학과의 사업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연구원내 RISE센터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
 - 서울시 RISE기본계획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대학과 평생교육관련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나. 서울형 LiFE 사업과 서울형 HiVE 사업 고도화를 위한 서평원의 역할과 과제

- 평생교육진흥원은 LiFE 사업과 HiV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대학이 평생학습 모델에 참여하도록 유도

1) 서울형 LiFE 사업 고도화를 위한 서평원의 역할과 과제

-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대학에 보급하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사 제도를 모든 학부 및 단과대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가이드를 제공하여, 대학 전체에서 성인학습자가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지원의 상한을 재조정하고, 효과적인 자금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LiF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대학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
- LiFE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추진되는 LiFE 2.0사업에서는 현재의 사업단에 국한된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가 대학 전체로 확산할 것을 핵심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RISE 체계 하에서 LiFE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서울형 HiVE 사업 고도화를 위한 서평원의 역할과 과제

- HiV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지향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그 한계와 향후 과제가 제기(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 지원 규모 확대: 지역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 필요
-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지역-산업체-대학 간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주요 관계자들의 연계 강화
- 신중장년층 직업전환 역량 강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전환 교육 강화
- 디지털 전환교육 강화: 디지털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 필요
- 성인 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 야간 및 주말 수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해 신중장년층의 편의성 제공
- 지역사회 공헌 강화: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활동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 체계 마련
-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문화 확산: 대학 시설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지역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 간의 상생 구조 강화

2.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의 연계 및 차별화

- LiFE와 HIVE 등 기존 사업의 지속적 수행적 수행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다른 지역의 경우 RISE로 이관된 기존 사업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 2024년도 내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에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한 사업성과관리를 서울에 적합하게 재구조화 필요가 있음

- 학위과정의 경우 서평원에서 사업을 관리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존 사업의 연속성상에서 관리할 것인지, 차별화한다면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기존 사업 참여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서울의 상황에 맞게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매뉴얼 재구성 필요
- LiFE와 HIVE 외에 신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 및 자치구에서 수행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성 확보도 필요
 - 다른 지역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RISE체제 하에서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히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서울은 기존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한 대학연계 프로그램 및 서평원에서 추진한 대학연계 사업과 차별화한 프로그램 및 사업의 발굴을 통한 RISE체제에 대응한 사업 발굴 필요
 - 대학 및 자치구와 함께 기존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필요
- 서울 RISE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 분야의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는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실에 진행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마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과제 발굴 및 수행 필요
 - 서울시가 자치구와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예: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연계, 라이즈 기본계획상의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등)
 - 다만, 자치구, 타사업, 타부서와의 연계 협력은 현실적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RISE 사업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RISE 사업은 일괄적으로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서 접수받아 참여대학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과제를 RISE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RISE 체제하에서 자치구 및 서울시와 평생교육 사업에 참여하되 중복성은 제거하고 협력과 연대 사업 확대
- 서평원과 자치구 평생학습도시간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평생교육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현재 제시된 RISE 기본계획상 과제유형인 돌봄, 환경, 문화·디자인 외에도 평생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업체와 지역사회의 학습기회 확대 등도 예시로 제시 필요
- 현장에서 실제 잘 작동하지 않는 학습유급휴가제, 일-학습 병행, 일-가정 양립(워라벨),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등

나.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 및 추진

-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대학과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RISE 체제하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재설계 필요
- 아직까지 타시도의 RISE 체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울의 경우 그동안 추진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기반으로 사업 재설계가 타당
- 사업내용, 사업추진 방법,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지역대학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하여 RISE 체제에 맞는 평생교육 사업 관리 요구
- Top-Down식 사업 발굴이 아닌 사업 발굴 단계부터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획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 현장의 요구사항 반영 필요
- 기존에 LiFE, HIVE 등 평생교육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의 의견수렴
-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는 전북 및 충남에서 진행하는 시민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자치구에서 추진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도 필요
-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시민참여기회 확대 필요
- 서울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자치구간 평생교육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서울형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 개발(서울 평생학습도시2.0)
 - 라이즈 체제에서 서평원과 자치구간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구축
 - 지역주민 취업을 증가, 삶의 질 개선 등 성과도출에 주력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우수모델로 운영
 - 도시 차원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공동 마련
- 타 시도에서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27))를 선도적으로 서울형 모델로 구축·운영 필요
- 광역+기초지자체(교육청 포함)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학, 기업, 관련기관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
 -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27))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 구축
 - 각 지자체의 산업특성·인구지형·교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다채로운 특성화·고도화 등 추진하고 광역지자체(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 자치구(평생학습도시)와 서울시(서평원)이 따로따로 추진하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에 서평원의 주도적인 역할 확대

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역할 차별화

- 획일적으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모든 대학이 참여하여 수행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문성을 살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모델 구축 필요
 - LiFE와 HIVE 등 기존 사업 참여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대학간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 대학 유형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학별 역할 차별화
 - 권역별로 공통적인 프로그램 및 대학별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적정 비율로 안배

-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지역을 넘어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까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 요구
 - 서울의 5개 권역별 대학의 분포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5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하이브리드 수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으로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다양한 수업방식 도입을 통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에 가장 큰 제약요인은 시간부족 문제 극복

3. 학습결과의 인정과 활용

- 학습참여자에 대한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경험인정을 통한 사회적 활용도 제고 등 후속 방안 마련 등 필요
 - LiFE와 HIVE 등 기존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에 대한 학습이력 관리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 관리체계는 마련된 상황이므로 개별 학습자에 대한 학습이력 관리는 참여대학에서 계속 담당
 - 학습자의 학습참여 이력의 대학간 학점연계를 위한 공동이력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비학위과정 학습이력의 서울시 차원의 활용을 위한 서평원 차원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27)에서도 제안한 디지털 배지 도입시 대학과 산업체(노동시장)에서도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범사업 및 서울시 등의 정책과 연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학습결과의 인정과 활용은 참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될 수 있도록 산업체(노동시장)의 참여와 서울시의 정책지원이 관건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에서 대학은 투입과 과정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결과와 성과는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산출되어야 함
 - 기존에 구축한 타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의 활용 미흡을 분석하여 활용도 높은 서울형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요구

III

주요국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캐나다(온타리오 주)

제4절. 유럽 국가

제5절.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III

주요국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 사례

제1절. 미국

1. 평생교육 기반 구독형 대학

가. 구독대학의 개념

- 미국의 대학들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고등교육기관 종료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형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 새로운 미래대학의 형태로 구독대학(Subscription University)은,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를 내고 필요할 때마다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교육 형태를 의미⁹⁾
 - 대학 4년간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평생 직업을 가져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순간마다 재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
 - 구독대학의 개념은 기존 대학 수학 연령으로 여겨지는 18~22세 사이의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전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과 실제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정의
- 구독대학의 수업료 책정 방법과 유형

9) “학위도 구독하는 시대? 미래대학의 새로운 형태: 구독대학” (2021.7.21.) <https://www.nest4next.com/insight/insight9>

- 평생에 걸쳐서 대학 등록금을 구독 형태로 내는 방법
- 대학 4년의 수학 기간 동안 등록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에 걸쳐 구독의 형태로 내며 추가적인 수업을 듣는 방법
- 첫 번째 학위 취득 후 다른 학위를 취득할 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

나. 보이즈 주립대학(Boise State University)의 “교육으로 가는 여권(Passport to Education)” 파일럿 프로그램

○ 취지¹⁰⁾

- 아이다호는 25~34세 성인의 60%가 대학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등교육정책 추진
- 아이다호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기반으로 적극적 지원
- 기업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립대학으로서 대학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접근성과 비용을 높이는 혁신적인 방안 도입 지원
- 온라인 기술을 통해 학생의 인생 단계나 위치에 관계없이 학위 취득에 대한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함

○ 주요 특징

- 월 구독료 개념으로 목돈 지출의 부담을 낮추며 학비를 인상하지 않고 고정하여 등록
- 온라인 학습 위주로 응용과학 및 학제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성인학습자 개인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
- 학습자의 개별 학습 진도에 맞게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2018년 가을학기부터 2020년 봄 학기까지 진행

10) <https://www.boisestate.edu/news/2018/06/19/boise-state-to-pioneer-monthly-subscription-based-college-degree-program/>

- 대학 입학 후 중도탈락 경험이 있는 아이다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
- 수업은 캡애드(CapEd)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통해 제공
- 온라인수업플랫폼을 활용하여 대학 4년 등록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등록금을 월 구독료의 형태로 지불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게끔 지원함
- 수업료는 기존 총 42,000 달러였던 온라인 프로그램을 34,000 달러로 수료할 수 있게 함

〈표 Ⅲ-1〉 보이즈 주립대학교의 구독대학 비용과 기간

구분	플렉스 여권(Flex Passport) 6 프로그램	플렉스 여권(Flex Passport) 9 프로그램
학위취득을 위한 총 비용 (기존 온라인학위 \$42,000)	\$34,000	\$29,333
학점당 비용	\$283.33	\$244.44
연간 최대 학점(1년=3학기)	18	27
월 비용	\$425	\$550
절약 비용(기존 온라인 학위와 비교)	19%	30%
예상 수학 기간	6.7년	4.4년

다. 스탠포드 대학의 열린대학(Open Loop Univeristy)

○ 취지

-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이 참여한 프로젝트 Stanford 2025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에서 출발
- 대학졸업생의 4분의 1만이 대학전공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등교육이 개인의 인생 과정에 미치는 역할을 확대함

○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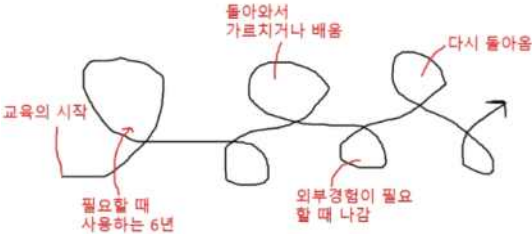
- 단선적으로 4년에 학위과정을 마쳐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6년 기간을 등록
- 학문을 토대로 중장년, 노년층이 직업을 전환 → 다시 학문과 사회적 맥락을 연결
- 다양한 연령대로 학생입학 통로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방 → 동문이 아닌 잠재적 복학생

-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Gap Year를 최소함으로써 학업 재개에 대한 부담을 낮춤
- 캠퍼스 내 인구구조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인프라 개발

○ 의의

- 미래에는 대학 교육 4년으로는 교육이 부족하고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스탠포드가 점진적으로 구독대학의 형태를 갖출 것이라고 예측
- 현재 스탠포드 대학은 구독대학의 형태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근접하게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였다는 데 의의

〈표 III-2〉 Open Loop University의 개념 및 특징

현재 대학의 모습	열린대학의 모습
	
• 18-22세 4년간 • 교실에서의 공식적 학습 • 이후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 제한 • 18세 입학단계에 입학 자격 증명 필요 • 가끔씩 이벤트 형태로 동문의 캠퍼스 방문	• 평생에 걸쳐 6년간 • 교실과 실제 현장을 넘나드는 지식 취득 • 노련한 성인들이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캠퍼스 복귀 • 다양한 연령층의 학업 참여 • 전문실무자로 돌아와 캠퍼스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줌

2. 지역 수요자 맞춤형 대학 평생교육

- 전생애적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평생교육의 영역을 지역의 2년제, 4년제 대학, 직업훈련기관들의 특성에 맞추어 매칭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교육기관과 학습자를 연결하고 있음

가. 조지아주 파트너십

- 대학 연구소를 활용한 연구 및 성과 관리
 - 주 전체의 낮은 교육 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를 통해 관리 및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
 - 조지아 성인교육과(GOAE, the Georgia Office of Adult Education)와 조지아 주립대학 성인 문해연구센터(ALRC, Adult Literacy Research Center)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
-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투자
 -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대학 간 프로그램 연계가 특징적임. 그 중, 조지아 기술대학(TCSG, The technical college system)에는 기술 및 핵심 학업 교육을 제공하는 22개 단과대학이 협력하고 있음
 - TCSG의 2023년 예산은 4억 4천4백만 달러로, 이 중 약 3억 8,300만 달러(약 86%)가 기술 직업교육에 할당되며, 나머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개인을 위한 성인교육 및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
- 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과의 연계
 - 조지아대학교의 농업경제발전센터(Center for Agri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CAED)를 주축으로 확장 사무소 프로그램(Extension Office)은 각 카운티에서 운영
 - 프로그램의 미션은 농업, 환경, 지역사회,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편견 없는 연구 기반 교육을 통해 조지아 시민에게 평생 학습을 확대

- 각 카운티, 조지아대학교, 조지아주 및 미국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와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 농부, 재배자 및 조경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테스트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조지아주의 각 카운티 교육청을 통해 제공

○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 투자

- 조지아 직업, 기술 및 농업 교육(Career, Technical, and Agricultural Education, CTAE) 프로그램은 미래 기술 분야 및 조지아주 특화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
- CTAE 프로그램은 주지사의 전략 산업 및 인력개발 태스크 포스 권고에 따라 커리큘럼 개정 프로세스 시작. 중등 및 고등학교 교사들의 협력으로 조지아 노동력의 미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함. 예를 들어 농업 진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농업 과학, 생명 공학, 잔디 관리, 조경, 식품 과학, 임업, 환경 과학, 농업 공학 및 농업 비즈니스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을 갖추게 됨

나. 국가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CTE National Program)

- CTE National 프로그램은 각 주의 지역 직업 기술교육기관과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경력 개발과 직업탐색을 돕기 위해 지원
 - 2023년에는 총 2억 8백만 달러를 배정하여,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고, 유색인종을 포함한 포괄적 고등교육의 제공을 목표로 함
- 이 프로그램은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며, 직업 및 기술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적 지원, 평가 및 활동에 활용
 -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조금은 연방정부 외 출처로부터 보조금 형식(예, 현금, 현물)의 50%에 해당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

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연합(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CCC)

-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연합은 “비전 2030”(2023. 9)을 통해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680만 명의 성인에게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지만, 고등교육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CCC는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을 비전으로 설정함
- 주요 목표
 - 형평성 중심의 교육(소외된 지역사회, 저소득층,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회가 부족했던 집단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
 - 유연한 교육 방식 제공(유연한 학습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이 학업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 교육 및 기술 훈련 강화(지역사회와 기업,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구축(성인 학습자와 비전통적인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육을 통해 경력 전환이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고등교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학 기회 확대와 비용 절감)
- 각 목표별로 정량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점을 제시

〈표 III-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비전 2030 성과목표

목표	성과목표	기준점 및 목표치
학생성공에서의 형평성	성과1: 학업성취	2030년까지, 자격증,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완료하는 학생 수를 형평성 있게 30% 증가
	성과2a: 학사 학위 취득	UC와 CSU와의 새로운 데이터 공유 협정을 통해 목표치 설정
	성과2b: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ADT)	2030년까지, 편입한 준학사 학위를 취득 학생 수를 30% 증가
	성과2c: 커뮤니티 칼리지 학사 학위	2030년까지, 커뮤니티 칼리지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수를 30% 증가

목표	성과목표	기준점 및 목표치
	성과2d: CSU 또는 UC로의 전학	2030년까지, CSU 또는 UC로 전학하는 학생 수를 20% 증가
	성과 3: 직업 성과	2030년까지, 고등 교육을 마친 후 지역 생활 임금을 받는 학생 비율을 10% 증가
접근에서의 형평성	성과 4: 학생 참여	2030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 또는 25% 이상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에 중점을 둔 학생수 증가
지원에서의 형평성	성과 5: 재정 지원 확대	2030년까지, 펄 그랜트와 캘리포니아 칼리지 프로미스 그랜트를 받는 학생 수를 10% 증가
	성과 6: 졸업 학점 수 축소	2030년까지,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취득 요구 학점 수를 20% 감소

제2절. 일본

1. 성인 재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가. 개요

- 인생 100년 시대와 디지털 사회의 진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정세를 바탕으로 산업계나 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확충, 리커런트(순환) 교육의 기반 정비를 다룬 중앙관청과 연계하면서 추진하여, 누구나 언제라도 커리어 업·캐리어 체인지를 실현하면서 새로운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2023년도 예산액 91억엔)
- 대학,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 등을 활용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충

〈표 Ⅲ-4〉 순환교육 등 사회인의 다시 배움의 충실화 사업(2023년 예산 기준)

사업 (2023년 예산)	주요 내용
성장 분야의 즉전력(即戰力) 인재 배출을 위한 순환 교육 추진 사업(1,741백만엔)	취업자·비정규 고용 노동자·실업자 등에 대해 디지털·그린 등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대학원 등에서 사회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횡전개하여 원활한 취업·전직을 지원
전문직업 인재의 최신 기능 업데이트를 위한 전수(專修) 학교 순환 교육 추진 사업(402백만 엔)	전수학교의 교육 분야에서 기업이나 각 업계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
지속적인 산학 공동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사업 (107백만 엔)	- 사회인의 다시 배움을 포함한 실천적인 교육을 지탱하는 실무가 교원을 육성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실시 - 대학 등에서 가치창조 인재 육성 거점 형성 - 사회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사고·아트 사고의 양성, 분야 횡단형의 학수(學修)를 거쳐, 창조적인 발상을 비즈니스에 연결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거점을 형성
여성의 다양한 챌린지에 다가가는 배움과 사회 참여 지원 사업 (21백만 엔)	여성의 커리어 업·커리어 체인지를 향한 다시 배움과 커리어 형성 등의 종합적 지원
대학에서의 지방 창생 인재 교육 프로그램 구축사업 (169백만 엔)	-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처와 일체가 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사회인도 대상에 포함해서 단기 프로그램 제공도 상정

나. 교육훈련금부제도

- 교육훈련금부제도는 일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능력 개발이나 커리어 형성을 지원해 고용의 안정과 취직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했을 때, 수강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것
- 금부금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레벨 등에 따라 ‘전문실천교육훈련’, ‘특정일반교육훈련’, ‘일반교육훈련’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전문실천교육훈련
 - 특히 노동자의 중장기적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이 대상임
 - 수강 비용의 50%(연간 상한 40만 엔)가 훈련 수강 중 6개월마다 지급
 - 자격 취득 등을 하고, 또한 훈련 수료 후 1년 이내에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된 경우는 수강 비용의 20%(연간 상한 16만 엔)가 추가로 지급
 -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문실천교육훈련(통신제, 야간제 제외)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개시시 45세 미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교육훈련지원금부금을 지급
- 특정일반교육훈련
 - 특히 노동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조기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이 대상임
 - 수강 비용의 40%(상한 20만 엔)가 훈련 수료 후에 지급
- 일반교육훈련
 - 그 외 고용의 안정·취직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교육훈련이 대상임
 - 수강 비용의 20%(상한 10만 엔)가 훈련 수료 후에 지급

2. 지역과 연계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전환

- 지자체와 대학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 문제(실업, 노령화, 이주민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대학의 체제 전환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맞춰 학과간 장벽을 허물고 학사구조를 유연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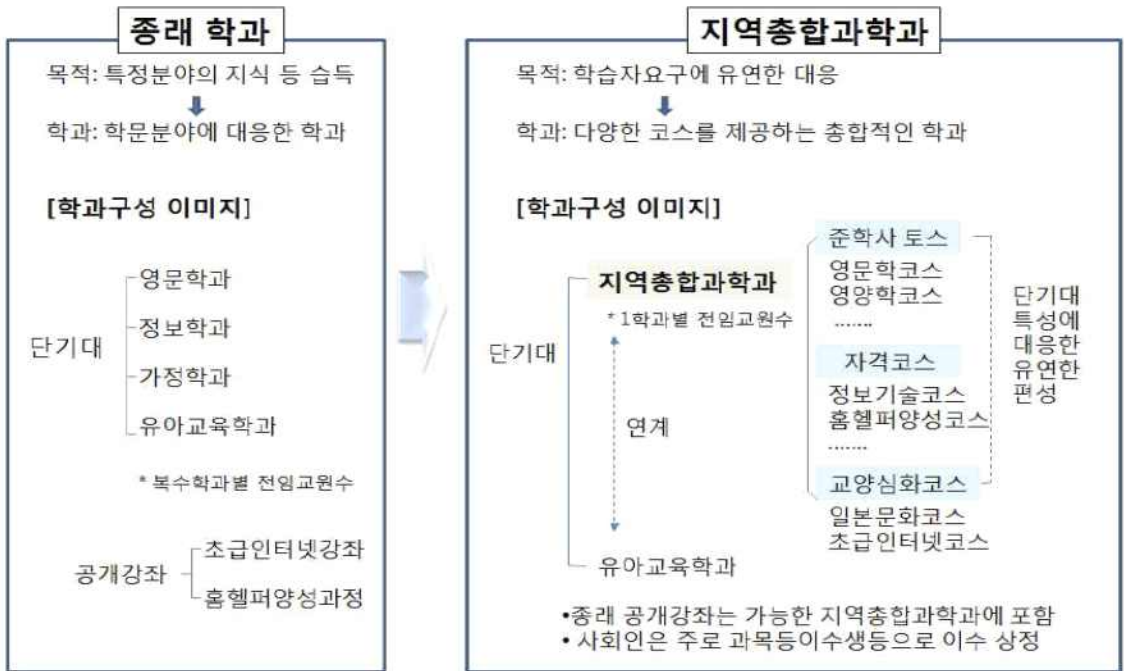
가. 일본 단기대학 지역총합학과

○ 취지

-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대학을 통해 ① 교양교육과 실무교육을 결합 한 전문적 직업교육, ② 보다 풍부한 사회생활 실현을 위한 교양교육, ③ 지역사회와 밀착하면서 사회인과 고령자 등을 포함한 폭넓은 연령층에 대응한 다양한 평생학습기회의 제공 등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함.

○ 주요특징

- 학습자 요구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다양한 코스를 두는 학부 플랫폼 형태의 구조 개편
→ 학생의 요구에 대응하는 신규 과목 개설에 유연하게 대응 (예: 세이아학원 커리어개발 총합학과 - 의료사무, 건강스포츠, 사설·공무원, 제과, 디지털정보, 비즈니스실무, 패션, 라이프 디자인 등 9개 유닛에서 기초 8단위 이수후 선택과목 46단위로 단기 학사 학위 취득)
- 학사 운영에 있어서 2년 정규과정 외에도 다양한 과목단위 이수과 복수의 단기과정을 조합하여 수료
- 원격수업, 야간과정 등 다양한 수료 형태를 제공
- 지역총합학과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질 관리



[그림 III-1] 일본 지역총합학과의 개념

출처: (이정표 외 2023: 123).

나. 일반인 대상으로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사회기여 프로그램

- 평생교육은 전통적 학령기 학생들과 달리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분포함. 이를 위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강화하되 지역문제해결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음
- 도쿄도립대학 오픈 유니버시티(東京都立大学オープンユニバーシティ)
 - 도쿄도립대학 평생학습추진센터에서 운영
 - 도민과 사회인의 학습 요구에 따른 평생학습 거점.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이 가진 학술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강좌 개설
 - 회원제이며, 연령 등의 요건, 시험 등은 없음. 연간 약 350강좌를 개강하고 있고, 평일 주간, 야간과 토요일에 많은 사람이 수강하고 있음

- 2020년도부터 도민 외에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 개설함
- 관심 있는 1강좌부터 수강 가능하며, 오픈 유니버시티 독자적인 학위 칭호를 수여함

〈표 Ⅲ -5〉 도쿄대학 오픈유니버시티 강좌예시(2024년 10월)

구분	과목
특별 강좌	2024년도 노동 세미나~시사적 과제 세미나~(전기·후기)/온라인커뮤니케이션의 함정~장·단점~
에도·도쿄/ TOKYO	라쿠고로 걷는 에도·도쿄/다치카와 스시의 라쿠고+에도 운치쿠바나시(蒔繪+키리즈에(切絵図)·우키요에 산책
경제와 생활	마케팅입문/팔리지 않는 시대에 팔리는 방법을 배우다/「지적재산」이 뭘까? 등
사회와 인간	〈나〉와 〈타인〉과 자유~사르트르 『존재와 무』제3부를 중심으로/하이데거 『휴머니즘에 대해서』를 원서(독일어)로 읽다 등
역사	일본 신사와 불가사의한 신들(신사의 시원편)/서양미술사특론
문학	바쇼와 『오쿠노호소미치』의 여행/역사극 『헨리8세』 등
세계로 이어지는 말	온라인으로 배우는 중국어강좌 중급/프랑스어 초급편/스페인어기초/에세이로 보는 독일의 「현재」/교양으로서의 언어학 등

○ 도쿄도립대학 프리미엄 칼리지(東京都立大学プレミアム・カレッジ)

- 오픈 유니버시티와 마찬가지로, 도쿄도립대학 평생학습추진센터에서 운영
-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50세 이상이 대상. 종합대학인 도쿄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교육연구자원과 도쿄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의 교류장을 제공
- 선발방법은 소논문 및 면접. 수강료는 연액 20만엔 (입학금은 없음)
- 「수도·도쿄를 필드로 하여 배우다」를 테마로 한 폭넓고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음
- 교육을 통하여 도립대생과의 교류도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이수 증명 수여함
- 「수도·도쿄를 필드로 하여 배우다」를 테마로 한 폭넓고 독자적인 커리큘럼 보유

- 교육을 통하여 도립대생과의 교류도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이수증명 수여

〈표 III-6〉 도쿄도립대학 프리미엄 칼리지 개설과목

구분		과목
필수과목		• 정보 리터러시 기초 /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연구논리와 리터러시~ / 전기 세미나/후기 세미나
선택과목	프로그램 과목군	• 테마 ① 에도·도쿄의 「역사」에서 배우다(예 : 에도·도쿄 도시 조성 이야기 / 일본의 고건축 견해/도쿄 지리 입문 등) • 테마 ② 수도·도쿄를 교재로 「도시」를 배우다(예 : 도시를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인프라 / 다마 뉴타운 이야기 등) • 테마 ③ 도쿄의 「도시과제」에서 배우다(예 : 사회학에서 본 도시 빈곤 문제 / 도정(都政) 과제 (필드 워크 등)
	교양 과목군	• 테마 ① 도시·사회·환경(예 : 자원봉사 이론과 실천/도시커뮤니티론/지역환경학 등) • 테마 ② 문화·언어·예술·역사(예 : 근대일본미술사/에도부터 근대로의 일본미술 흐름/외국어로서의 일본어 등) • 테마 ③ 생명·인간·건축(예 : 식생활과 건강/생활 심리학/생활기능장애훈련 등) • 테마 ④ 과학·기술·경제·사업(예 : 우주의 수수께끼에 접근하다/직립이족보행의 인류 확산사 등)
애디셔널 (additional)과목군		• 컴퓨터기술 / 도쿄농업의 현재와 미래/재패니즘과 미술품의 무역/글로벌사회에서 살기 위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3. 직업역량 강화 기반 대학 연계 평생교육

가. 일본 도쿄도 호세이 대학(法政大学, 사립) 평생교육·리커런트 교육

- 호세이대학은 대학 통신 교육과정으로서 일본에서 최초로 개설된 통신교육부, 자신이 적합한 시간에 이수할 수 있는 주야 개강 대학원, 실무가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 전문직 대학원, 이수 증명프로그램 등,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음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춘 새로운 리커런트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 거점 「리커런트 교육 오피스」를 설치함(2021년 4월)

- 호세이 대학 리커런트 교육 오피스에서는 공개 강좌, 이수증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표 Ⅲ-7〉 도쿄도 호세이 대학(法政大学, 사립) 평생교육·리커런트 교육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이수 증명 프로그램 「건강과 스포츠」	• 스포츠를 과학적·문화적으로 접근해 고도의 스포츠 문화를 이끌 인재를 육성. 스포츠 과학, 건강과학에 관한 지식·정보를 사회에 환원해 가는 프로그램. • 등록금 : 10,000엔 / 수강료 : 98,000엔
대학원 공공정책 연구과 SDGs Plus 이수 증명 프로그램	• SDGs 기초부터 관련 테마를 폭넓게 배우고, 실무에 활용하는 프로그램. • 등록금 : 10,000엔 / 수강료 : 112,000엔
대학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연구과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강좌 이수 증명 프로그램	• 의료 종사자 및 간호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경영자를 대상. 조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각도로 배울 수 있음. • 등록금 : 10,000엔 (해당 연구과 수료생은 면제) / 수강료 : 225,000엔 (해당 연구과 수료생은 112,500엔)
대학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연구과 매니저를 위한 MBA 강좌 이수 증명 프로그램	• 직장인 대상. 수강생은 종합경영, 마케팅, 경영전략 과목군에서 최대 4과목 수강 가능. • 등록금 : 10,000엔 (해당 연구과 수료생은 면제) / 수강료 : 225,000엔 (해당 연구과 수료생은 112,500엔)
대학원 정보과학연구과 정보과학·데이터 사이언스·AI 이수 증명 프로그램	•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과학·데이터 사이언스·AI에 특화된 이수증명 프로그램. 사회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이나 야간 수업도 많이 제공하고 있음. • 등록금 : 10,000엔 / 수강료 : 175,000엔
통신교육부 디지털 시대의 「지도력」 스킬 업 이수 증명 프로그램	• 문학부 지리학과에서 설치한 지리와 지도에 관한 과목을 중심으로, 지도학과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기초 지식, 디지털 지도 구조 등을 배울 수 있음. • 등록금 (1년간) : 30,000엔 / 수강료 : 과목에 따라 차이 있음

출처 : 法政大学, リカレント教育・生涯学習

○ 호세이대학에서는 목적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리커런트 교육 오피스가 주최하는 공개 강좌·세미나는 교육·연구 성과를 폭넓게 사회에 소개하고, 공개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수강료는 무료임. 테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행된 강좌는 일정 기간 동안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음

〈표 III-8〉 도쿄도 호세이 대학의 평생교육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 개요

구분	평생교육 대상별			
	흥미 있는 내용만 배우고 싶은 사람	흥미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	학위 취득하고 싶은 사람	직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과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
교육 프로그램	공개 강좌·세미나	이수증명 프로그램	• 통신 교육부 • 대학원【주야·야간 개강】, 학부【주야 개강】 • 전문직 대학원	전문직 대학원
교육 제도	과목 등 이수생【대학원·학부】【통신 교육부】		• 사회인 입시【대학원】【학부】 • 장기이수제도【대학원】	• 연수생·위탁연수생·연구생·연구원【대학원】 • 국가·민간자격 취득【대학원】【학부】

출처 : 法政大学, リカレント教育・生涯学習

나. 일본 교토부 교토 대학(京都大学) 리커런트 교육(평생교육 등)

- 교토 대학에서는 사회에 열린 고등교육기관을 목표로, 사회인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교토대학의 학과 및 부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각종 비정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수증서 발급 프로그램 등이 있음

〈표 Ⅲ-9〉 교토대학의 비정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주체	프로그램명
의학 연구과	- 발달 증후군 개입을 통한 국민 건강 과제 해결 - 사회변혁형 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프로그램
농학연구과	농업과 농학의 최전선 -차세대 농업 마이스터 육성 프로그램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 연구과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 이수증명 프로그램
경영관리연구부(경영관리대학원)	-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 육성 프로젝트 - 상급 경영회계 전문(EMBA) 프로그램 - 교토대학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양성 강좌 - 교토 크리에이티브 아상블라주 - 여성 경영진 리더 육성 프로그램
학제융합교육연구추진센터	교토대학 사학경영 아카데미 (문부과학성 직업 실천력 육성 프로그램(BP) 인정
의학부 부속 병원	- 실천적인 의료 경영 프로페셔널 교육 사업 - 과제 해결형 고도의료인재 양성 프로그램

출처 : 京都大学, 社会人向け教育_リカレント教育 (生涯教育等)

4. 평생교육 기반 지자체 활성화

가. 일본의 히로시마 팔레트

○ 추진 경과 및 법적 근거

- 1971년 히로시마 현 장기종합계획을 시작으로 1973년에 「현립 사회교육센터건설 조사검토 위원회」 설치
- 1982년 4월 히로시마 현 교육위원회 교육과 내에 「히로시마 현립 사회교육센터 개설 준비 실」을 설치, 「히로시마 현립 사회교육센터 설치조례」 제정
- 1982년 10월에 히로시마 현 사회교육 센터를 개소. 1989년의 「히로시마 현립 사회교육센터 설치조례」 개정으로 「히로시마 현립 평생학습센터」로 사용
- 평생학습의 추진주체로서, '지역의 실태나 주민 요구에 입각한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이

나 지역에 뿌리를 둔 활동단체와의 협동이 가능한, 기초자치단체'로 설정

○ 운영 방침과 주요 기능

- 비전 「활력 있는 사람 만들기과 사람을 살리는 사회 만들기」
- 목표: 「평생학습진흥·사회교육에 관해서 의지할 수 있고 기동력 있는 싱크탱크」
- 주요 기능: 조사 연구, 학습정보 제공, 평생학습 지도자 양성 및 연수, 지역사회 문제해결 시범사업, 단체 협력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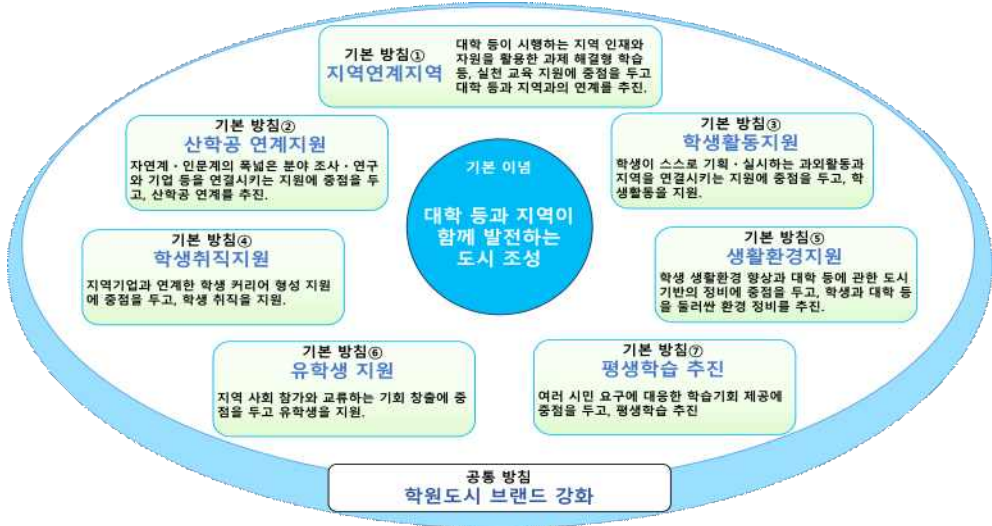
〈표 Ⅲ-10〉 일본 히로시마 팔레트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프로그램명
조사 연구	• 고등교육기관 관계자 및 시정 직원 등과의 연계 및 협동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방안의 조사연구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재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개발 • 코로나19 사태 이후 Zoom을 활용한 연수사업 실시와 이에 대한 조사 연구
학습정보 제공	• 웹사이트 운영 및 매월 1회 메일 매거진을 통한 평생학습 및 사회교육 정보 제공 • 공민관 등의 사업사례집 작성 및 다양한 연수용 자료·교재 개발
평생학습 지도자 양성 및 연수	• 시정촌 담당직원 및 공민관 직원 대상 재직연수 및 직종별 연수 • 다양한 연수 제도 기획·운영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연수 등
현대적 과제 및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 히로시마판 「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지역 만들기」(히로 프로) 지원 사업 • 부모의 성장을 응원하는 「참가형 학습프로그램(부모 프로)」 활용 • 대학생 자원봉사팀을 통한 방과 후 학교 및 지역미래학원 활동
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협동	• 사회교육 관련단체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 일본평생교육학회와 공동개최로 평생학습 연구실천교류회 개최

나. 일본 도쿄도 하치오지시(八王子市) 학원도시 하치오지(学園都市八王子)

- 하치오지시는 21개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가 있는 전국에서도 얼마 안 되는 학원도시. 지역활성화를 살리고, 대학 등과의 연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4월 「하치오지 학원도시 비전」을 책정. ‘대학 컨소시엄 하치오지’가 중심이 되어, 시민, 대학 등, (공재) 하치오지시 학원도시 문화 접하기 재단과 상호로 연계·협력하면서 추진

- 기본 이념은 「대학 등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 조성」이며 ‘통째로 캠퍼스 하치오지~가 캐치프레이즈



[그림 Ⅲ-2] 하치오지시 학원도시 비전 전체상

출처 : 八王子市役所, , 하치오지시 학원도시 비전(はちおうじ学園都市ビジョン) 중 작성자 일부 편집.

- 기본 방침은 총 7개(지역연계지원·산학공연계지원·학생활동지원·학생 취직 지원·생활환경 지원·유학생지원·평생학습지원), 지역연계지원, 평생학습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1〉 하치오지시 평생학습지원 내용

구분	내용
〈기본 방침 1〉 지역연계지원	〈시책 방향성〉 - 대학 등이 지역에서 임하는 실천적인 교육 지원 (방안 예) - 지역 과제해결에 임하는 교육 (과제해결형 학습) 지원 - 산업과의 연계로 인해 전문 인재 육성 - 대학 컨소시엄 하치오지 「학생발표회」내실화 - 코디네이트 기능 내실화와 지역과제 공유 - 교직원의 과제해결형 학습에 대한 이해향상 지원 (방안 예) - 대학 컨소시엄 하치오지에서 교직원 연수 실시

11) 은행나무 학원(いちょう塾) : 대학 컨소시엄 하치오지 가맹교 등에서 여러 가지 과목 제공을 받아, 원칙 18세 이상 (공개강좌

구분	내용
〈기본 시책 7〉 평생학습 추진	〈시책 방향성〉 【구체적인 시책】 1. 대학 등의 특색을 활용한 전문적 학습 기회 제공 (방안 예) ① 「하치오지학원도시대학(은행나무 학원¹¹)」내실화 ② 대학 등이 실시하는 시민공개강좌개최 지원 ③ 「배움의 연속성」을 의식한 초중고대 연계 방안 추진 ④ 하치오지 학생 CM 콘테스트 2. 사회인 등 재교육장 제공 (방안 예) ① 고령자와 여성이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힘을 습득하는 강좌 내실화 ② 사회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학습장 제공 3. 지역을 이해하는 학습 추진 (방안 예) ① 대학 등 도서관에서 하치오지에 관련한 정보 제공 확충 ② 하치오지에 관련한 제공 강좌 내실화 4. 대학 등 시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추진 (방안 예) ① 대학 등 도서관과 운동시설을 시민에게 개방 확대 ② 대학 등에 의한 스포츠 교실 확충

출처 : 八王子市役所, はちおうじ学園都市ビジョン

다. 대학 도시 교토시 「학생 도시 교토 추진 계획(大学のまち京都・学生のまち京都推進計画 2019-2023)」

- 교토시의 특성: 38개의 대학·단기대학이 있고, 인구 10% 이상(약 15만명)이 대학생
- 2004년부터 공익재단법인 대학 컨소시엄 교토와 교토시가 협동하여, 「대학 도시 교토·학생 도시 교토추진계획」을 책정. 대학·산업계·지역이 일체가 되어, 대학·학생의 집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 비전은 ‘세계가 자랑하는 「대학 도시」「학생 도시」로 계속 있기 위해~All 교토에서 다음 사회를 이끌 인재를 육성~’

제외)이고 학습 의욕이 있는 누구나가 배울 수 있는 시민 대학.

- 6가지 테마 중 대학 연계,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2〉 교토시 대학연계 교육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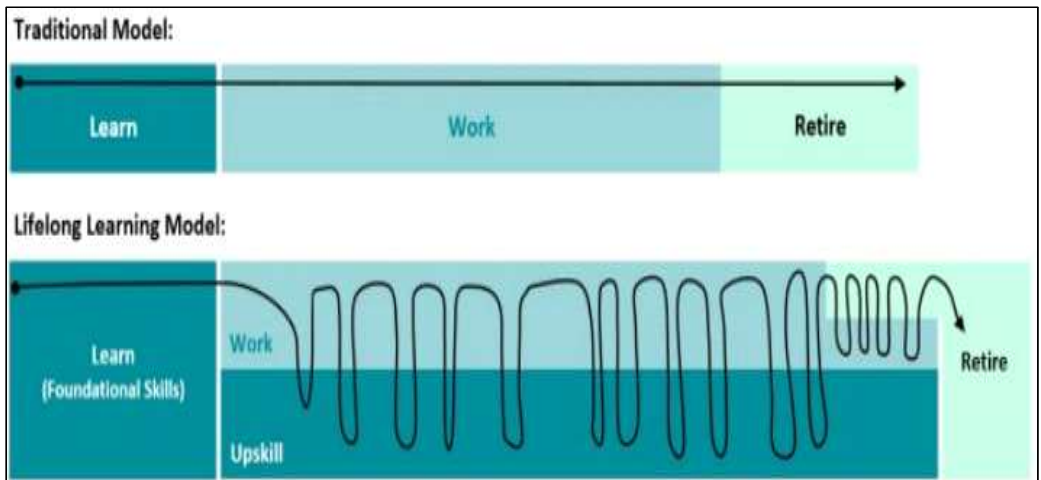
구분	시책 내용
교토에서 배우는 매력 향상	(1)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알찬 교육 ① 새로운 단위호환과목 개설 : 「문화 예술도시 교토」의 이점을 살린, 교토를 대표한, 학생 관심이 높은 시설(예 : 교토철도박물관이나 교토국제만화 뮤지엄 등)의 PBL 과목 개설. ② 단위호환제도 관련, 글로벌 과목 개설 ③ 새로운 e러닝 구조 연구 ④ 대학 간 연계 방안을 활용한, 교원면허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의 이수 지원
대학 틀을 넘은 학생 활동 추진	(1) 학생이 지역 구성에 관한 기회 내실화 ① 학생과 지역 연계 강화 : 지역활성화와 과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지역이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학생·지역 연계창조·지원 사업」과 지역 구민과 학생 단체 드이 실시하는 주체적인 도시 조성 활동을 지원하는 「구민 제안·함께 맘을 리는 도시 조성 지원 사업」,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 학생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교토에서 전하는 정책연구교류대회」를 계속해서 추진. (2) 대학 졸업 후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 내실화 ① 인턴십 사업 내실화 ② 다양한 삶의 방식·배움을 생각하는 기회 창출 ③ 고교생·대학생·사회 연계 커리어 교육 기획 내실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토의 경제·문화·지역 활성화	(1)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평생학습 추진 ① 리커런트 교육 실시·내실화 ② 미야코(京) 컬리지에서의 교양강좌 내실화 : 미야코(京) 컬리지에서는 약 40곳의 대학 등이 특색 있는 수업 과목과 공개강좌를 시민에게 제공 ③ 공개강좌나 대학 시설 정보 발신 (2)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 추진 ① 대학과 지역 연계 강화 : 「학생·도시 연계 대학(学まち連携大学)」 실시. 「학생·도시 연계 대학」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시민활동단체·지역기업·상가 등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② 대학과 지역 연계 사례 발신 ③ 학생의 힘을 활용한 주민 자치 활성화

출처 : 京都市役所, 大学のまち京都・学生のまち京都推進計画2019-2023

제3절. 캐나다(온타리오 주)

1. 전 연령, 전 생애에 제공되는 평생교육으로의 개념 변화

- 지난 50년간 캐나다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71년 72.67세에서 2012년 82.66세로 14% 이상 증가했음. 또한 수명 연장과 새로운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인력을 “리스킬링(reskilling)”하고 “업스킬링(upskilling)”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됨(University of Toronto, 2001)



[그림 III-3] The Lifelong Learning Model

* 출처: University of Toronto(2001)

- 2016년 캘리포니아 어바인 캠퍼스 학장 게리 맷킨은 “60년 커리큘럼(the 60-year curricul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이 60년 이상의 직장 생활 동안 필요로 하는 공식적인 Higher educational experience로 평생교육을 정의함(University of Toronto, 2001)
- 캐나다 교육 기술회사 D2L은 노동력에서 성인 학습자를 목표 부문으로 영점을 두었고,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수준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함(Desire2Learn, 2020)

2. 문해교육, 직업교육을 망라한 종합적 평생교육 지원

- 온타리오 주의 성인 학습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수학능력, 영어 또는 프랑스어의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장 및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강좌를 제공
- 2023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 전문성을 활용하고 근로자에게 접근하기 쉽고 유연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노조 교육실을 포함한 교육 센터 확대를 위해 2023/2024학년도 기술 개발 기금(Skills Development Fund)에 새로운 자본 투입으로 2억 2,400만 달러 제공할 계획이라 발표

〈표 III-13〉 온타리오주 성인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읽고 쓰는 능력과 컴퓨터, 수학 등 기본기술의 학습	• 대학에서는 “학업 업그레이드” 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 제공되며 무료로 운영됨
고등학교 졸업장	• 온타리오 중등학교 졸업장(OSSD:)을 위해 고등학교 학점을 취득 하거나 중등 이후 교육 또는 견습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 학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 교육 개발 증명서	•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GED시험을 치러야 하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 GED는 정식 중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증서
학문 경력 입학(Academic Carrer Entrance)	• 온타리오 주 대학 프로그램 입학 요건이나 온타리오 주 견습생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2 언어로서의 영어 및 프랑스어 교육	• 이민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실력 향상 프로그램 • 언어 평가 센터(CLARS: Coordinated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System Center)에서 언어능력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정해 짐
온타리오 브리지 교육 프로그램	•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연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대학 및 공립 대학, 직업 규제 기관, 지역사회 기관, 고용주 단체, 영리단체 등이 참여 • Ontario Bridging Participant Assistance Program(OBPAP)은 훈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돕는 장학금이며, Ontario Student Assistance

프로그램	내용
	Program(OSAP)은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도록 돕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용 가능

출처: 온타리오 주 홈페이지(<https://www.ontario.ca/page/ministry-colleges-universities>) 요약 정리

3. 온타리오 주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제

가. 온타리오 교육연구소(OISE)의 교육자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학습

-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and Professional Learning, CPL) 부서를 통해 학습자가 전문적인 맥락에서 교육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능하게 하는 비학점 서비스를 개발함.
- 주요 교육 분야 : PreK-12교육, 고등교육, 직장 학습 및 인적 서비스
- 주 학습자 : 교육자 및 교육 관리자 또는 인적 서비스 전문가(예: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 건강 및 웰빙 전문가 등)
- 교육방법 및 비용
 - 한 시간 단위 웨비나는 무료 또는 25달러
 - 90분 단위 블록으로 구성된 워크숍은 1개 단위 워크숍의 경우 99달러, 4개 단위 워크숍의 경우 299달러 사이
 - 인텐시브(Intensive) 과정은 1, 2, 4주 사이로 진행

나. Rotman School of Management (RSM)

- EP(Executive Programs) 부서를 통해 광범위한 비학점 평생교육을 제공
 - RSM EP는 주로 다양한 기업, 비영리 및 기관 분야에 걸쳐 임원 및 관리자 수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
 - RSM EP는 3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년 1일에서 15일 사이의 기간에 걸쳐 1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

- 평균 수업료는 \$1,000-\$2,000이며, RSM EP는 매년 평균 약 2,600명이 참가
- 프로그램 이수 인증서와 디지털 배지 제공
 -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습자는 인쇄된 인증서나 PDF 인증서를 받게 됨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내 데이터베이스 추적 시스템 구축
 - 학습자는 LinkedIn에서 이수 상태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

다. Temerty Faculty of Medicine (TFM)

- Termerty 의학부의 평생학습은 의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에 있음
- TFM의 15개 임상부서를 아우르며, 이에 따라 CPD에서 개별 컨퍼런스 행사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디렉터와 컨퍼런스 주관자가 400명이 넘으며, 이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6개의 CPD office service 팀을 조직
- 프로그램 비용은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강도(예: 시뮬레이션 기반), 인증 크레딧 유지 유형에 따라 25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며, 직접 방문 프로그래밍을 위한 평균 비용은 하루 250~350달러 정도

라.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s)

- 캐나다 인구의 재교육 및 기술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관과 다른 훈련기관들의 대응 전략으로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s)"이라는 개념을 논의하기 시작
- 마이크로 자격증에 대해 2021년 온타리오 대학의 정의는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다음과 같이 수여되는 학습의 표현으로, 별개의 능력(예: 기술, 지식,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때때로 다른 자격증과 관련된 짧은 프로그램의 "이수"로 명시(Higher Education Strategy Associates & The Strategic Council, 2020)
- 마이크로 자격증의 3가지 주요 목적으로 신속한 재교육 지원, 중등 과정 후 교육 강화 및 고등 교육에 대한 대체 접근 제공, 인력의 인재 유치·참여·유지에 있음

- 2020년부터 온타리오 주 정부는 약 6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21년에는 온타리오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 600여 개의 마이크로 자격증 과정이 포함
 - 토론토 대학의 인증된 마이크로 자격증은 55개이며, 이 과정은 대출 또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됨
- 마이크로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학습자를 대학으로 유입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시스템 구축

마. 온타리오 공과대학 설립 및 운영

- 2020년 2월에 대학의 영리 자회사로서 온타리오 공과대학(Ontario Tech)을 시작한다고 발표 (Ontario Tech University, 2020)
- 이 새로운 법인은 학생들과 신입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 준비와 숙련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계획을 전달하는 운영 수단의 역할을 담당
- 업계 근로자 또는 졸업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증명과 마이크로 인증 시스템을 구상
- 산업계 파트너들이 모듈을 자격 부여하고 교육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며, 온라인 프로그램의 이점을 활용하거나 온타리오 공과대학에서 교육받을 직원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법인을 시작하기 위해 온타리오 공과대학은 50만 달러를 투자

바.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창 스쿨(Chang School) 평생교육 프로그램

-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평생학습학부로서 84개의 자격증 프로그램과 1,300개가 넘는 과정, 그리고 매년 70,000명이 넘게 등록함
- 창 스쿨은 라이어슨 대학의 학과들과의 통합 문화를 이루고 있음
- 대부분의 계속 교육 자격증들은 학업 학점을 위해 학교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같은 과정을 학업 학과와 창 학교에서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 라이어슨의 Continuing education의 교육의 질을 높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짧은 기간 자격증의 결합 가능

- 학생들은 자격증 과정에서 파트타임 학위로의 전환이 용이 하며, 반대로 라이어슨 대학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학생이 졸업 시 학위와 자격증을 가질 수 있음
- 창 학교 과정의 강사는 학업 자격 외에 산업계 경험을 주로 가진 계약 강사의 참여가 많음
- "협력 모델(Collaborative model)"을 사용하여 창 학교와 라이어슨 교수진 사이의 파트너십을 설명하고, 학업 코디네이터가 교수진과 협의하여 Continuing education의 질을 교수진이 고유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35개의 온라인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그 이후로 대부분 프로그램을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음. 2020년 가을 학기 동안 학교의 등록금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성인 학습 수요 증가도 증가함
- 창 학교 학생 다섯 명 중 네 명은 이미 중등 과정 이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증가하는 수요와 새로운 기회에 대응함
- Program 50+ 전환 기초교육 프로그램 (Transition Foundation Program)을 개설하여 고등 교육 진입을 지원함
 - 고등학교의 학업성과가 좋지 못하거나, 오래 전에 고등교육을 이수해 고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부족한 시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고등교육에 익숙치 못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료 지원과 함께 다각도의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함
 - 수업료 지원: 성과기반(성적 및 사회필요분야)과 수요기반(재정적 필요+최소학점 이수)으로 나누어 수업료 무료화
 - 프로그램 지원: 언어(영어)에 대한 학습지원, 튜토링 지원
 - 입문형 교육과정 온라인 제공: 학습 및 개발전략, 사회계급과 불평등, → 추후 평생교육과정 및 타 고등교육기관 지원시 학점 인정

제4절. 유럽 국가

1. EU 연합 단기 학위과정 기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EU에서는 에라스무스 +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SLP(EShort Learning Programmes)을 대학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 기초부터 박사수준까지 유럽자격인증 프레임워크(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에서 레벨 4(기초수준)~레벨 8(박사 수준)까지 제공
 - 전문성의 지속적 발달과 평생학습을 위해서 학점단위, 모듈이나 블록형 구성으로 학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 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 목표
 - 고등교육 시스템의 일부로서 단기 학습 프로그램(SLP)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과 개인 개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개발
 -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관, 정부 및 EU 정책과 평생교육 전략을 향한 변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SLP를 대학 제공의 특정 분야로 주류화하고, 학위 교육과 개방형 교육에 확장
- 참여기관
 - 네덜란드 EADTU, 오픈유니버시티, 그리스 오픈유니버시티, 영국 오픈유니버시티, 스페인 원격교육대학, 벨기에 KU Leuven, 리투아니아 원격대학, 핀란드 University of Jyväskylä 등
- 커리큘럼 영역
 - 농산림업, 예술인문, 경영 및 법학, 교육, 공학 및 제조, 건설, 건강·보건, 서비스업, 사회과학 및 미디어, IT, 자연과학 및 수리·통계, 일반자격증 과정

2. 컨소시엄 기반 평생학습 운영

가. 런던 평생학습 컨소시엄(London Learning Consortium)

- 2005년 설립된 런던과 남동부 지역의 지역사회와 비즈니스를 위한 평생교육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CIC: LONDON LEARNING CONSORTIUM COMMUNITY INTEREST COMPANY)으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기술훈련기관, 지역공공기관을 연결하거나, 직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학교밖 청소년, 취업준비, 성인교육과정, 보건 및 복지필수 교육, 직업훈련, 직원교육 등)
- CIC의 비전과 미션
 - (비전) 학습을 통해 모든 사람의 번영 향상(Improving prosperity for all through learning)
 - (미션) 최고의 기회 함께 제공(To deliver the best opportunities together)
- 크라이던, 토튼햄, 바터시, 샤드웰 지역에 지역 허브를 두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
- 수업료에 대한 정부 지원 종류
 - 19세 이상을 위한 심화학습 대출(Advanced Learning Loan)
 - 19세 이상을 위한 재량 학습자 지원 기금(DLS: Discretionary Learner Support Fund)
 - 19세 이상을 위한 교실 기반 과정(Classroom Based Courses) 지원
 - 16세 이상을 위한 수습생 지원
 - 16~24세(또는 교육, 건강 및 케어 플랜 -EHCP를 통해 최대 25세)를 위한 연수생 지원
 - 16~24세(또는 교육, 건강 및 케어 플랜 -EHCP를 통해 최대 25세)를 위한 재량 보조금
- 교육 프로그램
 - ①일과 삶을 위한 기술, ②비즈니스 지원 및 고객 서비스, ③리더십 및 관리, ④ 교육과 육아, ⑤요양사, ⑥건강과 사회복지, ⑦창고, 물류 및 건설, ⑧주택, ⑨건강과 웰빙

- 입문, 레벨1, 레벨2, 레벨3 등으로 이수자격증 제공

나. 파리권(il' de France) 계속교육학교 (EAFC, École Académique de la Formation Continue)

- EAFC는 프랑스의 성인대상 직업기술향상 및 재교육, 심리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의 소프트 스킬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산하 공립기관으로서 프랑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운영
- 프랑스 내 다양한 교육기관, 대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아울러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가, 교육 코디네이터, 등 교육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
- 주요 프로그램: 학제간(기본) 코스(심리기술, 사회적 문제, 인지기능, 의사소통영역), 기본-심화 과정, 슈퍼비전 코스
 - 학제간 과정: 심리사회적 기술, 윤리 및 실천 분야 사회문제, 인지 기능, 회화 및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
 - 기본-심화과정: 인문교양, 디지털 교육, 이주민 교육, 학습법, 학교장을 위한 연수과정, 지도자 연수과정, 지도자 자격인증 과정, 학교경영, 편견 및 혐오방지 교육, 응급구조 등
 - 슈퍼비전 코스: 관리자 및 경영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관리자 위기관리 대응 세미나
 - 실무적인 문제해결 중심으로 코스를 설계하고 현장과 연계하여 수강생들의 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예: 1급- 오후 6시 교육활동, 2급-지역주도 교육)
- 학생지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하며, 특히 실무에 참여하는 교육자, 경영자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수강생들이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맞춤형 학습상담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집단 워크숍 등의 현장 연계활동도 강화하고 있음.

3. 네트워크 기반의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문제 해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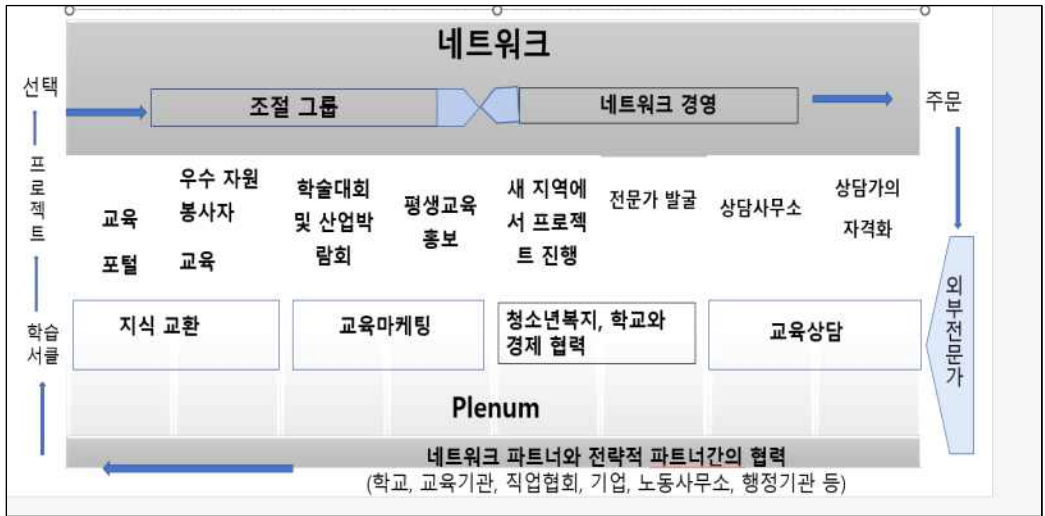
가. 영국의 Civic University Network

- 2020년부터 “협정서”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앵커 기관’으로서 “장소기반 참여(place based civic engagement)”를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우선 분야: 보건 복지, 교육력 강화, 환경 및 생물다양성, 예술 및 문화, 시민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 주요 프로그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기술 습득, 직업 재교육, 개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지역 기반 연구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
 - 공동 혁신 허브: 대학과 지역 비즈니스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
 -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공개 강연 등을 개최
- 주요 사례
 - 런던 대학교와 지역 스타트업 협력: 런던 대학교는 지역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맨체스터 대학교의 평생교육 센터: 맨체스터 대학교는 평생교육 센터를 운영하여 중장년층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과 직업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
 - 버밍엄 대학교의 지역 건강 프로젝트: 버밍엄 대학교는 지역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나. 독일의 지역간 학습협력 네트워크(Lernende Regionen - Förderung von Netzwerken) 구축사업

- 2001년 11월부터 연방정부 주도 하에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습하는 지역 만들기 사업 시작
- 지역 간 네트워크 구성
 - 독일 전역 73개 지역이 학습하는 지역 네트워크로 연결
 - 전략적 지역 개발 및 평생학습 참여 지원
 - 특정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의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프로젝트 목적
 - 미디어 교육과 혁신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성과 달성
 -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직업 능력과 삶의 질 향상
- 연구 컨소시엄 구성
 - 독일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뮌헨대학교 교육연구소 협력
 - Tippelt 교수 주도, 프로그램 효과와 성공 요인 분석
 - 지역 네트워크의 성공 사례 및 장애 요인 분석을 통한 지속적 개선
- 참여 주체
 - 공공 부문, 사회적 파트너, 회사, 금융 지원 제공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으로 진행되는 독일 내 가장 큰 네트워크 구축 사업
- 학습자 성과
 - 교육을 통한 개인의 요구 충족과 선택권 강화
 -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발전 가능성을 지원
 -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네트워크 사업 운영의 구조



[그림 III-4] 독일 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지역 만들기

4. 지자체-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가. 핀란드 에스푸 시-알토 대학 협력 사업

○ 취지

- 헬싱키 수도권에 위치한 에스푸(Espoo)시는 핀란드의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20.1%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임
- 핀란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20개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지자체-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결합한 협력 모델을 구축

○ 주요 특징

- 에스푸 시의 토지이용계획에 알토 대학의 캠퍼스 계획을 포함하고, 캠퍼스와 헬싱키를 잇는 신규 교통 인프라에 투자, 아울러 캠퍼스 주변에 도시계획을 집중하고 대학은 건물의 1층을 오픈 스페이스와 오픈 랩으로 전환

- “Alto Main Street: City as a Service”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산학 연계 활동을 일상활동과 생활 여건의 개선, 창조적 소비자 실험, 신기술의 시험과 적용, 경제적 기회 창출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협력적 혁신을 촉진
- 대학은 캠퍼스를 지역의 상급 중등학교와 공유하여 사회문제 기반 학습을 유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학습경험을 창출하도록 조성
- 핀란드의 Tekes(고용노동부 산하 기술혁신청)의 보조금, Soft Loan, Tekes Venture Capital 등의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

〈표 III-14〉 핀란드 알토대학 주요 프로그램 및 조직

구분	주요 내용
Startup Sauna	- 학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증진하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 학생들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에서 논의하고 실행에 옮김 - 학생 주도이며 경쟁을 통해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해 분야의 유능한 기업가들이 멘토링을 제공(썸머스쿨 운영) - 세계적인 스타트업 이벤트인 슬러시(Slush)의 탄생과 창업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킴
Aalto Ventures Programme (AVP)	- 학생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재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로 역할 - Aalto ES와 협동과정 운영, Startup Sauna와 이벤트 조직, Design Factory와 coursework 공동 운영 - 매년 2,400명의 Slush 자원봉사자들에게 고객 경험에 관한 훈련과 모든 Slush 팀 리더들에게 리더십 훈련 제공- 새로운 비즈니스에 필요한 영감, 역량, 네트워크를 알토대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모든 학생들은 석사 학위의 부전공으로 선택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음
Aalto Start-Up Center	- 1997년 설립 이후 알토대학 내의 핀란드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촉매로 스타트업이 상업적, 기술적,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 - 기업가정신, 고품질의 비즈니스 자문, 확장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현대적 시설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연구자, 학생, 기업 파트너, 시, 공공 및 민간 조직과 협력 - Aalto Start-Up Center 동문 기업의 대략 30%는 빠르게 성장하는 가젤 기업(Rovio, Futurice 등)임
Small Business Center	- 알토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분리된 학과로, 기업가정신을 증진하고 비즈니스의 창업, 발전, 확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교내 다른 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파트너 조직들이 최신 연구기반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약 35년 간 운영되었고 Mikkeli, Helsinki, Saint Peterburg(러시아), Tallinn(에스토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Design Factory	- 디자인사고 기반 다학제 교육혁신 플랫폼으로서 기술 융합형 제품 개발을 돕는 정규 교과 과정개설 - 40여개 과정이 운영 중, 과정 예시:

구분	주요 내용
	* PDP(차세대 제품 개발자들과의 혁신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외 산업 기업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후원하는 방식) * Altonaut(학제간 제품개발 관련 학사학위 부전공 신설, 프로젝트에서 학제간 팀워크와 문제 기반 학습 추구) * Rat Relay(Design Factory Global Network(DFGN)가 주관하는 3일간의 디자인사고 해커톤 - 알토대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산업계와 강력한 연결이 특징으로, 다양한 학문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외부로부터 펀딩 받은 디자인 과제를 해결하며 창의적 현장교육 실행 - 에어버스, 아우디 등 글로벌 기업과의 외부 협업이 이루어지며 알토대학 주관의 DFGN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 연결됨
Aalto University Innovation Services	- Espoo와 Helsinki의 캠퍼스에 위치하며 상업적으로 잠재력 있는 연구 결과와 발명을 선별하고 특허, 라이선스, 스타트업으로 전환 지원 - 알토대학의 연구자들과 법률 고문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됨
Aalto University Executive Education Ltd	-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영 교육 및 리더십 개발 조직 - 기업가정신, 디자인, 혁신, 연구, 개발과 같은 대학의 강점을 토대로 함 - 배당금, 수업료, 임대료 등 대학 커뮤니티의 주요 소득원 제공
Impact Iglu	-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기업가들을 지원 - ‘fireside chats with entrepreneurs’, ‘impact business hackathons’, 기업가와 스타트업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조직
Urban Mill	- Aalto Design Factory와 Startup Sauna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했으며, 교내에서 두 플랫폼공간의 옆에 위치 - 주제에 있어 차별성을 가짐: 도시 환경, 도시 생활 및 서비스를 모아서 유비쿼터스 ICT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 연구자, 혁신가, 사용자, 자치단체 공무원, 기업 대표, 기업가, 교사, 학생, 동문, 시민 참여 - 알토대학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민간 회사와 에스푸시에 의해 운영되는 PPP(Public-people-private)파트너십 - 도시혁신을 위한 코워킹, 공동창출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고, 인간 주도 및 혁신적인 건조 환경, 협력적으로 개발된 다중 운영자를 위한 중립적 플랫폼 지향 - 건조 환경, ICT, 도시 서비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연구 및 혁신 행위자를 한데 모음 - 만남 및 협업 공간 제공, 다른 허브와 플랫폼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커뮤니티이자 서비스 제공 - 기존/새로운 분야에 모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주도의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목표로 하며 웰빙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조인트 벤처, 식품 생태계, 유기농 식품 생산, 스마트 네트워크 공간을 설립 -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은 다학제 코스를 통해 활동에 연결되며 모든 활동은 개방되어 있어서 상호학습을 촉진

출처: (서연미 외, 2023: 129)에서 발췌하여 정리

나. 스웨덴 Uppsala University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 개요

- 스웨덴의 “Uppsala University(주도:사회과학부 +보건부)와 지자체(지역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장년층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대학연계 프로그램은 큰 틀에서는 EU의 CIVEX¹²⁾와 협력하고 스웨덴 옉살라 대학이 주도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

○ 활동 방법

- 워크숍/세미나
- 멘토링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장년층이 대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됨. 이를 통해 중장년층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학습의 기회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중장년층이 지역 사회의 특정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건강 관련 조사 활동, 복지서비스 조사 활동 등)

- 평생학습 성과 목표: 5년 내에 등록생의 5%가 취업을 하고, 전문가 연수 및 평생학습을 위한 과목의 개설이 학부 교육의 5%에 해당하도록 하며, 평생학습과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연간 2,500만~3,000만 SEK를 확보

12)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및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여 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함(<https://cor.europa.eu/en/our-work/commissions/Pages/civex.aspx>)

5. 평생교육 접근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가. 헬싱키 ILMONET(<https://ilmonet.fi/>)

- 핀란드 수도권(헬싱키, 에스포, 반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기구)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 코스 및 안내시 장소, 주제, 사용언어, 개설기간, 강의유형, 타겟층을 세분화하여 검색할 수 있고 등록 가능

〈표 III-15〉 핀란드 수도권 헬싱키의 ILMONET 플랫폼 정보제공 카테고리

구분	주요 내용
장소	- 에스포 아르비스, 옴니아, 헬싱키 성인교육센터 등, 지역별 제공 기관별로 수강장소 안내
주제	- 대주제는 총 10개로 분류하고, 하위 단계를 세분화함 · 시민, 사회, 문화 · 언어(외국어) · 문학, 드라마와 모국어 · 주택 및 정원 가꾸기 · 요리 및 가사 · 미술 · 수공예 · 체육, 보건 · 자연, 기술, 운송 · 음악 · 미디어와 IT
사용언어	- 핀란드, 스웨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 및 다양한 언어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검색하여 수강 가능
강의시간	- 개강 및 종강시간과 개설요일별을 검색가능
유형	- 개설된 강의를 대면/비대면/혼합과 같은 방법적 유형뿐만 아니라 음악회, 강독회와 같은 이벤트, 특강도 제시하여 홍보 - 오픈유니버시티, 학점제공 코스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타겟층	- 청소년, 가족단위, 이민자, 노년층, 장애인 대상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검색 및 등록안내

나. 스웨덴 Learning for Professional

○ 개요

- "Learning for Professionals" (<https://learning4professionals.se/>) 플랫폼 운영
- 플랫폼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자료와 강좌를 제공

○ 주요 목적

- 직업 전문성 향상: 직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최신 업계 동향에 대해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와 자료를 제공
- 평생교육: 경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을 장려
- 교육 접근성 향상: 전문가들이 학습자의 속도에 맞춰 수강할 수 있는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강좌 제공. 직장 경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좌, 웨비나 및 학습 모듈을 제공

○ 스웨덴 주요 대학들이 한 플랫폼에 참여하여 다양한 강좌를 제공: 멜라르달렌, 둠레브로, 린네우스, 유니버시티 웨스트, 스코브데, 블레킹 공과대학, 미드스웨덴, 룰레오 공과대학, 옌셰핑, 카롤린스카, 할름스타드, 스웨덴 농업과학, 칼스타드, 찰머스 공과대학, 룬드, 우메오, 옅살라, KTH 왕립공대, 린셰핑, 리딤 기후전환 컨소시엄 등

○ 제공프로그램 안내: 과목명, 과목소개와 함께, 과목특징(속성, 심화, 인기강좌), 소요 주차를 등 록버튼과 함께 제시하여 접근성 강화

제5절.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1.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비전과 목표 설정

가. 메트로폴리탄 도시가 가지는 풍부한 인프라 기반의 평생교육 수요 포용

- 서울이 가지는 인구 다양성에 부합하는 전문성 및 연령 스펙트럼 구성 반영
 - 수도권 지역은 산업기반이 충분하여 고급 인력이 충분하고 정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 반영
 - 아울러 인구 집중화로 대학중도탈락자, 학교밖청소년, 경력단절여성, 해외 이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 역시 수용
- 지역과 대학이 가지는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 수요자 맞춤형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환류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유지
 - 미국 조지아 주의 경우 평생교육 요구의 다양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풍부함을 잘 매칭하여 계획 반영
 - 이를 사례를 토대로 서평원은 (1) 기초소양과 직업전문성 제고를 아우르는 전문성 스펙트럼, (2) 선취업자 학위 취득 요구에서 노년기 복지형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연령 스펙트럼을 조직하여 대학의 특성과 매칭하는 역할 적극 수행

☑ 미국 조지아주: 지역 수요자 맞춤형 대학 평생교육

- 전생애적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평생교육의 영역을 지역의 2년제, 4년제 대학, 직업훈련기관들의 특성에 맞추어 매칭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교육기관과 학습자를 연결
- 조지아주 파트너십: 대학의 연구소, 커뮤니티 칼리지 등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

구분	주요 내용
연구기반 성과관리	• 조지아 성인교육과와 조지아 주립대학 성인 문해연구센터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

구분	주요 내용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컬리지 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대학 간 프로그램 연계 • 조지아 기술대학(TCSG, The technical college system)에는 기술 및 핵심 학업 교육을 제공하는 22개 단과대학이 협력 • 2023년 기준 TCSG 예산의 86%가 기술 직업교육에 할당. 나머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개인을 위한 성인교육 및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
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과의 연계	• 각 카운티, 조지아대학교, 조지아주 및 미국 농무부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통해 농업, 환경, 지역사회,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편견 없는 연구 기반 교육을 통해 조지아 시민에게 평생 학습을 확대 운영 • 농부, 재배자 및 조경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테스트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조지아주의 각 카운티 교육청을 통해 제공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 투자	• 조지아 직업, 기술 및 농업 교육 프로그램(CTAE) 기반 미래 기술 분야 및 조지아주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 • 조지아 CTAE 진로 과정과 새로운 조지아 미래 인력 교육 이니셔티브는 산업 및 고등교육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인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나. 국제도시로서 개방성과 혁신성 기반의 평생교육 활성화

- 아이디어혁신, 창업가정신 등, 수도권 성장도시의 특징에 맞는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 인프라 측면에서는 캠퍼스 조성계획과 도시계획을, 교육 콘텐츠 측면에서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여건과 역량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진흥 방향의 설정 필요

☑ 캐나다 앨버타 주

- 앨버타 주는 지역적으로나 해외에서 기술, 아이디어 및 혁신의 성장을 주도할 최고의 인재를 위한 선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유학생 커뮤니티 강화 추진
- 이를 위해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앨버타 주에 정착 지원,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
- 글로벌 투자 및 비즈니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멘토링을 통해 유학생 커뮤니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글로벌 성공에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핀란드 에스푸시 대학 평생교육 협력체제

- 캠퍼스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대학을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접근
- 다양한 자산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의 연구·교육기능, 특히 창업과 관련된 기능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Espoo Innovation Garden: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활동하는 혁신 허브로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를 통하여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

2. 서울형 LiFE사업과 HiVE 사업 고도화 발전

가. 서울형 LiFE사업 고도화 방향: “구독대학” 모형의 적용과 확산

- 비전통적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재개념화하고 구독형 대학교육으로 전환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혁신 가속화
 - 고등교육기관의 우수한 인프라와 학위·학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새로운 미래대학의 형태로서 “구독대학(Subscription University)” 기반의 대학평생교육 진흥계획 제시
 - 대도시에서 학습자의 취·창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직업재교육 활성화 추진
- 새로운 미래대학의 형태인 구독대학을 중심으로 서울형 LiFE사업의 고도화 추진시 서울의 대학들은 우수한 학사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등록금 수입 창출 가능
 - 구독대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를 내고 필요할 때마다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교육 형태를 의미
 - 대학 4년간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평생 직업을 가져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순간마다 재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
 - 구독대학의 개념은 기존 대학 수학 연령으로 여겨지는 18~22세 사이의 학생뿐만 아니라 교

육이 필요한 전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과 실제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정의

- 구독형 대학교육 기반의 평생교육체제 혁신에 서울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그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필요

☑ 구독형 대학 운영 사례

- 대학졸업시 전공의 유효성이 점점 크지 않게 됨에 따라 수시로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의 개념으로 대학을 평생교육에 활용

구분	주요 내용
미국 보이즈 주립대학의 Passport to Education	• 월 구독료 개념으로 목돈 지출의 부담을 낮추며 학비를 인상하지 않고 고정하여 등록 • 온라인 학습 위주로 응용과학 및 학제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성인 학습자 개인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 • 수업은 캡애드(CapEd)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통해 제공 • 온라인수업플랫폼을 활용하여 대학 4년 등록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등록금을 월 구독료의 형태로 지불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게끔 지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Open Loop University	• 대학졸업생의 4분의 1만이 대학전공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등교육이 개인의 인생 과정에 미치는 역할을 확대 • 단선적으로 4년에 학위과정을 마쳐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6년 기간 동안 등록하고 수강 • 학문을 토대로 중장년, 노년층이 직업을 전환 → 다시 학문과 사회적 맥락을 연결되도록 순환 구조 창출 • 다양한 연령대로 학생입학 통로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방 → 동문이 아닌 잠재적 복학생 개념으로 대학 구성원 지위 부여

나. 서울형 HiVE 사업 고도화 방향 : 전문대학 중심의 직업역량 교육 및 인증 모델 확산

- 전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영역이 초창기 문해교육 및 학력 소외 계층을 위한 기초소양 교육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직업훈련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체제 정비
- 직업훈련체제는 직업을 준비하는 단계, 신입단계, 중견 경력자 단계로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고, 특정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창 스쿨(Chang School) 평생교육 프로그램

-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평생학습학부로서 84개의 자격증 프로그램과 1,300개가 넘는 과정, 그리고 매년 70,000명이 넘게 등록
- 창 스쿨과 라이어슨 대학의 평생교육 간의 연합 협력 운영 체제 구축: "협력 모델"을 사용하여 창 학교와 라이어슨 교수진 사이의 파트너십을 설명하고, 학업 코디네이터가 교수진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교수진이 고유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35개의 온라인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그 이후로 대부분 프로그램을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 2020년 가을 학기 동안 학교의 등록금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성인 학습 수요 증가도 증가
- 창 학교 학생 다섯 명 중 네 명은 이미 중등 과정 이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증가하는 수요와 새로운 기회에 대응
- Program 50+ 전환 기초교육 프로그램(Transition Foundation Program)을 개설하여 고등학교 진입을 지원. 고등학교의 학업성도가 좋지 못하거나, 오래 전에 고등교육을 이수해 고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부족한 시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고등교육에 익숙치 못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료 지원과 함께 다각도의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 입문형 교육과정 온라인 제공: 학습 및 개발전략, 사회계급과 불평등, → 추후 평생교육과정 및 타 고등교육기관 지원시 학점 인정

☑ 싱가포르 Skill Future

- 모든 25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교육비 크레딧을 제공하여 자기 계발 및 직업 훈련을 지원
- IT, 디지털 분야, 조경, 첨단제조 분야 등 미래산업분야에 대한 우선 지원
- 신입-중견 등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수업료 지원 등 다각도의 학습자 지원

3.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 방향

가. 성인학습자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세분화

- 고령화 사회 및 평생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교육적 욕구는 증가하나,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에 대한 정보력, 학비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이 부족하여 접근 제한성 발생
- 성인들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돕는 성인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대학의 체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창 스쿨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업 능력 향상과 수업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히 고등교육 접근 기회에 제한적인 성인학습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 다만, 공적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성과를 관리하는 책무성 강화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만함
- 성과기반(성적 및 사회필요분야)과 수요기반(재정적 필요+최소학점 이수)으로 나누어 수업료 무료화

☑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창 스쿨의 Program 50+ 전환 기초교육 프로그램 (Transition Foundation Program)

- 고등학교의 학업성고가 좋지 못하거나, 오래 전에 고등교육을 이수해 고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부족한 시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고등교육에 익숙치 못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료 지원과 함께 다각도의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수업료 지원: 성과기반(성적 및 사회필요분야)과 수요기반(재정적 필요+최소학점 이수)으로 나누어 수업료 무료화
- 프로그램 지원: 언어(영어)에 대한 학습지원, 튜토링 지원
- 입문형 교육과정 온라인 제공: 학습 및 개발전략, 사회계급과 불평등, → 추후 평생교육과정 및 타 고등교육기관 지원시 학점 인정

- 일본 도쿄 독립대학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투트랙제, 즉 교양교과목 중심의 오픈 과정과 지역기반 테마형 커리큘럼 기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기할만함

☑ 일본 도쿄 독립대학의 투트랙 평생교육과정

- 일본 도쿄독립대학은 도민과 사회인의 학습요구에 따라서 접근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픈 유니버시티와 전문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리미엄 칼리지로 구분하여 제공
- 오픈유니버시티: 회원제로 운영하며 연령 등의 요건, 시험 등이 없음, 평일 주간, 야간, 토요일 등 다양한 교양교과목들을 개설하며, 졸업시 오픈유니버시티의 학위를 수여함
- 프리미엄칼리지: 소논문 및 면접으로 입학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50세 이상이 입학할 수 있음. “수도·도교를 필드로 하여 배우다”를 테마로 폭넓고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음

- 스웨덴 Learning for Professionals의 경우 현직에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

☑ 스웨덴 Learning for Professionals

-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취득하기도 하는 플랫폼으로서 최신 업계 동향에 대해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와 자료를 제공함
- 전문가들이 학습자의 속도에 맞춰 수강할 수 있는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강좌 제공. 직장 경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좌, 웨비나 및 학습 모듈을 제공

나. 단기 학위과정을 통한 평생교육 이수체제 구축

- 4년 학위과정 중심의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률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전환 속도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해외의 평생교육,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1~2년 단위의 단기 학위과정, 또는 세분화된 모듈형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여러 대학들을 넘나들며 누적하여 학위를 성립시키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음(유럽 에라스무스의 SLP(Short Learning Program) 참고)
- 단기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자격증, 마이크로 디그리 등을 기반으로 학위과정까지의 참여기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직업훈련분야에서의 수요와 연계되는 과정 운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 기반의 대학 비학위과정 확대, 이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대학의 수입원 창출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음(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운영 사례 참고)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에서도 프로그램의 이수와 학위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단기 이수과 인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적으로는 1) 대학 자체에서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2)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인증형 이수 체제를 갖추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유럽 에라스무스의 SLP(Short Learning Program)

-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분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평생학습을 위해서 학점단위, 모듈 등으로 정규 학위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단계부터 박사수준까지 유럽 공식 자격 프레임워크 내에 모두 개설되고 아울러 질관리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짧은 기간, 기업에서 요구하는 즉각적인 경제적 지식과 기술, 사회·문화적 또는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수 정보를 제공함

☑ 캐나다 온타리오 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제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주 내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대학 기반 전문직업 재교육 기반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마이크로 자격증”이나 “학자금 지원” 등을 병행 운영

구분	주요 내용
교육연구소(OISE)	• 온타리오 교육연구소(OISE)는 교육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 및 학습 • 계속전문교육 부서를 통해 학습자가 전문적인 맥락에서 교육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능하게 하는 비학점 서비스 개발 • 주 학습자는 교육자 및 교육 관리자 또는 인적 서비스 전문가(예: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 건강 및 웰빙 전문가 등)
Rotman School of	• 주로 다양한 기업, 비영리 및 기관 분야에 걸쳐 임원 및 관리자 수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비학점 평생교육을 제공

구분	주요 내용
Management (RSM)	• 프로그램 이수 인증서와 디지털 배지 제공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s)	• 마이크로 자격증의 목적 : 신속한 재교육 지원, 중등 과정 후 교육 강화 및 고등교육에 대한 대체 접근 제공, 인력의 인재 유치·참여·유지 • 2020년부터 온타리오 주 정부는 약 6천만 달러를 투자, 2021년에는 온타리오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 600여 개의 마이크로 자격증 과정 포함 • 토론토 대학의 인증된 마이크로 자격증은 55개이며, 이 과정은 대출 또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됨. • 마이크로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학습자를 대학으로 유입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시스템 구축
온타리오 공과대학 설립 및 운영	• 2020년 2월에 대학의 영리 자회사로서 온타리오 공과대학(Ontario Tech) 설립 • 업계 근로자 또는 졸업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증명과 마이크로 인증 시스템을 구상 • 산업계 파트너들이 모듈을 자격 부여하고 교육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며, 온라인 프로그램의 이점을 활용하거나 온타리오 공과대학에서 교육받을 직원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

다. 대학의 교육-연구-지역사회봉사 일체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해외 대학들의 경우 소재한 지역사회 봉사 또는 공헌을 위한 Outreach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이들 프로그램에는 1)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실습형 교육활동, 2) 교수의 연구활동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3)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상시적인 봉사활동 등이 포함됨
- 한편 성인학습자의 특성상 정주한 도시에 대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의 내용이 지역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학습의 결과가 지역사회 기여로 환원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서울형 평생교육은 수도권에 포진된 고학력 전문직 지식인들을 평생교육으로 유도하고 다시 지역사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순환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뉴욕 SUNY Empire State Service Corps**

- 뉴욕 주립대학교 시스템(SUNY)의 일부로, 지역 사회 봉사와 평생교육을 결합한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학업 및 취업준비와 연계하고 주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 활동영역: 초·중·고 교육지원, 식사 및 영양섭취 지원, 심리건강, 지속가능성, 혐오 및 편견 해소, 사회참여활동 지원, 대학입시지원 도우미

☑ **영국 Civic University Network**

- 대학이 지역사회 및 시민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 대학들이 결성한 네트워크
- 우선순위 분야: 건강·웰빙·보건, 지역교육력 강화, 환경기후 및 생물다양성, 예술과 문화 등
- 기타 기관 전략 및 리더십 수립 지원, 경제적 자문, 부지·시설·장소의 제공

3.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에 주는 시사점

가. 대학의 특성 및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기능의 역할 분담

- 서울형 LiFE사업, 서울형 HiVE사업 등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학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 문제(실업, 노령화, 이주민 증가)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지원
-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들이 대학의 강점과 소재한 기초자치구 등의 특성에 따라서 기초인문소양 및 문해교육, 직업역량 강화, 전문가 재교육 등 운영 지원
-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요구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분담, 운영하는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

☑ **일본 단기대학 지역총합학과**

- 단기대학(전문대학)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총합학과’ 형태로 체제 전환
- 1) 교양교육과 실무교육을 결합한 전문적 직업교육, 2) 보다 풍부한 사회생활 실현을 위한 교양교육, 3) 지역사회와 밀착하면서 사회인과 고령자 등을 포함한 폭넓은 연령층에 대응한 다양한 평생학습기회의 제공 등 평생교육 기능 더욱 강화

☑ 미국 조지아주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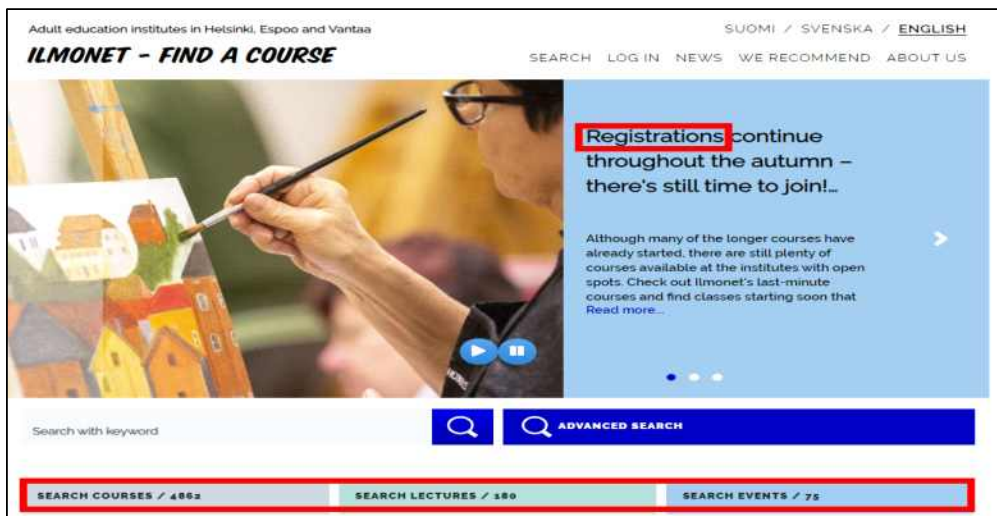
-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학의 연구소,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에서는 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기능을 분담하여 체제 구축
- 1) 조지아 대학 교육과학연구소를 통한 성과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2)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투자, 3) 조지아대학 농업경제발전센터를 통한 농업 종사자 재교육 등 실시

나. 수요자 맞춤형 종합적 정보 플랫폼 구축

- 성인학습은 전통적 학령기와 달리 학습과 삶 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크지 않거나 또는 크지 않을 것을 권장함. 성인학습자는 교과목 개설 정보 및 코스 이수 등, 학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음
- 이에 원스톱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수 체제를 간소화·통일화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필요

☑ 핀란드 헬싱키 수도권 평생교육 플랫폼 ILMONET

- 핀란드 수도권(헬싱키, 에스푸, 반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기구)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플랫폼(<https://ilmonet.fi/>)
- 장소, 주제, 사용언어, 개설기간, 강의유형, 타겟층을 세분화하여 검색 및 등록 가능



다. 서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전문가 연수 기능 강화

- 대학, 기초지자체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실행뿐만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조사 연구, 지도자 양성 및 연수, 시범사업의 인큐베이팅, 교육실행기관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메타적 지원 조직 기능 필요

☑ 일본 히로시마 팔레트

- 히로시마현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설립된 현립 평생교육센터의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강화
- 조직의 주요 기능으로 조사연구, 학습정보 제공,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시범사업 추진 등 수행

라.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성과 관리 강화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다년도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이나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과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실행하는 교육기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및 조사 기능을 담당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
- RISE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성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
 - 대학을 활용한 서울 평생교육 사업은 1) 선정 단계에서부터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 평가, 2) 핵심지표 위주로 성과관리 추진 필요
- 성인학습자(25-64세) 평생학습 참여율 외에 사업의 성과목표에 따라 핵심공통지표와 대학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과지표 등 선정 및 관리 지원
 - 정량지표 예시: 지역연계 교육과정 개발, 대학의 평생교육 재정확보, 학습자 지원 실적 등

☑ 미국 OLLI(Osher Lifelong Institute)의 지원 조건

- 2000년 버나드 오셔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세운 재단으로서 125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수립하거나 지원
- 지원을 받은 대학에서는
 -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해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비학점 교과목 및 교육활동 제공
 - 제공된 교육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제 구축
 - 참가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봉사 활동 및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건전하고 안정적인 평생교육 지원 조직 구축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합의 성과목표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합은 “비전 2030”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형평성 제고를 비전으로 설정
- 1) 학생성공에서의 형평성, 2) 접근에서의 형평성, 3) 지원에서의 형평성으로 나누어 성과목표를 세분화하여 제시
- 성과목표의 목표치를 현재보다 10~30% 증가하도록 정량적 지표로 설정

구분	성과지표와 목표
학생성공에서의 형평성	• 학업성공(자격증과정, 준학사, 학사 학위 완료자) 30% 증가 • 학사학위 취득자 증가, 준학사학위 취득 30%, CSU 또는 UC로 전학자 20% 증가 • 직업 성과: 지역 생활임금을 받는 학생비율 10% 증가
접근에서의 형평성	• 학생 참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수 25% 증가
지원에서의 형평성	• 재정지원 확대: 펠그란트, 캘리포니아칼리지 프로미스 그랜드 학생수 10% 증가 • 편입학점수 축소: 현재의 20% 감축

마.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 정책 의제화 주도

- 주요국의 경우 대학생의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비학위과정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별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서울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런던 평생학습 컨소시엄(London Learning Consortium)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정부 지원 종류

- 19세 이상을 위한 심화학습 대출(Advanced Learning Loan): 19세 이상 런던 거주자로서 3단계~6단계 공부하는 자
- 19세 이상을 위한 재량 학습자 지원 기금(DLS: Discretionary Learner Support Fund): 최소 85% 이상 과정 이수한 런던 거주자
- 19세 이상을 위한 교실 기반 과정(Classroom Based Courses) 지원: 만 19세 이상이고 유니버설 크레딧, 구직자 수당 또는 취업 지원 수당(취업 관련 활동 그룹)을 받고 있으며 런던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 중인 크레딧 유형에 따라 수강료 전액 지원 가능. 현재 취업 중이고 런던 생활 임금보다 낮은 수입을 받고 있다면 전액 지원. 런던 생활 임금보다 높은 수입을 받고 있다면 일부만 지원
- 16세 이상을 위한 수습생 지원: 수습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주(수습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나 정부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지원
- 16~24세(또는 교육, 건강 및 케어 플랜 -EHCP를 통해 최대 25세)를 위한 연수생 지원: 실업자 또는 저임금 근로자로서 풀타임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
- 16~24세(또는 교육, 건강 및 케어 플랜 -EHCP를 통해 최대 25세)를 위한 재량 보조금: 런던 학습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장비 및 여행비용 지원

☑ 일본 교육훈련급부제도

- 교육훈련급부제도는 일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능력 개발이나 커리어 형성을 지원해 고용의 안정과 취직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했을 때, 수강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것
-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레벨 등에 따라 '전문실천교육훈련', '특정일반교육훈련', '일반교육훈련'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음

구분	지원 대상과 주요 지원 내용
전문실천교육훈련	• 노동자의 중장기적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이 대상 • 수강 비용의 50%(연간 상한 40만 엔)가 훈련 수강 중 6개월마다 지급 • 자격 취득 등을 하고, 또한 훈련 수료 후 1년 이내에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된 경우는 수강 비용의 20%(연간 상한 16만 엔)가 추가로 지급 •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문실천교육훈련(통신제, 야간제 제외)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 개시시 45세 미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교육훈련지원급부금을 지급
특정일반교육훈련	• 노동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조기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이 대상 • 수강 비용의 40%(상한 20만 엔)가 훈련 수료 후에 지급
일반교육훈련	• 그 외 고용의 안정·취직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교육훈련이 대상 • 수강 비용의 20%(상한 10만 엔)가 훈련 수료 후에 지급

IV

서울의 특성과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제1절. 서울의 인구 특성

제2절. 서울의 사회·문화적 특성

제3절. 서울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IV

서울의 특성과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제1절. 서울의 인구 특성

1. 서울의 인구 추이와 현황

가. 서울의 인구 추이(2020~2040)

○ 영유아 및 청소년층(0~19세)의 지속적 감소

- 영유아 및 청소년층 인구는 2020년 1,413,262명(14.7%)에서 2040년 864,083명(10.1%)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초·중등교육 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 수요가 증가하여 평생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

○ 청년층(20~39세)의 급격한 감소

- 2020~2040년까지 청년층 인구는 2,993,771명(31.1%)에서 1,996,521명(23.4%)으로 약 33% 감소
- 대학의 주 교육대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 대학들이 전통적인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 및 평생교육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청년층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장년층(40~64세)의 완만한 감소

- 장년층 인구는 2020년 3,734,010명(38.8%)에서 2040년 2,951,446명(34.6%)으로 줄어들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교육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
-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 재교육, 경력 전환, 기술 습득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장년층을 대상으로 확장 필요

○ 노년층(65세 이상)의 급격한 증가

- 노년층은 2020년 1,476,752명(15.4%)에서 2040년 2,727,774명(31.9%)으로 약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
- 노년층을 위한 은퇴 후 학습, 여가 교육, 건강 관리 및 사회적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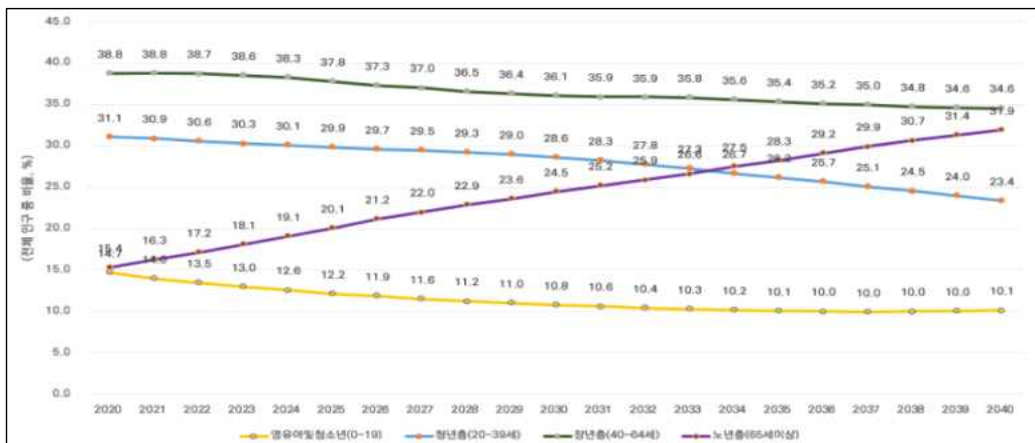
〈표 IV-1〉 서울특별시 연령대별 인구 추계(2020~2040)

(단위: 명, (%))

연도	영유아및청소년 (0~19세)	청년층 (20~39세)	장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이상)	합계
2020	1,413,262 (14.7)	2,993,771 (31.1)	3,734,010 (38.8)	1,476,752 (15.4)	9,617,795 (100.0)
2021	1,330,570 (14.0)	2,936,121 (30.9)	3,689,198 (38.8)	1,545,639 (16.3)	9,501,528 (100.0)
2022	1,270,937 (13.5)	2,877,778 (30.6)	3,646,459 (38.7)	1,616,269 (17.2)	9,411,443 (100.0)
2023	1,216,355 (13.0)	2,827,911 (30.3)	3,602,155 (38.6)	1,691,853 (18.1)	9,338,274 (100.0)
2024	1,164,354 (12.6)	2,788,671 (30.1)	3,550,048 (38.3)	1,768,360 (19.1)	9,271,433 (100.0)
2025	1,121,812 (12.2)	2,753,915 (29.9)	3,481,177 (37.8)	1,853,084 (20.1)	9,209,988 (100.0)
2026	1,085,534 (11.9)	2,714,723 (29.7)	3,413,909 (37.3)	1,937,948 (21.2)	9,152,114 (100.0)
2027	1,050,746 (11.6)	2,680,011 (29.5)	3,366,530 (37.0)	2,000,032 (22.0)	9,097,319 (100.0)
2028	1,015,985 (11.2)	2,649,222 (29.3)	3,306,000 (36.5)	2,073,950 (22.9)	9,045,157 (100.0)
2029	990,181 (11.0)	2,607,133 (29.0)	3,270,763 (36.4)	2,127,121 (23.6)	8,995,198 (100.0)

연도	영유아및청소년 (0~19세)	청년층 (20~39세)	장년층 (40~64세)	노년층 (65세이상)	합계
2030	968,677 (10.8)	2,561,280 (28.6)	3,229,703 (36.1)	2,187,977 (24.5)	8,947,637 (100.0)
2031	945,460 (10.6)	2,516,977 (28.3)	3,197,441 (35.9)	2,242,669 (25.2)	8,902,547 (100.0)
2032	925,219 (10.4)	2,460,434 (27.8)	3,180,854 (35.9)	2,293,458 (25.9)	8,859,965 (100.0)
2033	907,499 (10.3)	2,403,774 (27.3)	3,160,053 (35.8)	2,348,374 (26.6)	8,819,700 (100.0)
2034	895,895 (10.2)	2,345,850 (26.7)	3,124,367 (35.6)	2,415,472 (27.5)	8,781,584 (100.0)
2035	883,669 (10.1)	2,291,598 (26.2)	3,094,825 (35.4)	2,475,251 (28.3)	8,745,343 (100.0)
2036	872,237 (10.0)	2,235,555 (25.7)	3,061,776 (35.2)	2,539,264 (29.2)	8,708,832 (100.0)
2037	865,472 (10.0)	2,177,984 (25.1)	3,031,542 (35.0)	2,595,169 (29.9)	8,670,167 (100.0)
2038	862,612 (10.0)	2,117,300 (24.5)	3,002,530 (34.8)	2,646,821 (30.7)	8,629,263 (100.0)
2039	861,723 (10.0)	2,060,061 (24.0)	2,970,824 (34.6)	2,693,283 (31.4)	8,585,891 (100.0)
2040	864,083 (10.1)	1,996,521 (23.4)	2,951,446 (34.6)	2,727,774 (31.9)	8,539,824 (100.0)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별 인구 (추계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https://data.seoul.go.kr/dataList/10837/S/2/dataset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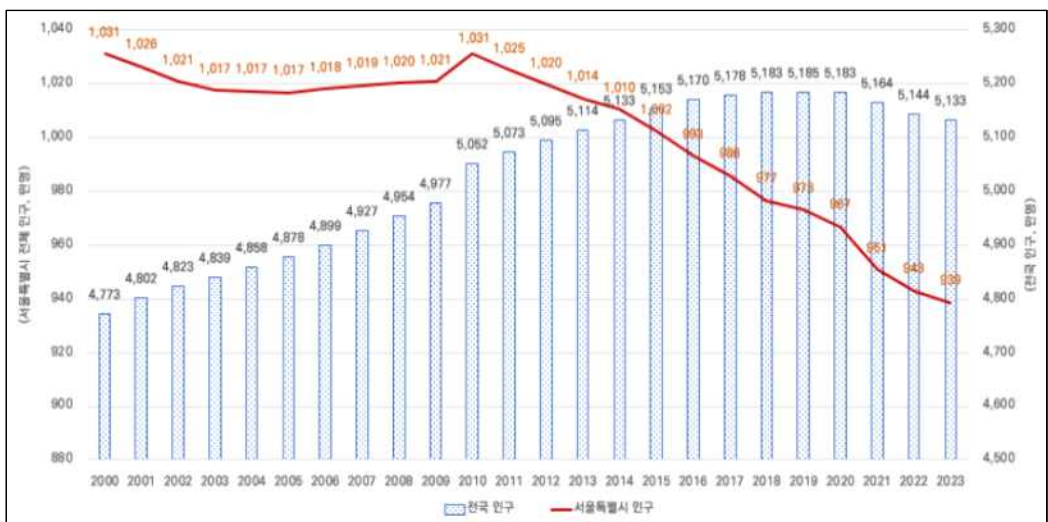


[그림 IV-1] 서울특별시 연령대별 인구 추계(2020~2040)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별 인구 (추계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https://data.seoul.go.kr/dataList/10837/S/2/datasetView.do>)

나. 서울 인구 현황

- 서울 인구는 2023년 약 939만 명으로, 2000년 1,031만 명에 비해 8.9%, 2020년에 비하여 2.9% 감소
- 2010~2010년까지 서울시의 인구는 평균 1,021만 명 수준으로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은 전년 대비 인구 감소가 1.64%(2020년 대비 2021년 인구)로 해당 기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 2023년 전국 인구 기준 시, 서울시의 인구는 18.3%(939만 명)로서 전체 광역자치체 중에서 경기도(26.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장년층(40~64세)이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년층(20~39세)이 30.2%, 노년층(65세 이상)이 18.1%, 영유아 및 청소년층(0~19세)이 1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IV-2] 전국 주민등록인구 추이(2000~2023)

자료: 통계청 KOSIS(2010~2023).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2023년 기준, 서울시 지역구별·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 먼저 0~19세의 영유아 및 청소년층은 전체 서울시 인구의 약 13.2%를 차지하고 있음
 - 노원구(73,597명), 송파구(100,767명), 양천구(73,113명)와 같은 지역은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청소년 대상의 학습 지원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지원 필요
- 20~39세(청년층) 인구 비중
 - 청년층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30.2%를 차지하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포함된 연령대로서, 대체로 직업교육, 창업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관악구(195,819명), 송파구(189,408명), 강남구(146,356명)는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직업 재교육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창업 교육, 스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기 계발 지원 필요
- 40~64세(장년층) 인구 비중
 - 장년층은 서울 전체 인구의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직업 재교육과 제2의 커리어 탐색, 기술 습득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에 더 오래 참여할 수 있음
 - 송파구(255,348명), 강남구(217,270명), 강서구(212,412명)는 중장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은퇴 전후 직업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기업과의 연계 평생교육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65세 이상(노년층) 인구 비중
 - 노년층은 전체 인구의 약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
 - 송파구(108,643명), 노원구(96,309명), 강서구(101,809명)는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서울시의 인구 현황을 기초로 지역별, 연령대별 거주 현황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수요 파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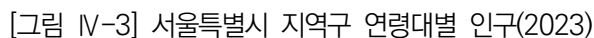
-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 제공
-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재교육과 직업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건강 관리, 디지털 교육, 사회적 참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표 IV-2〉 서울특별시 지역구 연령대별 인구(2023)

(단위: 명, %)

지역구	전체 연령	0~19세	20~39세	40~64세	65세이상
종로구	139,417(1.6)	15,658(0.2)	40,818(0.5)	54,441(0.6)	28,500(0.3)
중구	121,312(1.5)	11,786(0.1)	38,401(0.5)	45,600(0.5)	25,525(0.3)
용산구	213,151(2.3)	24,709(0.3)	67,513(0.8)	81,690(0.9)	39,239(0.4)
성동구	277,361(3.0)	34,744(0.4)	86,643(0.9)	106,714(1.1)	49,260(0.5)
광진구	335,554(3.6)	39,012(0.4)	113,792(1.3)	126,289(1.4)	56,461(0.6)
동대문구	341,149(3.7)	40,909(0.4)	106,334(1.3)	127,116(1.3)	66,790(0.7)
종랑구	382,155(4.0)	43,074(0.5)	107,859(1.1)	152,431(1.6)	78,791(0.8)
성북구	425,602(4.5)	59,099(0.6)	120,806(1.3)	165,465(1.7)	80,232(0.8)
강북구	288,113(3.0)	30,716(0.3)	73,152(0.8)	115,772(1.2)	68,473(0.7)
도봉구	306,948(3.2)	36,614(0.4)	75,046(0.8)	124,914(1.3)	70,374(0.7)
노원구	498,213(5.2)	73,597(0.8)	127,323(1.4)	200,984(2.1)	96,309(1.0)
은평구	466,770(4.9)	59,813(0.6)	128,148(1.3)	185,244(1.9)	93,565(1.0)
서대문구	306,231(3.3)	39,646(0.4)	93,339(1.1)	115,658(1.2)	57,588(0.6)
마포구	363,697(3.9)	47,103(0.5)	122,707(1.4)	136,383(1.4)	57,504(0.6)
양천구	436,028(4.6)	73,113(0.8)	105,596(1.1)	181,193(1.9)	76,126(0.8)
강서구	563,058(5.9)	73,006(0.8)	175,832(1.8)	212,412(2.2)	101,808(1.1)
구로구	392,405(4.3)	50,652(0.5)	111,970(1.2)	151,406(1.7)	78,377(0.8)
금천구	227,481(2.5)	22,811(0.2)	72,928(0.8)	87,211(1.0)	44,531(0.5)
영등포구	374,794(4.1)	45,130(0.5)	127,907(1.4)	135,914(1.5)	65,843(0.7)
동작구	378,769(4.0)	46,065(0.5)	123,591(1.3)	139,024(1.5)	70,089(0.7)
관악구	481,956(5.1)	41,559(0.4)	195,819(2.1)	159,816(1.7)	84,762(0.9)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특별시 지역별 등록 인구(연령별, 동별)를 이용하여 작성
(<https://data.seoul.go.kr/dataList/10718/S72/dataset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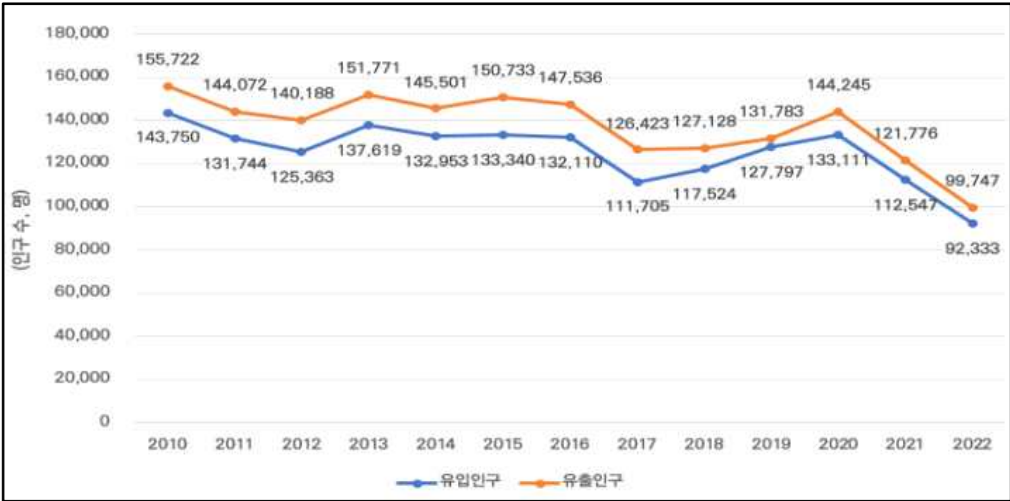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특별시 지역별 등록 인구(연령별, 동별)를 이용하여 작성

다. 서울 인구의 유입과 유출

1) 서울시 전반적인 유입·유출 인구 변화

- 서울의 인구 유입과 유출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5만 명대였던 유입 인구는 2022년에는 약 10만 명으로 감소함
 - 유출 인구는 2022년에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V-4] 서울특별시 유입 및 유출 인구 현황(2010~2022)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NABIS(2010~2022). 서울특별시 지역구 전입, 전출 인구를 이용하여 작성

-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구별 인구 이동은 모든 구에서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구간이 지속(유출>유입)되고 있음

〈표 IV-3〉 서울특별시 유입·유출 인구수(2022)

(단위: 명)

지역구	구분	인구수	지역구	구분	인구수	지역구	구분	인구수
종로구	유출	1,628	노원구	유출	4,118	관악구	유출	6,839
	유입	1,389		유입	3,316		유입	6,618
중구	유출	1,407	은평구	유출	5,404	서초구	유출	4,549
	유입	1,327		유입	4,421		유입	4,168

지역구	구분	인구수	지역구	구분	인구수	지역구	구분	인구수
용산구	유출	2,546	서대문구	유출	3,256	강남구	유출	6,481
	유입	2,245		유입	4,105		유입	5,916
성동구	유출	2,784	마포구	유출	4,056	송파구	유출	7,181
	유입	2,439		유입	4,314		유입	6,597
광진구	유출	3,675	양천구	유출	4,078	강동구	유출	4,194
	유입	3,417		유입	3,459		유입	4,107
동대문구	유출	3,380	강서구	유출	6,110	서울시 전체	유출	99,747
	유입	2,874		유입	5,869		유입	92,333
종랑구	유출	3,377	구로구	유출	3,666			
	유입	3,141		유입	4,158			
성북구	유출	3,911	금천구	유출	2,484			
	유입	3,325		유입	2,235			
강북구	유출	2,553	영등포구	유출	4,369			
	유입	2,326		유입	4,239			
도봉구	유출	2,579	동작구	유출	5,122			
	유입	2,307		유입	4,021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NABIS(2022). 서울특별시 지역구 전입, 전출 인구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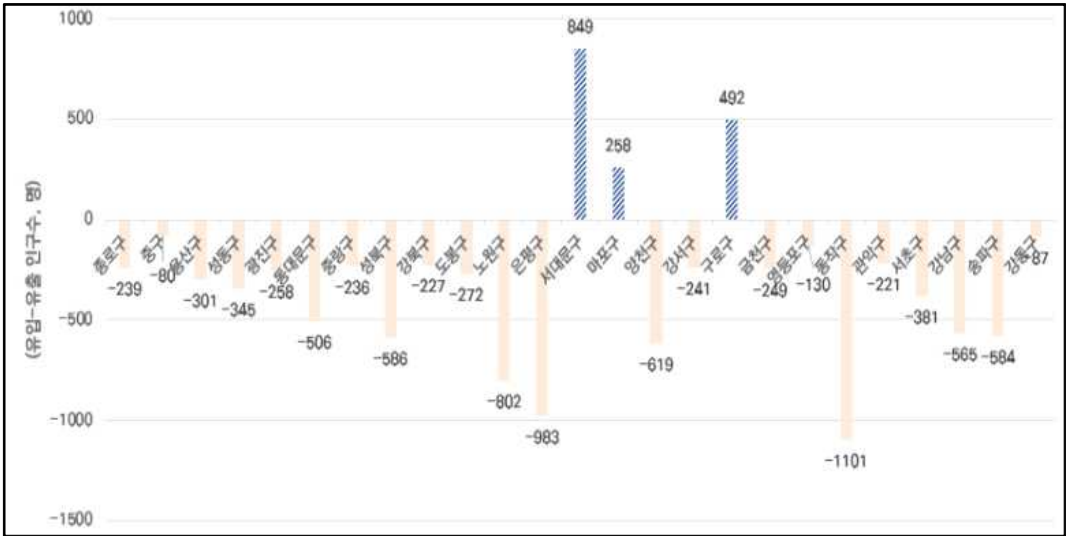
2) 지역구별 인구 유입·유출 특성

○ 유입에 따른 인구 특성

- 서대문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2022년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임. 서대문구는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유입이 활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대학이 밀집해 있어 학습 인프라와 교육 기회도 유입을 촉진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구로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또 다른 유입 지역으로서 IT 및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와 상업 지역이 밀집해 있어 청년층 및 중장년층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마포구의 경우, 교통 편의성과 상업 지역이 잘 발달해 있으며, 청년층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유출에 따른 인구 특성

- 동작구의 경우, 2022년 기준 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거비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싼 주거 환경이 유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그림 IV-5] 서울특별시 유입-유출 인구수(2022)

주: 인구 유입-유출의 차이를 표시함.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NABIS(2022). 서울특별시 지역구 전입, 전출 인구를 이용하여 작성

- 은평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임
-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전통적으로 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일자리 기회가 부족하여 인구 유출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됨. 이에 따라 노원구는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고용 연계 교육을 통해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구 유입 및 유출 특성에 따른 지역-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이와 같이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해, 평생교육과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직장인 재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지역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은 주거 안정 정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센터와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해 직업교육, 기술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라. 소외계층 현황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해당 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분포를 분석하였음
-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상대적으로 수급자 수가 적으나, 도심 특성상 다양한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기초 ICT 교육이나, 문화 예술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도심 특화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음
-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동북권은 수급자가 다수 분포하며 특히 노원구(32,453명)와 중랑구(28,019명)에서 두드러짐
 - 저소득층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 재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발굴이 유효할 수 있음
 - 청년층 재취업 교육, 특성화 직업 기술 교육 등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평생교육 사업 유형이 될 수 있음
-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북권에서는 은평구(25,922명)의 수급자 수가 두드러짐
 - 이 지역은 저소득 중장년층 및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교육, 노후 준비 교육 등을 발굴할 수 있음
 - 은평구의 고령화 비율을 고려해 노인 평생교육 사업이 주목받을 수 있음
-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남권은 강서구(31,728명), 관악구(23,318명)와 같은 지역에서 수급자 수가 많은 편임
 -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의 평생교육 사업 발굴이 적합할 수 있음

- 특히, 구로구와 금천구는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함

○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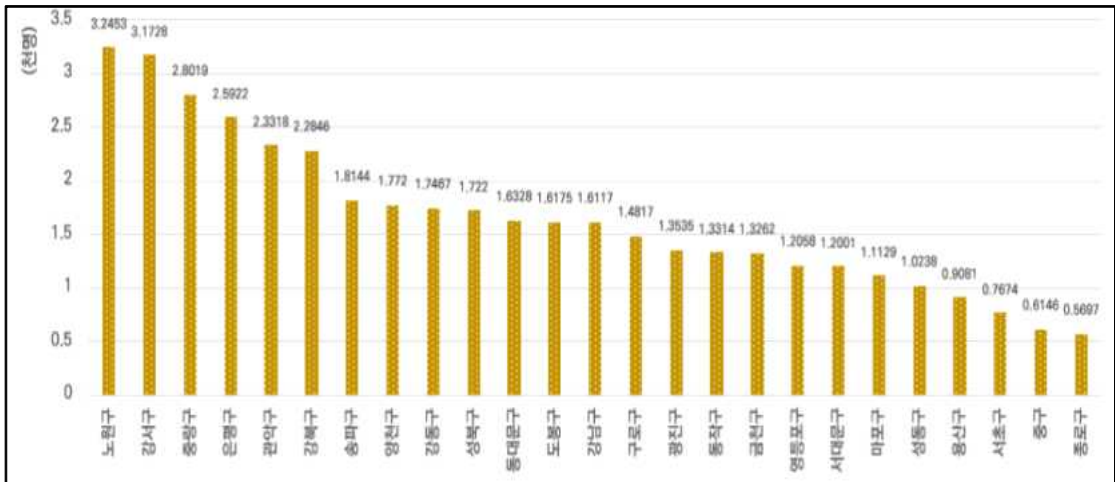
-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수급자 수가 적은 편이나 교육 수요가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고학력 실업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음
- 특히, 여성 재취업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또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표 IV-4〉 서울특별시 권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2)

(단위: 명, %)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지역	총 수급자	지역	총 수급자	지역	총 수급자	지역	총 수급자	지역	총 수급자
종로구	5,697 (1.4)	성동구	10,238 (2.5)	은평구	25,922 (6.3)	양천구	17,720 (4.3)	서초구	7,674 (1.9)
중구	6,146 (1.5)	광진구	13,535 (3.3)	서대문구	12,001 (2.9)	강서구	31,728 (7.7)	강남구	16,117 (3.9)
용산구	9,081 (2.2)	동대문구	16,328 (4.0)	마포구	11,129 (2.7)	구로구	14,817 (3.6)	송파구	18,144 (4.4)
소계	20,924 (5.1)	중랑구	28,019 (6.8)	소계	49,052 (11.9)	금천구	13,262 (3.2)	강동구	17,467 (4.2)
		성북구	17,220 (4.2)			영등포구	12,058 (2.9)	소계	59,402 (14.4)
		강북구	22,846 (5.5)			동작구	13,314 (3.2)		
		도봉구	16,175 (3.9)			관악구	23,318 (5.7)		
		노원구	32,453 (7.9)			소계	126,217 (30.6)		
		소계	156,814 (38.0)						
계		412,409(100.0)							

자료: 서울특별시열린데이터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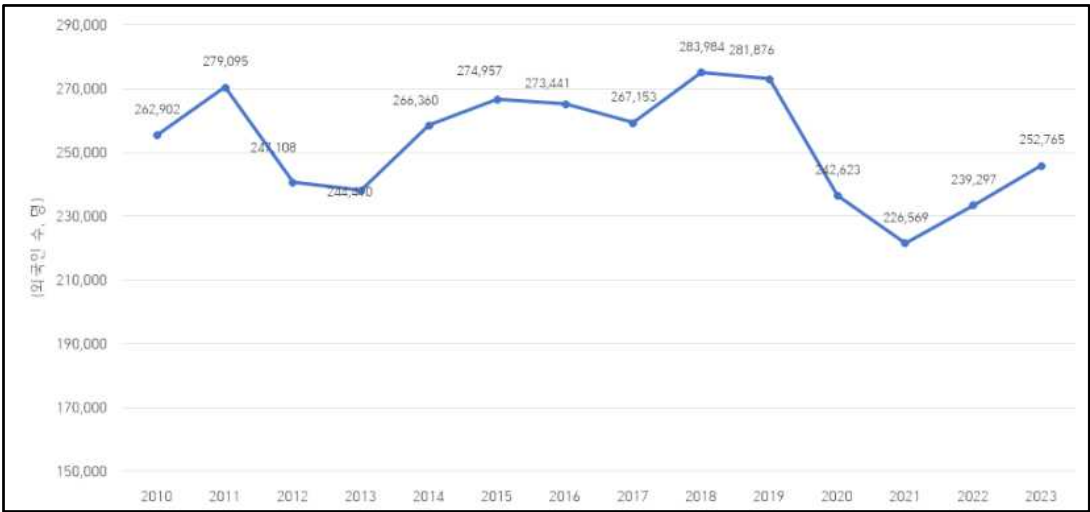
[그림 IV-6] 국민기초수급자 현황(2022)

자료: 서울특별시열린데이터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이용하여 작성.

2. 외국인 현황

가. 서울 외국인 추이

- 2010~2023년까지의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지속적 증가 추이를 보인 후 코로나 시기 급감함. 2022년 이후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V-7]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변화 추이(2010~2023)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현황을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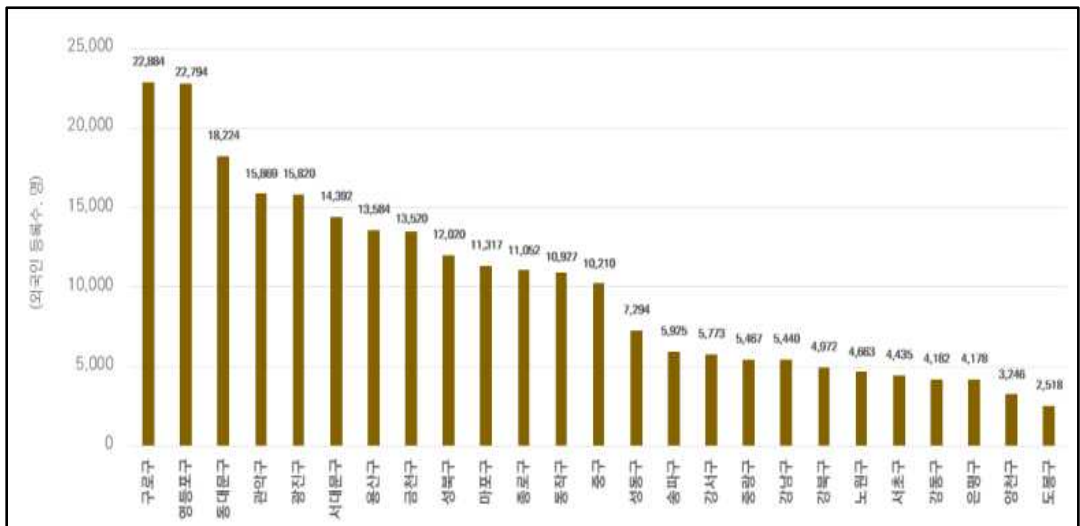
〈표 IV-5〉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지역구별 현황(2023)

(단위: 명, %)

	지역구	외국인 등록수	비율(%)		지역구	외국인 등록수	비율(%)		지역구	외국인 등록수	비율(%)
1	구로구	22,884	9.2	11	종로구	11,052	4.4	21	서초구	4,435	1.8
2	영등포구	22,794	9.1	12	동작구	10,927	4.3	22	강동구	4,182	1.7
3	동대문구	18,224	7.4	13	중구	10,210	4.1	23	은평구	4,178	1.7

	지역구	외국인 등록수	비율(%)		지역구	외국인 등록수	비율(%)		지역구	외국인 등록수	비율(%)
4	관악구	15,869	6.3	14	성동구	7,294	2.9	24	양천구	3,246	1.3
5	광진구	15,820	6.2	15	송파구	5,925	2.3	25	도봉구	2,518	1.0
6	서대문구	14,392	5.7	16	강서구	5,773	2.3	총계		250,706	100%
7	용산구	13,584	5.5	17	중랑구	5,467	2.1				
8	금천구	13,520	5.4	18	강남구	5,440	2.2				
9	성북구	12,020	5.0	19	강북구	4,972	2				
10	마포구	11,317	4.5	20	노원구	4,663	1.9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현황을 이용하여 작성



[그림 IV-8]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지역구별 현황(2023)

주: 외국인 등록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의 내림차순으로 제시함.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현황을 이용하여 작성

나. 지역별 외국인 등록 현황(2023년 기준)

○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

- 구로구(22,884명, 9.2%)와 영등포구(22,794명, 9.1%) 지역으로 서울에서 외국인 등록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

- 이 지역들은 산업단지와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 외국인 밀집 지역

- 동대문구(18,224명, 7.4%)와 관악구(15,869명, 6.3%)는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
- 상업 중심지와 대학가를 배경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음
-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 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대학과 연계하여 문화 적응 교육과 직업 연계 교육 수요가 높을 것임을 시사

○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타 지역

- 광진구(15,820명, 6.2%), 서대문구(14,392명, 5.7%), 용산구(13,584명, 5.5%)로서 각각 외국인 학생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 특히, 광진구와 서대문구는 대학 밀집 지역이며, 용산구는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관이 많아 외국인 전문가와 가족이 많이 거주함

○ 상업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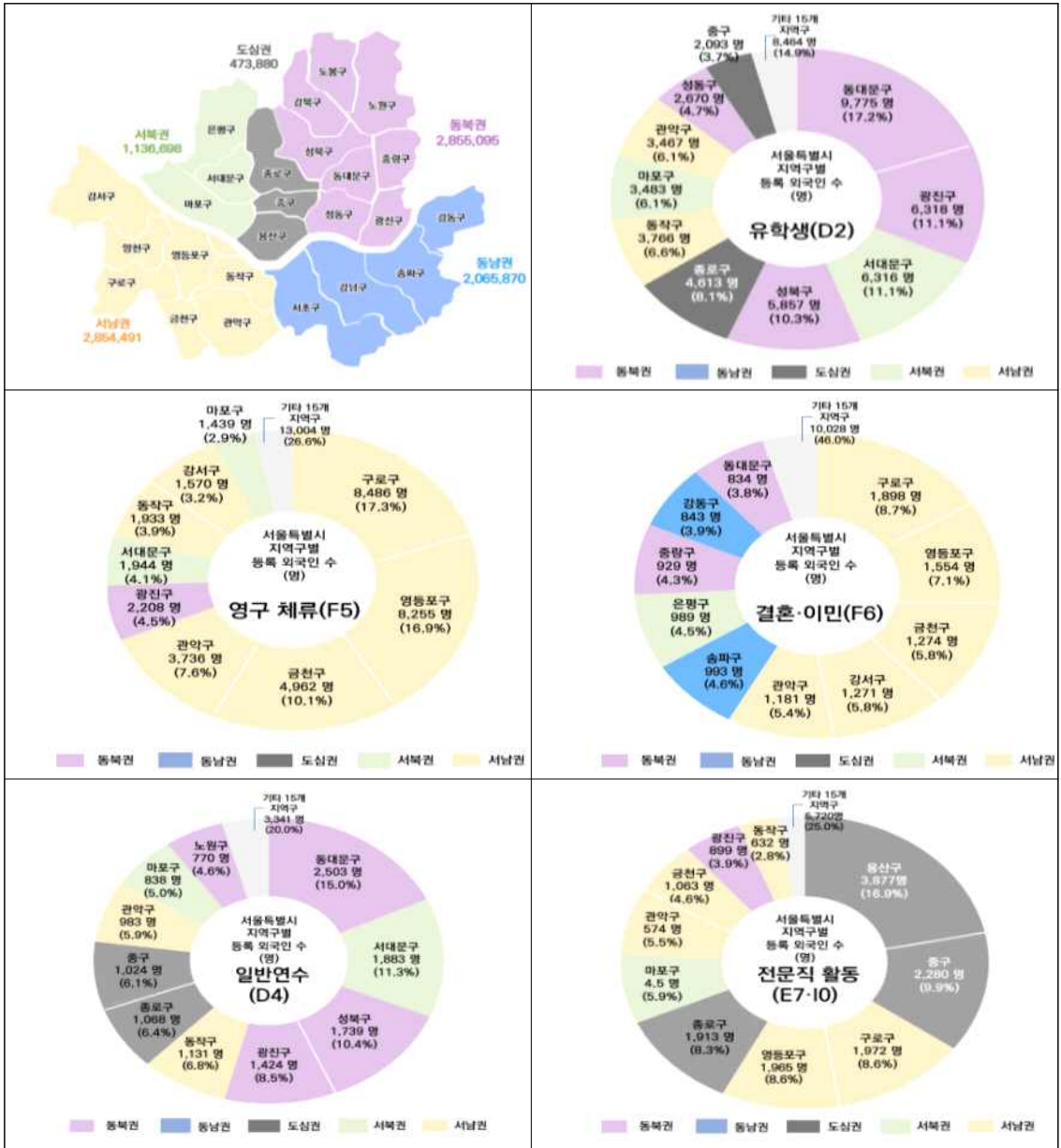
- 중구(10,210명, 4.1%)와 마포구(11,317명, 4.5%)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 교육, 직업 교육, 관광 관련 서비스 직종에 대한 교육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

○ 외국인 거주 특성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요 전망

-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 재교육,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적 특성에 맞춘 직업교육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 유학생 밀집 지역(관악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에서는 대학과 연계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과 생활 지원 프로그램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외국인 전문가 대상의 고급 교육 과정도 마련해 이들이 서울시 내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 거주목적별 외국인 현황

- 등록 외국인의 비자에 따른 거주 목적을 분석하였음
- 유학생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 동대문구는 유학생 수가 9,775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17.2%를 차지함. 이는 동대문구가 많은 교육기관과 학문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임을 나타냄
 - 광진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6,318명(11.1%)으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군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 성북구(5,857명, 10.3%)와 종로구(4,613명, 8.1%) 역시 교육기관과 관련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
- 영구체류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 구로구는 8,486명으로 영구 체류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17.3%),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8,255명(16.9%)으로 많음. 이는 두 지역 모두 산업단지와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이라는 점을 의미함
 - 금천구는 4,962명(10.1%)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관악구(3,736명, 7.6%)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나머지 지역은 5% 이하로 영구 체류자 수가 적은 편이며, 특히 동대문구는 유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 영구 체류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2.8%)임



[그림 IV-9]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외국인 거주 목적 현황(2023)

주: 1. 상위 지도의 색깔은 서울시 5대 생활권역을 나타낸 것이며, 2023년 기준 인구수를 나타낸 것임.
 2. D2, F5, F6, D4, E7,I0는 거주 목적에 따른 비자 종류를 의미함.
 자료: 법무부(2023). 비자발급 목적에 따른 등록 외국인 현황을 이용하여 작성.

○ 혼인 및 이민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 구로구는 1,898명(8.7%)으로 혼인 및 이민 관련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이는 구로구가 산업단지와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영등포구는 1,554명(7.1%)으로 두 번째로 혼인 및 이민 관련 외국인이 많은 지역임. 영등포구도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특히 이민자들이 생활하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된 것으로 보임
- 금천구(1,274명, 5.8%)와 강서구(1,271명, 5.8%)는 비슷한 수준으로 혼인 및 이민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두 지역 역시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이민자들이 주로 정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관악구는 1,181명(5.4%)으로 주거지 특성상 혼인 및 이민 외국인도 일정 수 이상 거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송파구(993명, 4.6%)와 은평구(989명, 4.5%)는 혼인 및 이민 외국인 비율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도 주거 및 생활 인프라가 잘 발달된 지역임
- 중랑구(929명, 4.3%)와 강동구(843명, 3.9%)는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전히 혼인 및 이민 외국인이 일정 비율 거주하고 있음
- 동대문구는 834명(3.8%)으로 혼인 및 이민 외국인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동대문구는 앞서 유학생과 일반연수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혼인 및 이민 목적의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 연수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 동대문구는 2,503명으로 가장 많은 일반연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의 15.0%를 차지함. 동대문구는 앞서 분석한 유학생 인구 비율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수에 관련된 외국인 인구가 많다는 특징을 보임
- 서대문구는 1,883명(11.3%)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일반 연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성북구(1,739명, 10.4%)와 광진구(1,424명, 8.5%)도 비슷한 비율을 보임. 이들 지역은 교육과 관련된 외국인 인구가 많다는 특징을 보임
- 동작구(1,131명, 6.8%)와 종로구(1,068명, 6.4%)는 비교적 중간 수준의 일반연수자를 수

용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770명(4.6%)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연수자가 있음

○ 전문직 활동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 용산구는 864명(11.6%)으로 전문직 활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 이는 용산구가 외국 대사관과 국제적 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강남구(727명, 9.8%)와 관악구(574명, 7.7%)는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전문직 활동자가 거주하고 있음. 강남구는 상업과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관악구는 대학가 인근으로 전문직 활동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임
- 마포구(563명, 7.6%)와 서초구(544명, 7.3%) 역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상업 및 사무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광진구는 345명(4.6%)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나. 종합정리

- 각 권역별 수급자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수료율을 성과 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북권의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률, 서남권의 다문화 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사회적응도나 한국어 능력 향상률을 지표로 삼을 수 있음
-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부가가치형 지표를 설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 형성도 (네트워킹 기회 증가, 지역 커뮤니티 참여율 등), 교육 후 개인 삶의 만족도나 사회 참여도 변화 등을 측정하여 사업의 부가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포를 바탕으로 한 평생교육 사업은 각 권역별 수급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성과지표를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제2절. 서울의 사회·문화적 특성

1. 서울의 생활권

가. 생활권의 구분

1) 생활권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이자 후속계획

-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 생활권이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를 의미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서울시·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 관련 주체가 협력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
-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권 간 격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내의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상대적으로 낙후한 생활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중점정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2) 권역생활권 구분

- 서울의 생활권을 기존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으로 구분
 - 현행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 차원의 미래상과 발전구상이 없어 중간단계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 시 자치구 단위로 통합하여 수립
- 권역생활권의 경우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

- 5개 권역은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으로 구성
- 권역생활권은 행정구역 및 인구수, 거주인구 및 토지이용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 필요시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하나의 공간단위로 하는 중생활권으로 세분 가능
-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IV-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5대 권역생활권 구분

권역	자치구수	해당 자치구
도심권	3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8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3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7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림 IV-10] 서울 권역생활권 구분

출처: 서울특별시(2023: 142).

나. 서울의 생활권별 주요 특징 (서울특별시, 2023)

1) 동북권

- 청년첨단 혁신축을 중심으로 신 산업거점을 육성하여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견인
 -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고용 창출 기반인 홍릉 바이오의료허브를 광역중심인 청량리·왕십리와 연계하여 혁신산업거점으로 육성
 - 광운대 역세권 일대를 신설·물류 부지를 활용하여 동북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켜 동북권의 자족성을 강화
 -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등 권역 내 대규모 가용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동북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특화산업 집적지를 조성
 - 청년첨단 혁신축의 산업기능을 중랑~구리, 천호~하남 등으로 광역적 확산과 연계를 강화



[그림 IV-11] 동북권 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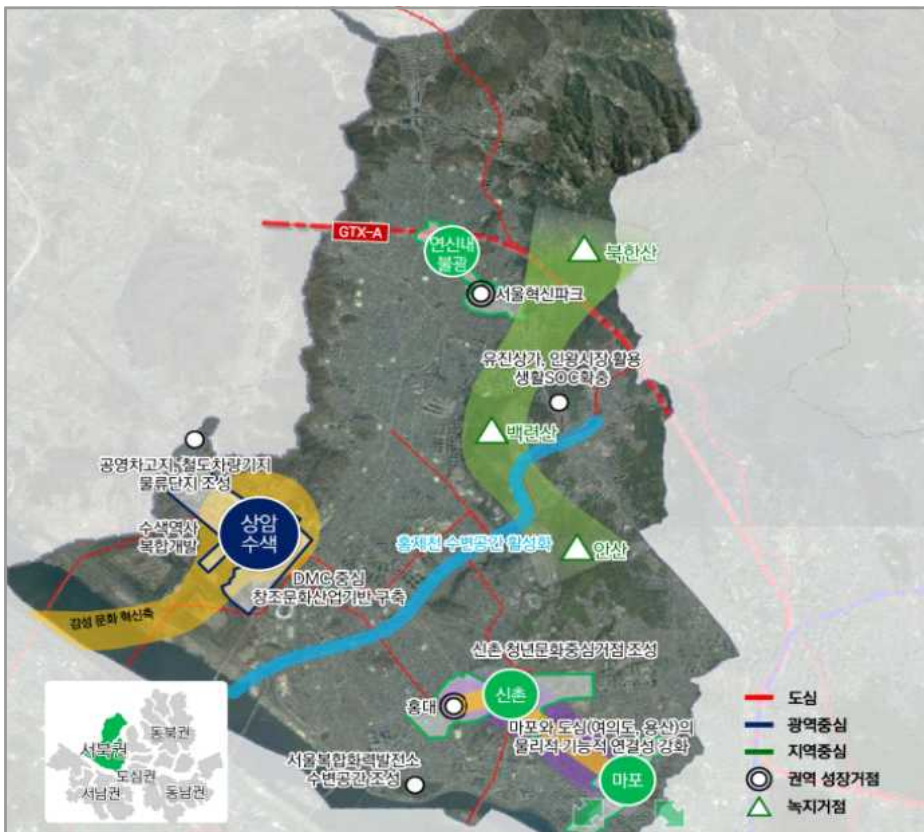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2023: 155).

○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지식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연계

- 권역 내 다수의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직접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창업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
 - 덕수고 이적지 및 지역 내 기존 교육 인프라를 활용·연계하여 복합교육문화시설을 조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한전연수원 일대를 지식기술산업 거점으로 육성

2) 서북권

○ 대학교 밀집지역, 청년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과 주거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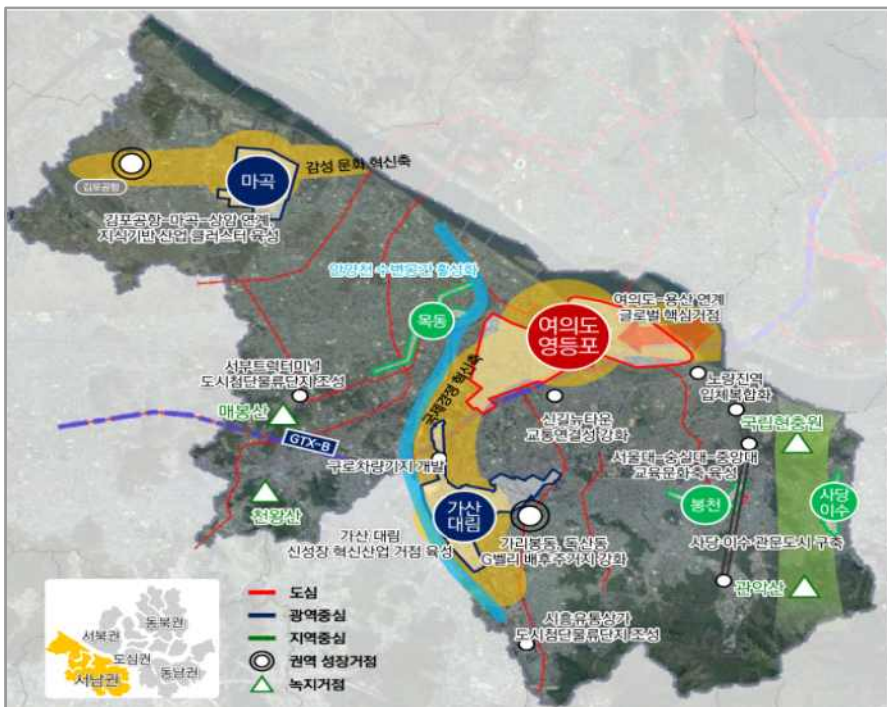
[그림 IV-12] 서북권 발전구상

출처: 서울특별시(2023: 160).

- 신촌 일대의 대학교 밀집지역을 청년 주거 수요를 반영하며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로 다양한 계층·세대가 어울려 사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
- 공공기여, 저이용 기반시설 입체복합개발 등으로 근린공원, 보육시설, 여가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을 확보

3) 서남권

- 권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축 육성



[그림 IV-13] 서남권 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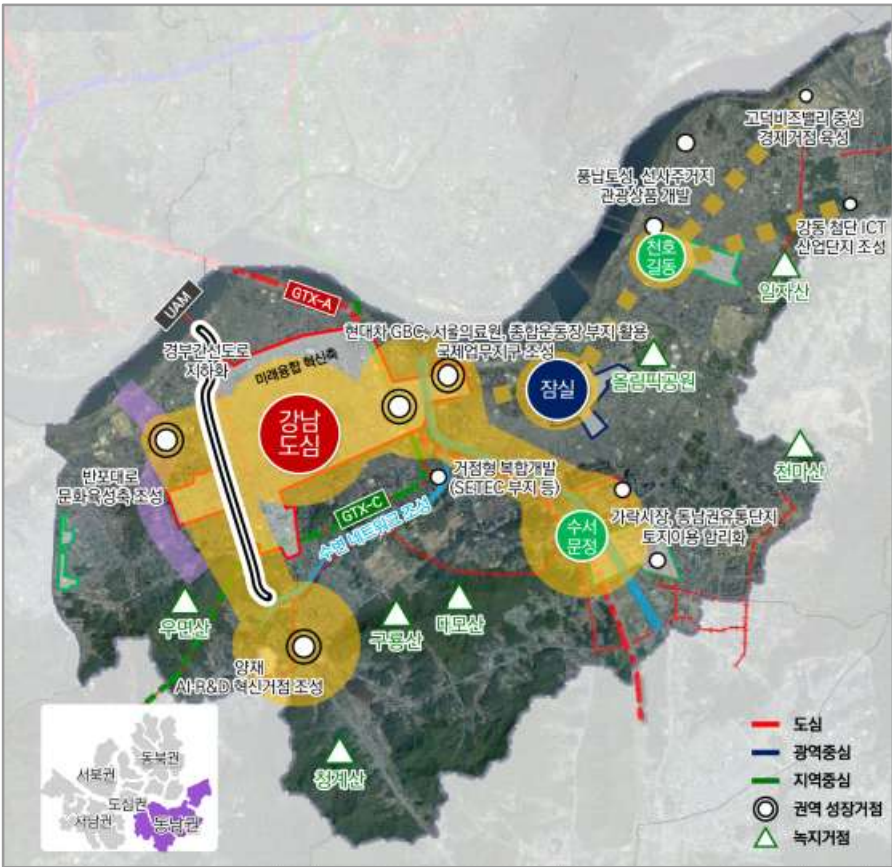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2023: 166).

- 한강 이남의 중심 교육문화축인 서울대~송실대~중앙대 일대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

-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머무르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창업 등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서남권의 산학 연구개발이 특화된 청년 창업거점을 육성
- G밸리와 테헤란밸리를 잇는 연계 거점인 관악S밸리 일대에 산학연계 등으로 청년벤처 산업을 특화육성
- 남부순환로 일대 첨단벤처산업 지원을 위한 상업업무 복합서비스기능 확충 유도

4) 동남권

- 천호·길동 지역중심, 자족기능 강화 및 청년문화 혁신거점 조성
 - 천호·길동 지역중심을 강남 도심 및 잠실 광역중심과 연결·확장되는 동부 광역연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천호대로와 양재대로변을 중심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업무·상업기능과 생활문화기반을 강화
 -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 사거리 일대를 문화예술 거리 및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의 문화적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
 - 천호동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로 확보되는 공원 내 소규모 청년공연장 조성 등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설 도입 검토
- 권역 내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
 - 국제 업무 및 MICE 산업 관련 방문객이 동남권에서 업무 외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역사·문화거점 및 이벤트 공간 등을 조성
 - 세빛섬~고속버스터미널~정보사부지~예술의전당을 연결한 반포대로 문화축 및 문화예술거점을 육성
 -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터미널의 문화·업무·상업의 복합개발 검토
 - 풍납토성 주변지역을 도심형 관광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수변역사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



[그림 IV-14] 동남권 발전구상

출처: 서울특별시(2023: 171).

2. 서울 권역별 대학 현황¹³⁾

가. 자치구별 대학 현황

○ 서울 자치구별 대학유형별 학교수, 학생수, 전임교원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치구 단위로 보았을 때,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학이 없는 곳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5개임
- 대학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북구(8개교)이며,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7개교)와 강서구(7개교)임

〈표 IV-7〉 서울 권역별·자치구별 대학교 현황(2023)

(단위: 개교, 명)

자치구	유형	학교수	재적학생수	전임교원수
종로구	대학	2	23,954	1,012
	전문대학	1	3,086	76
	방송통신대학	1	122,088	163
중구	대학	1	17,392	475
	전문대학	1	3,312	80
용산구	대학	1	12,054	382
성동구	대학	1	22,610	1,029
	전문대학	1	7,538	178
광진구	대학	3	39,825	1,166
동대문구	대학	3	42,584	1,481
	전문대학	1	1,598	42
종량구	전문대학	1	8,566	170
성북구	대학	6	82,350	2,756
강북구	대학	-	3,138	79
도봉구	대학	1	6,459	201

13) 서울의 대학 전공계열별 충원율 등에 대한 상세 분석은 〈부록 II〉에 제시하였음.

자치구	유형	학교수	재적학생수	전임교원수
노원구	대학	5	41,905	1,202
	전문대학	1	8,163	153
은평구	대학	1	728	29
서대문구	대학	4	54,799	2,356
	전문대학	2	10,310	201
마포구	대학	2	28,735	757
강서구	대학	1	2,610	272
구로구	대학	2	3,726	109
	전문대학	1	9,568	165
동작구	대학	3	46,823	1,501
관악구	대학	1	20,743	1,224
서초구	대학	-	975	1,003
	교육대학	1	1,413	98
	전공대학		9,593	160
송파구	대학	1	2,959	122
서울 소재	제2캠퍼스	4	공식 대학정보공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연계 사업에 포함된 대학 수	
소계	대학	53	639,604	18,642

주: 1) 서울시 지원대학 대학 수는 54개교임. 다만, 2023년 기준 공식 통계 수치인 53개교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정석대학의 경우 서울소재 기술대학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학교로서 대학 재정 분석 및 분석에서는 제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서비스(2023). 대학통계 중 행정구역별 대학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

나. 권역별 대학 및 인구 특성 기반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서울시 각 지역은 인구 유입·유출, 외국인 등록 인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및 소외계층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교육 수요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밀집 지역(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직업 재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유출이 많은 지역(노원구, 중랑구)에서는 직업 재교육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평구, 강북구)에서는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고학력 실업자가 많은 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림 IV-15]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 대학교 수(2023)

- 주: 1) 서울시 지원 대상 대학 기준이며,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공식 대학 수는 일반대학 45개, 전문대학 9개임.
- 2) 대학정보공시(캠퍼스 포함) 기준으로 보면, '정석대학'의 경우 정보공시명단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 지원 대학명단에는 없는 반면, '한신대학'의 경우 정보공시명단에는 없으나 서울시 지원 대상 대학에는 존재함.
- 3) '정석대학'의 경우 서울소재 기술대학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시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대학 재정 분석 및 분석해서는 제외함.
- 4) 서울시 지원 대상 대학 가운데 '경기대학교'는 본교(경기도 소재)가 아닌 서울시 서대문구 캠퍼스를 표기함.

1)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위치한 도심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낮지만,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로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과 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접근성을 높여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동북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으로, 특히 노원구와 중랑구에서 두드러짐
- 이 지역은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재취업 교육과 직업 재교육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 지원으로 분석되며,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많은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등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직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북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은평구에서 특히 높으며,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청년층과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많은 지역임
- 이 지역은 저소득층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교육과 함께 외국인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보다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남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많이 거주지역임
- 특히 구로구와 금천구는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을 위한 직업 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
- 따라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서구와 관악구는 저소득층 중장년층 및 청년층을 위한 직업 재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낮지만, 고학력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임
- 또한, 이 지역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 지역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직업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고급 교육 과정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함

3. 서울 대학의 지자체 재정지원 및 협력사업 현황

- 대학재정알리미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결산 지자체 지원 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

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전체 대학 대비 약 17~21% 수준
 - 조사년도의 서울 소재 대학 수는 83개교로 전체 대학 수(413개 - 조사년도 중 폐교 제외)의 20%를 차지
 - 서울 소재 대학 재정지원액과 대학 수는 전체를 대비하여 볼 때 비슷한 비중을 보임
 -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증가 추세인데, 특히 2020년도부터 그 규모가 대폭 증가

〈표 Ⅳ-8〉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소재별 재정지원액(서울/전국)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대학 수
서울 소재 대학 재정지원액	85,758,543 (17.97%)	138,492,838 (20.12%)	112,978,951 (17.13%)	163,653,464 (21.79%)	83개교 (20.09%)
전체 대학 재정지원액	477,204,944	688,387,051	659,641,375	751,026,468	413개교

-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액 중 경상운영비 및 학자금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액은 전체 대비 평균 약 42% 수준

〈표 IV-9〉 서울 소재 대학의 사업별 재정지원액(일반지원/전체)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서울 소재 대학	일반사업 지원액	31,615,484 (36.87%)	69,957,079 (50.51%)	42,034,394 (37.21%)	69,605,296 (42.53%)
	학교당 지원액	380,909	842,856	506,438	839,618
	전체 지원액	85,758,543	138,492,838	112,978,951	163,653,464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지원사업 재정지원액을 서울 소재 대학 수로 단순 배분 시 대학별 약 8억4천만 원(2022년 기준)임

-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사업 재정지원액 중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단체 및 기관이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지원액의 평균 약 80% 수준
- 서울시의 일반지원사업 재정지원액을 대학 유형 구분 없이 서울 소재 대학 수만큼 단순 배분할 경우 학교당 지원액은 약 6억 7천만 원(2022년 기준)임

〈표 IV-10〉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액(서울/타 시·도)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서울 소재 대학	서울특별시 지원액	21,769,895 (68.86%)	61,268,945 (87.58%)	31,188,848 (74.20%)	55,240,896 (79.36%)
	학교당 지원액	262,288	738,180	375,769	665,553
	타 시·도 지원액	9,845,589	8,688,134	10,845,546	14,364,400
합계		31,615,484	69,957,079	42,034,394	69,605,296

- 서울 소재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 대비 학교 당 약 2배 수준으로 일반지원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받고 있음
 - 일반(4년제)대학은 앞서 유형의 구분 없이 대학 수로 단순 배분한 학교당 지원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2020년부터 매년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 서울 소재 21개 대학원대학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은 거의 전무함

〈표 Ⅳ-11〉 서울 소재 대학 유형별 서울특별시 재정지원액(일반지원)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서울 소재 대학	일반대학 (52개)	17,752,772	55,828,102	28,805,948	50,787,921
	학교당 지원액	341,399	1,073,617	553,961	976,691
	전문대학 (10개)	4,017,123	5,300,843	2,382,900	4,452,975
	학교당 지원액	401,712	530,084	238,290	445,298
	대학원대학 (21개)	0	140,000	0	0
	학교당 지원액	-	6,667/교	-	-
합계		21,769,895	61,268,945	31,188,848	55,240,896

나.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소재 대학과의 협력사업

- 조사년도별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 소재 대학 간 협력사업을 재정지원 규모 순으로 볼 때, 서울 대-시흥시 간 교육협력사업이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됨
- 대학연계시민대학(2019), 노원평생학습대학(2022), 고등직업교육거점지원사업(2022), 서울시 민대학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2022) 등 평생교육관련 협력사업이 일부 확인됨

〈표 IV-12〉 서울 소재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재정지원 규모 순)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1	서울대 / 시흥시 서울대학교협력사업 (2,450,000)	서울대 / 시흥시 서울대학교협력사업 (2,426,000)	서울대 / 시흥시 서울대학교협력사업 (3,078,018)	경대 서울캠퍼스 한양대/동원정 캠퍼스타운 조성 (4,487,094)
2	상명대 / 은평구 아이돌봄지원사업 (1,844,620)	경희대 등 10개대 / 경부청 경기꿈의대학운영 (895,506)	서울여대 /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365,000)	광대 상명대 연희대/노원정 캠퍼스타운 조성 (3,830,172)
3	한양대 / 성동구 아이돌봄지원사업 (1,558,162)	서울여대 /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24,000)	고려대 /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등록관리사업 (580,000)	한예중 / 서울교육청 협력종합예술활동 (3,545,345)
4	서일대 /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1,519,259)	고려대 /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등록관리사업 (580,000)	서울대 /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위탁운영 (360,000)	고려대 / 성북구청 캠퍼스타운 조성 (3,141,700)
5	경희대 /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1,171,506)	서울대 /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위탁운영 (360,000)	서울대 / 시흥시청 창업스타트패키지지원 (340,000)	서울대 / 시흥시 서울대학교협력사업 (2,877,500)
6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 경부청 경기도지역협력사업지원 (1,170,000)	한국외대 / 경기본청 경기도대학창업브리지 (355,000)	서울여대 / 양평구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15,000)	광운대 등 6개대 / 노원구청 평생학습대학, 역사문화대학, 여성아카데미, SW중심대학지원사업 (2,100,000)
7	케이씨대학 /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1,045,102)	한국폴리텍대 / 제주본청 기업수요맞춤형실무인재양성 (225,000)	연세대 / 인천본청 스마트시티 챌린지 (243,000)	서울대 / 관악구청 캠퍼스타운 조성 (2,020,520)
8	이화여대 / 서울본청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885,804)	서울대 /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200,000)	서울대 / 순창군청 고령대비거점원거점배치사업 (230,000)	한양대 / 성동구 아이돌봄지원사업 (1,909,932)
9	서울대 / 서울교육청 중등교장자력연수 (863,760)	성균관대 / 창원시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 (169,500)	서울과기대 / 원주시청 과학기술기반현안해결 (200,000)	상명대 / 용산구 아이돌봄지원사업 (1,795,500)
10	한양대 /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792,019)	한양대 / 남양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136,566)	서울대 / 부천시청 스마트시티 챌린지 (190,485)	건국대 / 광진구청 캠퍼스타운 조성 (1,790,000)
11	숙명여대 / 용산구 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 (755,000)	서울대 / 파주시 파주창의예술교육과정 (106,400)	한국폴리텍대 / 제주본청 기업수요맞춤형실무인재양성 (175,000)	서경대 / 성북구청 캠퍼스타운 조성 (1,790,000)
12	명지 상원보건 세일 안덕 / 서울교육청 전문대연계직업교육역량사업 (714,197)	동국대 / 고양시 선도연구센터 지원 (100,000)	한국병통대 / 제주본청 농업계학교실용농업인재양성 (157,000)	건국대 / 광진구청 캠퍼스타운 조성 (1,714,244)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13	동덕여대 /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26,000)	고려대 / 인천교육청 중등정교사자격연수 (76,580)	국대 백제 사대 / 충청교육청 정책연구용역 (156,400)	서울여대 / 남양주시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75,000)
14	서울여대 /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00,000)	고려대 / 경남교육청 교원자격연수 (76,110)	성균관대 / 수원시청 지역산업특성맞춤형인재양성지원 (155,000)	경대 성균관대 한대 / 경북청 경북지역특성맞춤형인재양성지원 (1,530,000)
15	사이버한국외대 /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00,000)	고려대 / 전북교육청 교원자격연수 (71,580)	고려대 서울대 / 인천교육청 중등정교사자격연수 (145,530)	건국대 등 14개대 / 서울시청 대학장학금지원센터 운영지원 (1,480,000)
16	건국대 등 27개대 / 서울본청 대학연계시민대학 (540,000)	고려대 / 부산교육청 교원자격연수 (70,980)	고려대 서울대 / 부산교육청 중등교원자격연수 (142,020)	광운대 / 서울시청 아동보호 분야 등 여성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1,366,633)
17	상명대 /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504,718)	서울대 / 의정부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69,042)	연세대 /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중단연구 (110,989)	국민대 / 서울교육청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1,3380,515)
18	고려대 / 성북구 건강가정지원 (410,438)	서울대 / 파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69,042)	동국대 / 고양시청 창업보육센터 지원 (105,667)	상명대 / 은평구청 아이돌봄지원사업 (1,234,851)
19	한양여대 /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00,000)	한양대 / 이천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68,966)	동국대 / 고양시청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100,000)	서울여대 / 노원구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45,000)
20	건국대 등 21개대 / 서울본청 중소기업신용평가 기술개발 (366,805)	중앙대 / 안성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68,890)	서울교대 서울대 / 인천교육청 매년형 학교급식비율조사사업 (84,000)	동양미래대 / 구로구청 캠퍼스타운 조성 (902,000)
69				동양미래대 / 구로구청 고등직업교육점주사업 (150,000)
72				고려대 등 5개대 / 서울시청 서울시민대학 대학특성화지원 (144,691)

제3절. 서울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1. 서울 평생교육 관련 부문별 목표와 전략: 2040 사회문화 부문 발전계획

가. 개요

- 서울시민 누구나 성별·연령·지역·인종·국적 등 개인을 구별하는 특성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호·보장받으며 누릴 수 있는 권익과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생활을 지원
- 이러한 도시환경이 보행일상권 내에 균등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생활권 단위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확대
- 생애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등에 대한 적합한 설계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표 IV-13〉 서울시 사회·문화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략	
6-1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 정착	6-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6-1-2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
6-2	모두의 동등한 생활을 위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	6-2-1	평등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6-2-2	모든 시민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 보장
		6-2-3	다양한 사회 구성원 존중 및 인정
6-3	시민의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6-3-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체계 정착
		6-3-2	생애발달단계와 생애전환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6-3-3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6-4	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4-1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돌봄 강화
		6-4-2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2023: 95).

나. 생애발달단계와 생애전환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와 같은 생애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
- 취업, 출산, 이직, 은퇴 등 생애전환기에 있는 시민이 생애단계 전환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
 - 실직·은퇴 등 진로 장벽에 부딪힌 중장년층의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점에서 제2의 진로설계와 개발을 지원
 - 전문적인 성인 진로개발을 위해 진로상담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

다. 권역별 대학연계 발전방향

- (동북권) 청년첨단 혁신축을 중심으로 신 산업거점을 육성하여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견인
 -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지식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연계
- (서북권) 대학교 밀집지역, 청년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과 주거지 관리
- (서남권) 권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축 육성
- (동남권) 천호·길동 지역중심, 자족기능 강화 및 청년문화 혁신거점 조성

2.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 전망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네 가지 목표 (지역문제 해결,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서울 열린대학 조성, 직업·평생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서울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가.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 서울의 권역별로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는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동북권의 경우 청년 첨단 혁신 축과 신산업 거점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와 혁신 산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중요
- 반면, 서북권은 대학교 밀집 지역이자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청년 주거 문제와 생활 편익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가 적합한 지역으로 분석
 - 동북권: 청년 혁신 창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홍릉 바이오의료허브와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및 혁신 산업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서북권: 청년 주거 및 생활 편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주거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 프로젝트 추진 가능
 - 서남권: 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므로 대학 연구성과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관악과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나.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 서울의 인구 구조는 연령대별로 각 권역에서 다르게 나타남. 특히, 송파구와 강서구는 중장년층 인구비율이 높아 직업 전환을 원하는 중장년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가 많을 수록 효과적임. 노원구 등 동북권은 대학 인프라와 함께 실습형 교육과 연계된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함

- 동남권(송파구, 강서구):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여 고용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마이크로디그리 발급을 통해 직무 향상 기회를 제공
- 동북권(노원구):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기반의 직업교육을 강화. 직업 전환과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과 협력해 개발

다. 서울열린대학 조성

- 서울의 지역별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인학습자에게 열린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각 권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학습자들이 직업적·개인적 성장을 도모함
- 동남권(강남, 송파): 고학력,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고급 교육과정을 제공. 인공지능, 빅데이터, 금융 등 첨단기술과 경제 관련 강좌 개발
- 동북권(노원구): 지역 내 대학의 연구 강점을 살린 과학 및 기술 강좌를 중심으로 학습 프로그램 제공. 성인학습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첨단 과학 강좌 개발
- 서북권(서대문구, 마포구): 문화와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강좌 개발할 수 있음. 문화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라.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대학연계 평생교육 지원

- 서울시 각 지역의 외국인 거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거주 패턴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인프라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됨
- 산업단지 및 경제활동 중심지
 -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는 외국인 노동자와 혼인 및 이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경제적 기회가 많고 산업단지가 발달한 지역임
 - 특히 구로구는 혼인 및 이민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들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나 장기 체류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많이 몰리는 특징을 보임

○ 교육 및 연수 중심지

-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는 외국인 유학생과 일반연수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많아 교육 및 학문적 목적의 외국인이 주로 거주함
- 동대문구는 특히 유학생과 연수 목적 외국인이 많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혼인 및 이민 외국인의 비율은 낮은 편임
- 광진구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외국인의 거주가 교육과 연수에 집중된 지역임

○ 전문직 활동 중심지

- 용산구와 강남구는 전문직 외국인 활동이 두드러진 지역임
- 용산구는 외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어 외교 관련 전문직 외국인의 비율이 높으며, 강남구는 비즈니스와 상업 활동이 활발해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징을 보임
- 이들 지역은 국제적 비즈니스와 외교 활동이 활발한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전문직 외국인의 비율이 높음

○ 영구 체류자

-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는 산업단지 및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영구 체류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동대문구와 광진구, 서대문구는 유학생이 많지만, 영구 체류자의 비율은 낮아 이 지역들이 교육 중심지임을 나타냄

○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외국인 거주 패턴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 따라서 서평원은 외국인 특성 기반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 제안

- 산업 단지와 경제활동 중심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은 교육 및 연수 목적의 외국인이 많음
- 또한, 국제 비즈니스 및 외교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전문직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음

마. 평생·직업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

-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 및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역별로 다름. 이로 인해 직업·평생교육 정보의 통합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플랫폼 구축: 서울 내 대학과 직업교육 기관의 교육 콘텐츠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성인 학습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맞춤형 학습 경로 제시: 지역별 교육 기회에 대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경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 구축. 1:1 상담을 통해 교육 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맞춤형 로드맵 구현.
 - 디지털 배지를 이용하여 학습성과 관리 및 동기 부여

V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 및 성과관리 방안

제1절.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

제2절.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 방안

제3절.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성과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V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 및 성과관리 방안

제1절.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현황

1. 서평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개요

가.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의미

- ‘서울시민대학’에는 대학 학점연계 프로그램, 명예시민학위제, 생애 진로 탐색 및 직무역량 교육과정, 미래-디지털 교육과정, 생애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서울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됨(’23년 기준)
- 그 중 대학 학점연계 프로그램이 서울시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년층 시민들의 생애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소재 여러 대학들과 서울시민대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에 해당(이하 ‘대학연계 시민대학’으로 칭함)

나.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특징

- 대학의 인프라 공유를 위한 MOU 체결에 기반한 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확산
 - 서울시민대학은 ’13년부터 ’23년까지 11년간, 서울소재 31개 대학과 MOU 체결
 -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통해 서울시민이 대학 캠퍼스에

서 인문학 중심의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으로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서울시민 및 서울시 생활권자와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성과 창출

〈표 V-1〉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실적

구분	'13~'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강좌 수(개)	1,206	168	50	144	174	139	1,881
참여 인원(명)	41,210	5,991	1,784	3,553	3,131	2,500	58,169

〈표 V-2〉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간 MOU 체결 현황

연도	대학명	대학수(개교)
2013	성공회대, 이화여대, 경희대	3
2014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6
2015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	5
2016	광운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한성대, 강서대	9
2017	국민대, 동덕여대, 명지대, 세종대, 총신대	5
2020	삼육대, 서울여대	2
2023	성신여대	1
계		31

2.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구성과 운영 실적

○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일반과정과 공모사업으로 구성

가.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

- ‘일반과정’은 서울소재 30개 대학과 협력하여 직업기초역량 및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 직업체험, 심리치료, AI 활용 등 중장년층 생애전환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음
-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 운영 실적
 -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의 양적 확대와 함께 참여자 만족도가 개선됨

〈표 V-3〉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 운영 실적

연도	시기(대학수)	강좌수	강의회차	참여인원(명)	수료율(%)	만족도(%)
2022	상반기(26)	35	350	450	83.6	89.8
	하반기(28)	63	515	872	74.3	98.5
	소계	98	865	1,322	77.5	94.2
2023	1학기(22)	30	238	527	70.2	97.6
	특별학기(6)	17	42	305	82.0	97.8
	2학기(26)	56	413	799	73.4	99.9
	소계	103	693	1,631	74.1	98.8

○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 제도 개선 사항

- 하계 계절학기 성격의 특별학기를 운영함으로써 대학연계 시민대학 구성의 체계성을 제고하였음
-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사업참여대학 확보를 위해 신규대학(인덕대, 배화여대, 삼육보건대)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학연계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음

나. 대학연계 시민대학 공모사업

- ‘공모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실무형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함
 - 나노디그리 발급 및 선행학습경험인정을 통해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연계를 추진함
- 대학연계 시민대학 공모사업 운영 실적
 - 공모를 통해 대학연계 직무역량 심화과정(단기)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장년 시민을 위한 실무중심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함
 - '22년에는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범 운영하고 '23년에는 ‘중장년 Career Jump Up’ 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22년에 5개 대학, '23년에는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함
 - '22~'23년, 2년간 11개 대학, 총 69개 강좌(483회)를 운영하였고 시민 1,655명이 참여함

〈표 V-4〉 대학연계 시민대학 공모사업 운영 실적

연도	참여대학 수	강좌수	강의회차	참여인원(명)	수료율(%)	만족도(%)
2022	5	33	206	786	74.5	91.6
2023	6	36	277	869	83.4	90.6

연도	2022년					2023년					
분야	저널리즘 콘텐츠 영상제작 영상문화	디자인씽킹 디지털제작 촬영스튜디오 마케팅	도시원예 드론촬영 드론제작·정비	메타버스 NTF 블록체인 가상자산	영유아 지원상담 디지털활용	농산업 비즈니스 발효·약용 트렌드	회계 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뉴미디어 드론 생애진로설계	공방창업 공예 청화장식	회계·세무 위험관리 금융투자	업무자동화 디지털마케팅
대학	 고려대	 덕성여대	 삼육보건대	 송실대	 충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그림 V-1] 대학별 특화 직업평생교육과정 개발·운영 현황

〈표 V-5〉 '23년 중장년 Career Jump Up 사업 운영 실적

유형	대학(기관)	사업명	강좌수 (회차)	시간	인원 (명)	수료율 (%)	만족도 (%)
특성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Green 미래 학교	4 (48)	96	137	80.3	90.0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장년을 위한 데이터 활용 Skill Up	6 (45)	90	143	81.1	91.2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4060 중장년 re-start 역량강화 프로그램	5 (22)	73	110	86.4	95.0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예공방 창업 아카데미	3 (60)	120	60	91.7	98.0
인증	동덕여자대학교 (미래인재융합대학)	Knowledge Jump Up! Wealth Jump Up!	12 (68)	136	201	80.6	92.0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서울 4050을 위한 MJ 디지털 커리어 업	6 (34)	68	218	85.8	86.0

〈표 V-6〉 '23년 나노디그리 과정 운영 실적

구분	나노디그리명	강좌명	강의시간	학점	인원
동덕여대	세무관리 전문가과정	스타트업회계전문가	30시간	2학점	11명
		세무관리전문가	30시간	2학점	
	파이낸셜 에셋 매니지먼트 과정	위험관리와 보험전문가	28시간	2학점	8명
		금융투자전문가	28시간	2학점	
명지대	부동산 업무자동화와 시장분석	GPT를 활용한 업무자동화와 부동산 시장분석	30시간	2학점	18명
	디지털마케팅	4050을 위한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30시간	2학점	13명
계					50명

○ 대학연계 시민대학 공모사업 제도 개선 사항

- 교육대상을 중장년으로 구체화하고 중장년 교육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일반과정은 직업기초과정, 공모사업은 전문화된 심화과정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중장년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단계별·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함
- 공모사업의 유형을 특성화형 및 인증형으로 세분화하여 총장 명의의 나노디그리가 발급되는 인증형을 운영하였고 인증형 과정을 이수한 성인학습자에 대해 대학 입학시 선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경험인정에 대한 인증형 대학의 학칙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함
- 대학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을 대학별 3,000만원에서 특성화형 5,000만원, 인증형 7,5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운영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제고함

3. 서울마이칼리지의 주요 내용

가. 개요

- '24년부터는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서울마이칼리지'로 사업을 개편하여 중장년 시민을 위한 직무역량향상 강좌 중심의 대학 공모사업으로 운영
- 서울마이칼리지는 챌린지업(Challenge Up)과 점프업(Jump Up)으로 구분됨
 -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은 기존의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의 질적 고도화 형태로서 신규 사업에 해당하고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은 기존의 대학연계 시민대학 공모사업의 연속 사업에 해당함
 - 챌린지업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현장실무교육과정(현장실습과정 포함)으로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대학연계 시민대학이 MOU 기반의 협력 사업으로 일반대학 중심의 직업기초·인문소양교육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2024년에 신규 운영된 챌린지업은 중장년 평생직업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임

- 점프업은 대학별 특성화분야의 단기집중 심화 교육으로 일반대가 참여하는 특성화형과 일반대와 전문대가 참여하여 마이크로디그리를 발급하고 선행학습경험인정제가 적용되는 인증형으로 구분되는 특성화전문 심화과정에 초점을 둔 사업임
- 2024년 현재 챌린지업은 9개 전문대학, 점프업은 8개 일반대학으로 총 17개 대학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전체 전문대학(9개교)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24.09.02)함으로써 대학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챌린지업 참여 대학(9개):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삼육보건대, 서일대, 서울여자간호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양여대
- 점프업 참여 대학(8개): 덕성여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덕대, 총신대(명지대, 성신여대, 인덕대 프로그램은 마이크로디그리를 발급하여 향후 해당 대학 진학 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

나.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Challenge Up)

1) 사업 개요

- (내용) 지·산·학 연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용 강좌 운영 및 관리, 진로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특강 및 참여 행사 제공
- (대상) 지속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정보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원하는 중장년 서울 시민
- (유형) 전문대학이 공모(컨소시엄)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엄형으로 운영(2개교 이상) → 거점대학 A(사업관리 주체), 참여대학 B, C(사업수행 주체)

〈표 V-7〉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대학 유형 구분

구분	거점대학(A)	참여대학(B)	참여대학(C)
사업관리	●		
사업수행	●	●	●
사업역할	통합홍보, 성과관리 유형별 사업수행	개별홍보 유형별 사업수행	개별홍보 유형별 사업수행

[거점대학]

-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으로 참여대학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 관리
 -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거점대학은 컨소시엄 내의 모든 활동을 코디네이션하고, 각 대학 간 협업 관리
 - 커뮤니케이션: 컨소시엄 내의 다른 대학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소시엄의 활동을 홍보함
- 사업관리주체로 거점대학과 참여대학 홍보 및 성과관리
 - 자원관리: 인력, 시설 등 자원관리
 - 성과평가: 거점대학은 컨소시엄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 계획을 수정하거나 개선함

[참여대학] 거점대학과 협업하여 공모사업 수행

- (지원) 컨소시엄당 3개 대학 내외(컨소시엄당 70,000천원 내외)
- (목표) 전문대학 3개 컨소시엄, 서울시민 540명 참여
- (예산) 220,300천원

〈표 V-8〉 서울마이컬리지 챌린지업 내용

구분	서울마이컬리지 챌린지업 공모사업
사업비	컨소시엄 사업비 70,000천원 내외
사업대상	지속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진로 정보와 탐색 기회를 원하는 중장년 서울시민
사업내용	지·산·학 연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용 강좌 운영 ※유형별 필수과정은 반드시 포함하되, 선택과정은 1개 이상 권고 ① 문제해결형 : 대학-기업-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 ② 내일도전형 :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주민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③ 재직자배움계속형 : 지역 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업스킬/리스킬 과정
운영방식	대면(오프라인),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병행 中 택
교육시간	최소 교육시간 120시간 이상 편성
교육인원	강좌별 15명 이상, 연인원 900명 이상
학습비	무료
교육장소	대학(기관)의 시설

2) 추진 배경

-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의 질적 고도화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지역 상생 중장년 진로탐색 신규 사업 추진
 - 중장년이 직면한 직업·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진로탐색의 필요성 증가
 - 중장년의 재교육 및 취업 정보 지원, 진로 탐색·설계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 추진
 -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은 중장년이 진로탐색부터 실·직무 체험까지, 지식과 산업의 교차점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경험을 넘어 변화의 발판을 제공

〈표 V-9〉 대학연계 시민대학과 서울마이칼리지 간의 차별화

구분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교육영역	인문교양교육	평생직업교육
대학유형	일반대학 중심	전문대학 중심
운영방식	강의형	실습형, 현장형

- 중장년을 위한 자산·학 연계 진로탐색 기회 확대와 거점대학 육성
 - 자산·학 연계 거점대학은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
 - 진로탐색 거점대학은 평생학습의 중요 플랫폼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

3)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역 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진로탐색 프로그램 기획·운영
- 전문대학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실무 경험 제공을 통해 참여자들의 진로탐색 기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유형별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 서울시민이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민의 주제별 접근이 수월한 실용, 실습 강좌 위주로 편성 차별화
- 대학 과정과 연계한 진로탐색 중심의 지역맞춤형 특강 지원
- 대학별 운영 이력과 현안에 따라 운영 목적과 방식의 다변화
-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통한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 각 대학의 교육 운영계획을 프로그램 북으로 제작·배포하여, 개인별 다양한 조합의 연간 수강 계획수립 지원
 - 개인별 요구에 맞는 교육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
 - 최다 이수 학습자 대상 포상 계획 마련

3) 유형별 교육내용: 필수과정 2유형, 선택과정 1유형

- (문제해결형) **필수** 지역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자산학 연계
 - 유사 과정: 지역사회 발전프로젝트, 지역문제 해결프로젝트
 - 운영 예시: (학)서일대 - (산)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중랑구 소상공인 앱서비스 교육
- (내일도전형) **필수** 대학-지역-기업이 연계하여 시민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
 - 유사 과정: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 운영 예시: (학)명지전문대 - (산)박준뷰티랩 - (지)서대문 뷰티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재직자배움계속형) **선택** 지역 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업스킬·리스킬 과정 운영
 - 유사 과정: 재직자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 운영 예시: (학)동양미래대 - (산)이오테크닉스 - (지)구로구 재직자 대상 기술 과정 운영

4) 운영 내용

- 교육과정 개발
- 전문대학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형·실무형 진로탐색·직무역량강화 과정

- 중장년이 취업·이직·전직·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맞춤 분야

○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과정별 특성에 따라 대학별 자체 참여자 모집 기준 마련,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

○ 교육과정 운영 및 실적 관리

- 예산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명한 교육과정 운영 및 보조금 집행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피드백 의견 반영
- 지속적인 참여자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중도 이탈 방지, 만족도 확보
- 사업 필수지표 및 대학 선택지표 충족을 위한 실적 관리

○ 학습자 지원체계 구축

-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담, 컨설팅 계획 수립
- 학습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운영 지원
- 수강생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학습자 등록을 통한 평생학습 이력 누적 관리
- 학습 운영 기준에 따른 이수자 수료증 발급

5) '24년 챌린지업 교육과정

- '24년 서울마이컬리지 챌린지업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현장실무교육과정 구성
 - 서울소재 9개 전문대학 전체가 참여
 - 총 3개의 컨소시엄이 3개의 사업(서울 라이프업, MBI컨소시엄과 함께하는 신중년 새로운 도전, 커뮤니티 정신건강 튜터양성)을 구성

〈표 V-10〉 '24년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교육과정 개요

대학(컨소시엄)	사업명	세부과정
삼육보건대학교	서울 라이프업 (Life up)	헬스케어전문가양성과정(근육강화, 건강스트레칭, 걷기운동과 명상 등), 신규 간병인 양성과정
서일대학교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1인가구 소셜쿠킹클래스(세계의가정식, 카페브런치메뉴 등)
한양여자대학교		독서지도사양성, 간병인 실무스킬업, 어린이집운영스킬업(보육교사 놀이전문성강화, 디지털리터러시기르기, 소통 등)
명지전문대학교	MBI컨소시엄과 함께하는 신중년 새로운 도전	드론항공촬영전문가과정
배화여자대학교		침선전문가과정
인덕대학교		주얼리메이킹자격증, 창작 장신구 전시회기획
동양미래대학교	커뮤니티 정신건강튜터 양성	식생활관리, 연극놀이, 소통을 통한 커뮤니티 정신건강증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6) 성과관리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평가 진행

〈표 V-11〉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내용 (70점)	사업목적	• 사업목적의 타당성	10
	사업운영	• 사업내용(홍보, 교육과정 구성 등) 적절성	20
		• 예산집행 계획의 구체성	10
	성과관리	•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지표 설정의 적절성	10
	기대효과	• 기대효과의 구체성(참여자, 지역사회의 변화 등)	20
수행역량 (30점)	조직역량	• 전담 조직(인력)의 사업 운영 역량	10
		•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10
	운영역량	• 성인학습자(시민) 대상 교육운영 실적('21~'22)	10
합계			100

- (컨설팅)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시행
 - 선정 대학 운영담당자 및 관계자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후, 대학별 1:1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수정
 -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현장 이해, 요구사항 분석, 애로사항 해결
-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현장 확인
 -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대학에 요구
 - 사업 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 한시 중단 및 사업비 조정
- 결과 평가
 -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는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업 평가 간담회 형태로 진행
 -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운영 성과 및 대학별 운영 내용 공유와 차년도 공모사업 운영 방안 제안 및 논의

다.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Jump Up)

1) 사업 개요

- (내용)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상) 중장년 서울시민(생활권자 포함)
- (유형) 특성화형 5개교(교당 4,000만원), 인증형 3개교(교당 6,000만원)
- (목표) 8개 대학, 서울시민 720명 참여
- (예산) 389,655천원

〈표 V-12〉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 유형별 내용

구분	[유형 1] 특성화형	[유형 2] 인증형
사업비	사업비 40,000천원 내외	사업비 60,000천원 내외
지원자격	서울시 소재 대학의 소속기관 (일반대학)	서울시 소재 대학의 소속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사제도	수료증 발급	인증서(Micro-Degree) 선행학습경험인정제(선수학점 인정)
운영방식	대면(오프라인)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병행 中 택
사업대상	40~60세 중장년 서울시민 (생활권자 포함)	
사업내용	1. 대학별 특화 교육분야 선정 1) 대학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2) 중장년이 실제 활동 가능 분야 (취업·이직·전직·창업 등) 선정 2.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하여 직무역량강화 과정 개발·운영	
교육시간	최소 교육시간 90시간 이상 편성	
교육인원	강좌별 15명 이상, 연인원 900명 이상	
학습비	무료	
교육장소	대학(기관)의 시설	

2) 운영 내용

○ 교육과정 개발

- 대학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형·실무형 직무역량강화 과정
- 중장년이 실제적으로 취업·이직·전직·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맞춤 분야

○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과정별 특성에 따라 대학별 자체 참여자 모집 기준 마련,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

○ 교육과정 운영 및 실적 관리

- 예산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명한 교육과정 운영 및 보조금 집행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피드백 의견 반영
- 지속적인 참여자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중도 이탈 방지, 만족도 확보
- 사업 필수지표 및 대학 선택지표 충족을 위한 실적 관리

○ 학습자 지원체계 구축

-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담, 컨설팅 계획 수립
- 학습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 지원
- 수강생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학습자 등록을 통한 평생학습 이력 누적 관리
- 학습 운영 기준에 따른 이수자 수료증 발급

○ 교육 인증, 학점 인정 등 대학연계 협력 모델 구체화

- [유형1] 특성화형의 경우, 대학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유형2] 인증형의 경우, 대학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를 발급하고, 학칙 개정 등을 통해 편입/대학원 입학에서 활용 가능한 선행학습경험인정제(선수학점 인정) 방안 마련
- [공통] 참여대학 공동 프로그램(특강 등) 추진 협조

3) '24년 점프업 교육과정

- '24년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 교육과정은 대학별 특성화분야의 단기집중 심화 교육과정으로 서울소재 일반대학 7개교와 전문대학 1개교가 참여하여 총 8개의 사업을 구성하였음

〈표 V-13〉 '24년 서울마이칼리지 점프 교육과정 개요

대학	사업명	세부과정
덕성여자대학교	식품 및 외식 종사자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외식경영솔루션, 메뉴개발과 포장패키지 실습, 스마트한 취업 및 창업, 푸드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외식트렌드 분석, 실무메뉴 개발 등
명지대학교	서울 시민을 위한 MJ 커리어 업 플러스	재개발, 재건축 제도의 이해, 데이터리터러시, 미술 심리치료, 생활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등

대학	사업명	세부과정
삼육대학교	중장년 웰빙 분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어 UP 아카데미	실버인지 활동지도사, 질환별 채식요리 교육강사 과정 등
서울시립대학교	중장년을 위한 세무·회계·데이터분석 Skill Up	데이터과학의 기초와 구현, 기업경영을 위한 회계, 중소기업자를 위한 세금에 대한 이해 등
서울여자대학교	Learn to share, 중장년을 위한 점프업 직업역량 전문가 과정	옛이야기 그림책 창작가, 아동전문가를 위한 감정코칭, 서울문화유산해설사, 문학치료 상담사 과정 등
성신여자대학교	중장년을 위한 공예공방 커리어 UP 아카데미	공방창업 특화 실무과정, 공예 창작교실 지도자 과정 등
인덕대학교	중장년 맞춤형 문화산업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어게인 마이 라이프	세계관광과 문화, 여행사 경영 및 실무, 항공예약발권, 메이크업, 두피모발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워싱 테크니션 전문가 양성과정 등
총신대학교	아동·노인 돌봄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중장년 Happy Life 캠퍼스	아동돌봄전문가 양성과정, 실버뇌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과정 등

4) 성과관리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평가 진행

〈표 V-14〉 서울마이컬리지 점프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유형1	유형2
사업 내용	사업목적	• 사업목적의 타당성	10	10
	사업운영	• 사업내용(홍보, 교육과정 구성 등) 적절성	25	20
		• 예산집행 계획의 구체성	10	10
	성과관리	•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지표 설정의 적절성	15	10
		• 마이크로디그리 및 선행학습경험인정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	10
	기대효과	• 기대효과의 구체성(참여자, 지역사회의 변화 등)	10	1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유형1	유형2
수행 역량	조직역량	• 전담 조직(인력)의 사업 운영 역량	15	15
		•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10	10
	운영역량	• 성인학습자(시민) 대상 교육운영 실적('21~'23)	5	5
합계			100	100

○ (컨설팅)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시행

- 선정 대학 운영담당자 및 관계자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후, 대학별 1:1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수정
-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현장 이해, 요구사항 분석, 애로사항 해결

○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현장 확인

-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대학에 요구
- 사업 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 한시 중단 및 사업비 조정

○ 결과 평가

-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는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업 평가 간담회 형태로 진행
-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운영 성과 및 대학별 운영 내용 공유와 차년도 공모사업 운영 방안 제안 및 논의

4. 종합 및 시사점

가. 서평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 및 추진 방향에 주는 시사점

- 그동안 서평원에서 운영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은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현행 사업의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역시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1)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고도화혁신 적극 대응 필요

- 그동안 서평원이 추진해 온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고도화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평원이 ‘대학 연계 평생교육 체계화를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MOU 체결을 통한 운영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확산 가속화
 -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으로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서울시민 및 서울시 생활권자와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성과 창출 매우 긍정적 평가
 -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의 양적 확대와 참여자 만족도 향상 지속적 추진
- 사업 구성에 대한 체계화소통 활성화 노력을 통한 사업 운영의 적절성 제고 강화
 - 일반과정은 직업기초과정, 공모사업은 전문화된 심화과정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중장년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단계별·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체계화
 - 교육수요자 및 대학 현장의 요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 제고
- 평생학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사업 고도화혁신 추진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를 시대적 요구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대전환 노력 추진
 - (프로그램) 교양·취미 중심 → 업스킬·리스킬링: ‘대학연계 시민대학 일반과정’의 질적 고도화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지역 상생 중장년 진로탐색 신규사업 추진
 - (학습연계) 학위취득 중심 → 학위-비학위 간 연계: 공모사업의 유형을 특성화형 및 인증형

으로 세분화하여 나노디그리가 발급되는 인증형 운영 및 과정 이수에 대한 선행학습경험인정 추진으로 학위-비학위 연계 모델 구축

2) 평생교육사업의 접근성·지원 확대를 위한 주도권 행사 필요

- 그동안 서평원이 추진해 온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접근성·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평원은 ‘광역 단위 거버넌스의 책무성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지역은 국고지원의 대학연계형 평생교육사업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LiFE)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하 HiVE)에 대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서울시민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적임
 - '23년 예산 기준으로 LINC사업의 수혜 규모는 488억원으로 LINC사업 전체 예산의 16.1% 규모이나 LiFE사업은 15억원으로 LiFE사업 전체 예산의 3% 수준이며 HiVE사업은 52억원으로 HiVE사업 전체 예산의 6.5% 수준임.
- 서울 소재 대학의 LiFE사업 참여도 및 지속성 저조
 - 특히 LiFE 1.0 참여대학 대다수가 2.0 사업에 미선정되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가 고도화형으로 전개되는데 한계가 있었고 명지대학교의 경우만 1.0에 이어 2.0 사업에도 선정되어 고도화형으로 진행하였음
 - LiFE 2.0 사업에서 광운대가 1유형(평생교육체제 구축형) 명지대가 2유형(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을 운영하고 있고 3유형(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서울 소재 참여대학이 없음
- 서울 소재 전문대학의 HiVE사업 참여 제한적
 - HiVE 사업의 경우 동양미래대('22년 선정)가 구로구와 'G밸리 기업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한양여대와 배화여대('23년 선정)가 각각 성동구, 종로구와 '디지털 직업 전환교육', '문화관광분야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HiVE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고려할 때 RISE 체제에서도 HiVE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잇는 사업이 필요함(한국대학신문, 23.09.21자)

〈표 V-15〉 서울시의 중앙정부 지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참여 현황

사업			선정규모		서울시 참여규모
LiFE	1.0		일반대	23	4(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전문대	7	-
			소계	30	4
	2.0	(1유형)평생교육체제 구축형	일반대	8	1(광운대)
			전문대	11	-
			소계	19	1
		(2유형)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	일반대	12	1(명지대)
			전문대	8	-
			소계	20	1
		(3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5		-
		소계	39		2
HiVE	(1유형) 기초지자체 연계형		45		3(동양미래대-구로구, 배화여대-종로구, 한양여대-성동구)
	(2유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5		-
	소계		50		3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지역의 시민 및 생활권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고지원 대학연계형 평생교육사업 구성에 준하는 특화분야 교육과정, 평생직업교육고도화, 지역현안 연계 등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사·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서울시 평생학습 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진흥원-자치구 간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자치구 정책현황 조사 공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전반의 평생교육정책 수준을 제고함
 - 자치구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자치구 평생학습 현황조사, 자치구 평생교육 집단 컨설팅, 자치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 「평생교육법」(2023.4.18., 일부개정)의 사·도평생교육진흥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평생교육법(기존)	평생교육법(2023.4.19., 일부개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1)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혁신 필요

- 서평원에서는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선정평가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결과평가’의 체계에 따라 성과관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음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컨설팅) 사업계획서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현장 확인
 - (결과평가)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업 평가 간담회 형태로 진행

- 그러나 정부지원사업의 성과관리는 서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정평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컨설팅뿐만 아니라 종합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및 조치, 우수성과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 노력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됨
-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차년도 계획 개선을 위한 연차평가 실시 중요
 - 일반적으로 성과관리의 핵심 과정은 연차평가로 볼 수 있음. 연차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연계하여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 성과관리체계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성과 관리 절차에 해당됨(남수경 외, 2021)

2) 다년도 사업 기반 성과관리 강화

- 다년도 사업으로 기획 운영하되 종합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 강화
- 사업비 지원과 연계한 종합평가의 실시와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 중요
 -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은 성과관리체계에서 필수적임. 이때, 성과 기반 인센티브 확대 전략 수립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다년도 사업 기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핵심·자율 성과지표의 지속적 관리 중요
 - 서울 RISE 체제에서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은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다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가 요구되고 다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 성과지표 구상 단계에서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한 핵심성과지표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과지표를 통해 지표 구성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함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구축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제2절.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 방안

1. 추진 배경

가.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운영을 둘러싼 외부요인 분석

1) 법·제도·정책 요인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평생교육사업 수립·추진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등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직업·평생교육사업의 지자체 이관
 - 지역 특성에 맞는 LiFE, HiVE 등 대학 기반의 평생교육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
 - RISE제 하에서 지자체와 대학간의 의견 조율, 사업 기획, 선정, 성과관리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 전문기관 필요
- 국내외 평생교육 관련 외부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 강조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체제 구축 필요
 - 교육공학의 발전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모든 성인학습자 대상 효율적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필요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관련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노하우(기존 시민대학 등 대학연계 평생교육 운영 경험)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안정적 조직체계와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 기반 대학과의 네트워크 형성	• 서울권 대학들의 평생교육사업 확대에 대한 관심 부족 • 학위과정 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인적·물적 인프라 등 대학간 여건 차이 상존 • 서울권 평생교육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의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서울시 거주 및 생활인구 기반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직업·평생교육 수요 충족 •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대학 협력체제 기반 평생교육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서울시 자체 평생교육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문제 해결 • 평생교육 사업 운영 조직으로서 전문성 증명(유사 기능의 서울시 타 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과 지속적 성과 창출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둘러싼 외부요인 변화 PEST 분석

분야	요인	시사점
정치 (Political)	• 지역별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 지역별 특색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습권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 (Economic)	• 인구구조 변화(학령기 인구 감소 등), 성인기 역량 중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직업·평생교육 분야 양질의 학습 제공 필요성 증대	• 양질의 평생학습 제공을 위한 기관간 협력 및 연계, 플랫폼 구축 • 시대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현황 및 수요 분석 기반의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가능
사회 (Social)	•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등 미래 불확실성 증가, 잦은 이직·전직 등으로 인해 재교육·향상교육 필요성 증대	•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재교육·향상교육을 위해, 직업·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및 학습자 편의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 제공
기술 (Technologic)	• AI 및 빅데이터, 비대면 기술 발전으로 직업·평생교육 분야 학습자의 학습권 제고 기대	• 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학습, 비대면 학습에 대한 수요 충족

나.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비전과 전망(안)

- 서울 RISE체제의 비전은 “대학과 함께 하는 글로벌 미래 혁신성장 도시 서울”(이하 내용은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2024.6.27. 행정1부시장방침)」에 따름)
 - 세부 목표로 1) 서울시 미래산업전략과 연계, 가치 창출 및 성장 선도, 2) 서울형 RISE 특화 사업으로 대학과 서울의 경쟁력 동반 강화, 3) 대학별 특화분야 육성과 성과기반 지원으로 대학의 자발적 혁신 유도 등 설정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1) 산학협력 R&D 혁신, 2) 미래산업 인재양성, 3) 대학 창업 활성화, 4)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4개 영역에 총 15개 사업으로 구성
-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서평원이 주관한다고 할 때, 담당 영역은 “지역사회 동반성장” 하에서 운영될 4개 사업으로 전망
 -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장년 직업교육 고도화, 서울 열린대학 조성, 직업·평생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분

다.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개선 방향

1)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주요 특징과 향후 평생교육사업과의 관계 설정

- 서울시민대학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평가
 - 서울의 3개 캠퍼스에서 인문교양 강좌 중심으로 매년 운영 중
 - 다만, 중장년 수요가 높은 직업 재교육 과정이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 소수의 캠퍼스(3개소)에서 운영됨에 따라 중장년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단편적인 서울시의 평생교육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학습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
- RISE 체제에서 기존 서울시민대학과 차별되는 평생교육사업의 운영 방향
 - RISE 계획에서의 평생교육은 서울 소재 20개 대학(서울열린대학 10개, 중장년 직업교육 10

개)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

- ① 기존 서울시민대학 보다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② 직업 재교육 등 실용적 강좌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
- 앞으로 서울시 RISE를 통해 대학의 단편적인 평생교육의 한계를 개선하여,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고려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게 지역 평생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2)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차별성

○ 향후 RISE 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방향성

- 기존 시민대학의 목적은 “시민 개인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과 함께 인문학 및 직무역량 관련 강좌를 중심으로 운영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목적은 “대학이 지역과 산업의 상생을 선도하고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음

○ 자산학 연계 지역사회문제해결 과제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도모

- “지역문제해결 중심 대학 운영”을 주요 단위과제로 추진하여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대학은 자치구, 산업체와 협력하여 돌봄, 환경, 문화 등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과제를 추진하며, 더불어 지역 시민의 역량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사회 공헌과 가치 실현

○ 지역·산업 맞춤형 대학 직업평생교육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장년 직업교육 혁신대학 육성”에서는 직업교육의 대상을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재직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경제 활동 시민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니즈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운영
- 특히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 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통해 대학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고,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산업기반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

3) RISE체제 하의 '서울형' 평생교육사업 기획의 기본 방향

-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식) 대학이 많은 만큼 사업 참여 과정에 관심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의 적극적 관심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함. 대학 간 나눠주기식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수인재 육성) 서울시 RISE체제의 기본 방향인 우수 인재 육성에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역시 이와 같은 방향성 유지하고 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
-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 서평원에 평생교육 전공자 전문인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 철학을 사업에 구현할 수 있도록 대학 자원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운영 중요
- (25개 자치구와 연계 협력하는 사업) 서평원이 주도하되 25개 기초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계 협력형 평생교육 운영
- (균형감과 형평성을 갖춘 사업) 각종 컨소시엄형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지역에 균형있는 평생교육사업 지원
- (재정지원 규모에 걸맞는 사업) RISE체제 하에서 단위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특강 기반의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 필요

4) 서울형 RISE체제 내에 담기는 전략과제간의 관계 설정

- 서울의 산업체, 미래산업, 창조산업 등과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과의 관계 설정 필요
 - 학부, 대학원 교육과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관계 설정
 - 대학의 전문성, 자율성을 지역과의 동반성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계 설정
- 서울 중장년들이 제2, 제3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대학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

- 서울의 경우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직업 준비 평생교육체제 구축에서 생활인구까지 포함시켜서 해결방안 고민 필요
- 서울시와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광역단위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중요한 문제
- 평생교육 수요자의 연령별 고민이 다르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분석 기반의 신규사업 발굴 및 체계화 필요

2. 서평원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

가.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

1) 국가 수준의 대학평생교육체제사업 및 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사업 운영 역량 함양

- 서평원은 LiFE, HIVE 사업에 준하는 국가수준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사업을 자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서울 평생교육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서울소재 일반대학 31개교, 전문대학 9개교(전체)와 MOU를 체결하고 전체 전문대를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의 비용 부담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옴
- 서평원과 대학과의 협력적인 관계가 탄탄히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 서평원의 사업운영 성과가 우수한 점은 RISE 체제에서 서평원 중심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재구조화에 있어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
- 대학유형에 따른 차별화 전략 적용의 필요성
 - 서평원 주도의 전문대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구축형 단계를 넘어 고도화·확산단계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지역연계의 측면에서 전문대 프로그램의 고도화 수준이 높은 점과 서울 RISE 체제에서 전문대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려의 필요성 제기(중앙일보, 2024.05.28.자) 등을 고려할 때 서울 RISE 체제에서도 전문대 독자형 사업 모델의 지속

적인 운영이 요구됨

- 일반대 프로그램의 경우 학위-인증형, Out-bound 교육·연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에 초점을 둘 필요 있음

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사업 구성 및 운영

- 다양한 사업 운영 모델의 적극적 활용 및 소통 기반 제도 개선으로 사업 만족도 제고의 효과를 도출해온 사업 구성 및 운영 방식을 RISE 체제에서도 유지 필요
 - 인증형 사업 운영과 선행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학위연계형 모델 운영, 컨소시엄형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운영 방식을 적용함
 - 다학기제 사업 운영 및 중장년 현장실무중심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재설계 등 사업 재구성의 과정에서 소통(수요, 요구)에 기반 한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함
- 사업 구성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의 필요
 - In-bound/Out-bound, 대상(연령, 정주여부), 내용(인문/직업전문), 문제해결(교육형/연구형), 형식(학위/비학위), 지원방식(단년도/다년도, 일반/특수목적), 참여형태(단독/컨소시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 교육대상과 내용의 스펙트럼 확장의 필요성: 24년 서평원의 사업이 교육대상은 중장년 중심, 교육내용은 직무역량향상 중심으로 재편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대도 중요하나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연령 스펙트럼과 기초소양과 전문성 제고를 아우르는 전문성 스펙트럼을 고려한 사업 설계가 필요함
 - RISE 체제에서는 RISE 평생교육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사업구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3) 서울 자치구 협력 기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 지자체 연계형의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지역과 해당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됨에 따라 서울은 국고지원사업으로 대학-지자체 연계 사업 참여 경험이 부족함

- 일반대, 전문대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구성하는 LiFE 3유형(광역지자체 연계형)이나 HiVE 유형 II(직업전환교육기관지정 운영 시범사업, DX-Academy) 참여 경험 부재
- DX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고려할 때, LiFE 3유형과 HiVE 유형 II를 서울 RISE 사업 구상에 반영이 필요함
- 특히 직업전환교육 지정·운영 시범사업(HiVE 2유형)은 신중장년 맞춤형 DX 교육 컨설팅, 지역 산업체 맞춤형 DX 교육의 측면에서 성과가 우수함(교육부, 2024)

※ 직업전환교육 지정·운영 시범사업(HiVE 2유형) 주요 성과 사례

- (부산과기대·부산경상대·부산여대-부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컨설팅 전문가 POOL 및 지원 조직 구성을 통하여 신중장년 수요 맞춤형 DX 교육·진로 컨설팅 지원
- (충북도립대·충청대·충북보건대-충북)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지역 산업체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및 다각적 분석(정량, 정성)을 바탕으로한 질 관리 계획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고

○ 기초수준에서는 평생교육영역에서 대학-지자체 연계 고도화 모델 존재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구로구, 성동구, 종로구와 같이 기초수준에서 HiVE 참여 경험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 및 동반성장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서평원의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사업에서 대학과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연계 사업(문제해결형, 내일도전형, 재직자배움계속형)을 운영하여 자산학 연계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 25개 자치구별 또는 5개 광역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으로 활성화

- 평생교육분야의 전문성과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사업 구성 및 운영 경험, 대학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서평원 중심으로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체제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자치구 협력 기반 대학연계평생교육사업의 고도화혁신과 서울시민의 교육 접근성·지원 확대 실현이 필요함

나. RISE 체제를 대비하는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과제

1)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 서평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체제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의 고도화·혁신과 접근성·지원 확대의 실현 필요
- 대학 연계 평생교육 체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서평원의 역할 강조
- 광역 단위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책무성과 리더십 강화

2)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고도화·확산 전략 적용

- 대학유형에 따른 차별화 전략 적용의 필요성
 - (일반대) 학위-인증형, Out-bound 교육·연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에 초점
 - (전문대) RISE 체제에서도 전문대 독자형 사업 모델 운영이 요구됨.
- 서울마이칼리지의 모델의 고도화·확산
 - 서울마이칼리지 2.0으로 서울형 DX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업전환교육의 고도화
- 서울형 LiFE 사업 운영으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고도화 및 확산
- 서울 리빙랩 사업 운영으로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의 고도화
 - 현 대학수준의 사업참여를 단과대학 수준에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사업 구성 및 운영

- In-bound/Out-bound, 대상(연령, 정주여부), 내용(인문/직업전문), 문제해결(교육형/연구형), 형식(학위/비학위), 지원방식(단년도/다년도, 일반/특수목적), 참여형태(단독/컨소시엄) 등 사업 구성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의 필요

4) 서울의 창업·혁신 거점 및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구성

- 서울 캠퍼스타운 모델의 확대적용 가능성(paradigm 전환)
 - 서울 캠퍼스타운 모델의 통한 대학-지역 연계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음. 창업·혁신 거점으로 서의 서울 캠퍼스타운 모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대학뿐만 아니라 캠퍼스타운을 성인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구성
- 서울 평생학습집중지구 도입 및 운영 가능성
 -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권역형 평생학습도시로 고도화

5) 인구구성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 구성

- 글로벌 배경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대한 대학연계 지원 모델 구축
 - 외국인 친화형 대학연계 평생직업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감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 및 지원 확대
 -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글로벌 메가 시티로서의 인적 구성을 적극 활용
- 소외계층(다문화가정, 장애인, 경계선지능인, 고령층, 북한이탈주민, 학교밖 청소년,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서울형 대학-지역 상생 모델 구성 및 적용
 - 부가가치형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소외계층 인구 구성 높은 지역과 연계한 사업 참여에 대해 선정단계 포함 성과평가에 반영
- 중등직업교육 연계형 사업 구성 및 적용

3.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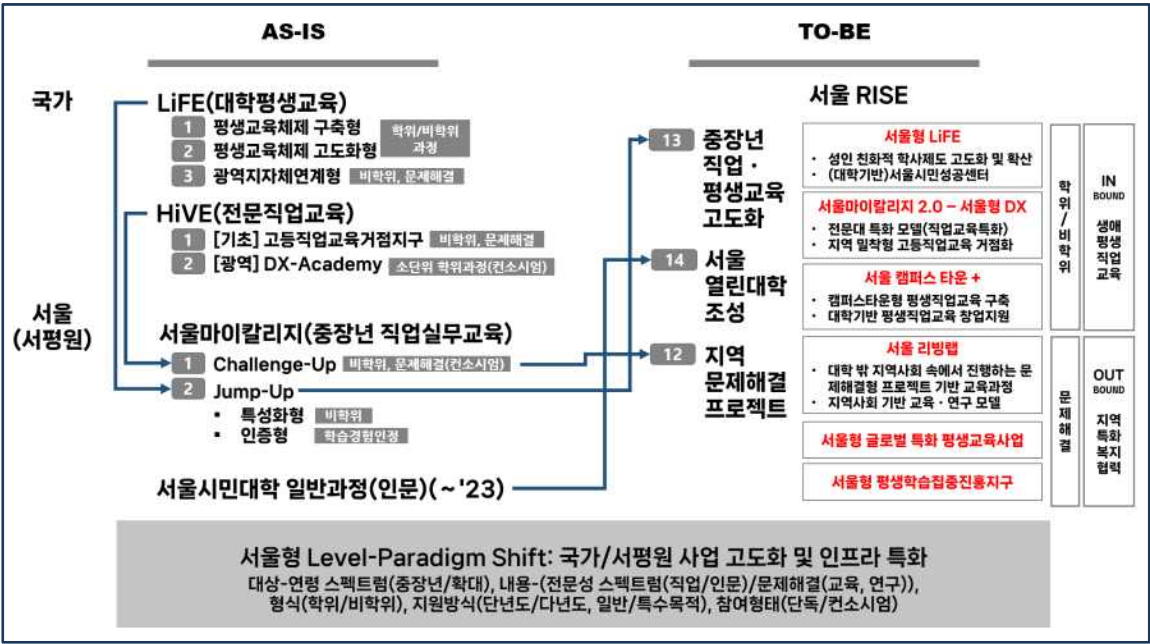
가. 개요

- 비전: 서울형 대학 평생교육 기반 서울-대학의 동반성장
 - － 서울형 전 생애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기반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 목표: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체계를 통한 서울시민의 생애기반 평생직업역량 함양과 복지혜택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맞춤형 서울시민 성공지원



[그림 V-2]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추진전략: 서울형 Level-Paradigm Shift - 국가/서평원 사업의 고도화 및 인프라 특화
 -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설계
 - 서울의 지역 특성, 인구 특성,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특성, 대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사업 설계
 - 국가수준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서평원 우수사업을 고도화 · 확산하고 life-long 관점에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설계
- 사업 재구조화의 기본방향과 RISE 체제를 대비하는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과제에 근거하여 서울 RISE 체제의 지역사회 동반성장 과제와 함께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그림 V-3]에 ‘서울 RISE’로 제시하였음



[그림 V-3]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재구조화 기본 틀

- ‘서울 RISE’에서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은 ‘In-bound형’, 즉 대학 안으로 지역주민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Out-bound형’, 즉 대학 밖 지역사회 속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In-bound형’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중심의 학위/비학위과정 프로그램과 대학의 취·창업 인프라 활용 중심의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
 - 해당 사업으로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고도화 모델로서 서울형 LiFE 사업, HiVE DX-Academy를 서울 마이칼리지에 적용하여 전문대학에 특화된 서울형 DX를 구현하는 모델로서 서울마이칼리지 2.0사업, 대학기반의 평생직업교육 창업지원 모델로서 서울 캠퍼스 타운 플러스사업 등이 포함
- ‘Out-bound형’ 프로그램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이해, 문제해결 등 PBL,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활용 강좌를 확대하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지역사회 기반 연구 프로그램’으로 구분
 -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교육·연구 모델로서 서울 Living-lab 사업과 서울형 글로벌 특화 평생 교육사업, 서울형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 등이 포함

나. 사업내용

1) 서울형 LiFE

☑ 배경

- LiFE 사업은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사운영 모델을 도입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증가, 성인친화적 학사운영, 실무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과를 도출하였음
- 서평원은 대학특성화지원사업(‘22년), 중장년 커리어 점프업(‘23), 서울마이칼리지 점프업(‘24)을 구성 및 운영하여 서울소재 일반대, 전문대에서 대학의 특성화전문 심화과정을 비학위과정과 학위연계 인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 그러나 LiFE 사업은 그간 대학 내 평생교육 운영체제 구축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채재은(2022)는 LiFE 사업에서 지역성장 및 혁신을 위한 사업요소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사업단 중심으로 학사제도 및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고 대학교육 전반의 혁신 유도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정표(2022)역시 성인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경직화된 학사제도 운영,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 및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의 질 관리 미비,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배타성,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로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의지 및 동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서울형 LiFE에서는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의 고도화 및 확산에 초점을 두고 사업 발굴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LiFE 3유형(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서울에서 진행된 바 없는 사업유형에 해당함. RISE 체계가 LiFE 3유형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LiFE 1유형(평생교육체제 구축형)과 2유형(고도화형) 뿐만 아니라 3유형에 대한 도입 및 운영이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지역의 수요가 반영되고 서울 성인학습자 친화화적인 학사운영 모델에 대한 발굴이 요구됨

☑ 내용

〈표 V-16〉 서울형 LiFE사업의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학과 등 설치	• 서울의 수요를 반영한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학부/학과 필수 신설(기 운영 중인 단과대학/학부/학과의 단순 정원 증원은 불가) 예)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 성인학습자와 학령기 학생의 구분 없는 평생교육 특화 대학 육성 - 학내 총괄 관리체계 구축하고 전담 운영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학사제도	• 학습경험인정제 도입·활용, 서울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도입·활용 - 학칙에 학습경험인정제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
학습자 지원	• 서울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성인학습자 전담 학습지원센터-서울시민성공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 교육설계, 진로 매칭, 학교 적응, 경력·이력관리, 학사관리, 학습경험 인정 등 지원
교육과정 (비교과 포함)	• 서울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 대학의 강점을 활용하여 성인맞춤형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을 개설. 예) (일반대) 석박사 연계 고급역량 기반 비학위 과정, (전문대) 실용학문 기반 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대학 평생교육 빅데이터 구축	•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계획, 평가·환류 결과 등을 공개하고 성인학습자의 경로·수요 데이터 추적 및 제공

☑ 운영

- 신청요건
 - 지자체 연계 사업을 위한 비전 설정 및 평생학습 혁신 주체간 협약
 - 성인 전담 과정 운영모델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 선정: 서울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구축에의 의지가 높고 역량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선정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의 대학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기간을 다년도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에 기반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형 대학평생교육체제를 지원함

☑ 성과관리

- 성과기반 관리: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급, 성과미달 컨소시엄에 대한 집중 컨설팅, 종합평가 결과를 차기 선정평가에 반영
- 성과지표 구성
 - 지자체-대학 거버넌스 구축 협업 실적
 - 서울 특화 산업 분야 성인학습자 과정 운영 실적
 - 서울에서 활용 가능한 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배출 인력 활용 계획 및 실적
- 우수성과 확산: 성과포럼(성과공유회)를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

2) 서울마이칼리지 2.0 – 서울형 DX

☑ 배경

-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중 1유형 모델은 동양미래대, 배화여대, 한양여대에서 지역 특화분야에 맞추어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평원은 서울마이칼리지 챌린지업 사업을 구성 및 운영하여 서울소재 전체 전문대학이 핵심분야에 대해 주관 및 참여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용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HiVE 2유형, 즉 전문대학이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은 HiVE 사업 성과포럼에서 RISE 체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우수한 사업모델로 소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진행한 바 없는 상황임. 이에 서울 RISE 체제에서 서울형 DX 사업 발굴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음

☑ 내용

〈표 V-17〉 서울마이칼리지 2.0(서울형 DX)의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전문대학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준별 DX역량 교육과정(DX 리더터치-DX 기초역량 - DX 전문역량) 및 지역 산업체 수요 맞춤형 재직자 DX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신중장년의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역할 수행을 지원
공통	• DX 직업전환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 특화산업 선정
성인친화적 DX 직업전환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DX 교육과정에 대한 성인 친화형 학사제도 도입, 학습자 맞춤형 DX 컨설팅 제공, 지역 산업체 맞춤형 DX 교육지원
지역 산업체 맞춤형 DX 교육 지원	• 전문대학은 D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취업을 우대

☑ 운영

- 다년도 사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에 기반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주체별 역할과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성 및 운영

☑ 성과관리

- 성과기반 관리: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급, 성과미달 컨소시엄에 대한 집중 컨설팅, 종합평가 결과를 차기 선정평가에 반영
- 성과지표 구성
 - (핵심성과지표) DX 교육과정 운영 성과(교육과정 이수율, 소단위 학위과정 취득률), DX 교육 진로 성과(교육 이수자 취창업률, 직무 전환 추진률), DX-Academy 만족도
 - (자율성과지표) DX-Academy 맞춤형 지표 구성
- 우수성과 확산: 성과포럼(성과공유회)를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

3) 서울 캠퍼스 타운 +

☑ 배경

- 서울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업역량 자원이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자원 공유의 대상을 학령기를 넘어 평생학습대상자로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2017년부터 진행된 서울캠퍼스타운은 대학창업의 허브로서 2024년 현재 서울 소재 27개 대학에서 연1,000팀의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딥테크(AI·로봇·바이오 등)와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서울캠퍼스타운은 서울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학연계 산학협력 모델로서 다년간 구축된 서울시의 전문적인 창업 육성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
-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이 혁신 창업가 육성의 산실로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메카로 자리매김함에 있어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과 서울시의 상생의 가치 실현

☑ 내용

〈표 V-18〉 서울 캠퍼스 타운+의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성인학습자 대상 창업 친화적 학위과정 및 학사제도 운영	• 대학별 특화 미래산업 분야 학과에 창업 커리큘럼을 접목한 창업·비즈니스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최소 단위 단기교육과정으로 창업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과정(12학점 내외) 운영 • 성인학습자가 창업생태계 진입이 용이하도록 실무 특화과정 개발 운영
캠퍼스타운 사업을 일반청년 중심에서 중장년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대 편성	• 산학연 기술 혁신대학 등 RISE 과제로 육성하는 창업기업을 캠퍼스타운에서 통합 관리 • 딥테크, 문화융합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창업기업 집중 육성의 대상을 청년에서 중장년까지 확대 • 대학의 보유자원 및 강점을 고려한 대학별 창업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대학은 창업기업 사업회를 지원하며 서평원은 사업운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공 - 경희대 바이오헬스, 서울대 딥테크, 성균관대 문화테크, 숭실대 AI •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대학 간 연계 공동 창업 지원 - 캠퍼스타운 멤버십을 도입하여 대학의 특화장비를 공유하고 창업 우수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대학의 혁신성장공간을 서울시민과 공유함 • 대학 캠퍼스 인근 지역 상권의 공간 융합형 조성으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창업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로컬 브랜드 사업 활성화

☑ 운영

- 기존의 서울캠퍼스타운 운영 모델을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확대·재편
- 지역의 특성과 대학 특화 분야간 연계를 고려하여 단독형 및 컨소시엄형으로 참여
- 대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서평원의 지원 기능 및 역할 강화

☑ 성과관리

- 창업지원체계 구축 실적: 제도 개선 실적, 창업지원체계 활용자수
- 창업친화적 소단위 학위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
- 취창업 실적

4) 서울 리빙랩

☑ 배경

- 리빙랩은 다른 지역혁신 모델과는 달리 ICT 기반의 협력, 개방형 혁신, 사용자(시민, 공동체 참여, 민간 파트너십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문제 해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함(성지은 외, 2016). 혁신주체로서 대학의 활동에 지역주민·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학은 지역주민의 활동 패턴, 지식 역량을 탐색하고 지역 맥락에 맞게 혁신 제품·서비스 및 혁신모델을 변화시킴.
- 리빙랩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임.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LINC+, LINC3.0)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한 바 있음(박인우 외, 2020).
- 이러한 서울지역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outbound형'으로 리빙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대학의 학생과 연구자의 현장중심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동사업의 기대효과가 존재함

☑ 내용

〈표 V-19〉 서울 리빙랩의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직접 지역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행·재정적 지원 및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리빙랩 운영 • 지역사회의 문제를 대학이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학생 참여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 및 사회혁신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지역사회 공헌 및 봉사활동, 현장실천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개설 및 운영 - 예) 중앙대학교 학습자 경험 중심 비교과 교육과정(LEAP)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늘어나는 동작구 길거리 쓰레기 문제해결’)
	전공교육과정	• 전공교육과정에서도 체험형 교과목,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등으로 교과목을 개발하여 현장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사회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 가능 - 예) 이화여대 도전학기제-사회문제해결형 모델, 건국대 집중이수제-나노랩
지역 R&D	대학의 지역현안 연구 지원	• 대학원이나 대학의 중점 연구소 중심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R&D를 지원. 대학원 수준에서는 기술, 정책, 기업, 지식 분야의 리빙랩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끄는 데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 - 예) 성대골 리빙랩은 서울 동작구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전략 수립을 위해 주민과 서울시,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기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R&D의 전문성이 주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이러한 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 리빙랩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운영

○ Out-bound형(대학 밖 지역사회 속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유형 1(지식사회 기반교육)과 유형2(지역사회 기반연구)로 유형이 구분됨

- 유형 1(지역사회 기반 교육)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이해, 문제해결 등 현장연계 실습형 PBL,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의 확대(예, 캡스톤 디자인 수업, 교육실습 등)

- 유형 2(지역사회 기반 연구)

-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 리빙랩 사업은 사업의 주제에 따라 대학 단독형 및 대학 간 컨소시엄형으로 운영

- 유형 1의 경우 일반대, 전문대가 단독 및 컨소시엄으로 참여
- 유형 2의 경우 일반대 중심으로 단독 및 컨소시엄으로 참여

☑ 성과관리

○ 리빙랩 개발 및 운영 실적

- 리빙랩 개발, 개설 및 운영수, 리빙랩 이수율, 리빙랩 참여자 만족도

○ 리빙랩 결과에 대한 지역시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 지역사회 공헌: 대학-지역사회 협력, R&D와 지역상생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지역사회 협의체 수, 대학-지역사회 프로그램 수, 대학-지역사회 공동연구 수
- 사회가치 창출형 제품·서비스 개발 등 솔루션 실적

5) 서울형 글로벌 특화 평생교육사업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팬데믹 이후 서울의 외국인 유입 회복세

- 2010~2024년까지의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의 변화 추이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지속적 증가 추이를 보인 후 코로나 시기 급감하였다가 2022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외국인 거주 현황은 다섯 개 권역별로 각각 구분되는 특징을 나타냄
 - 도심권: 주로 경영, 연구, 공적 업무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다수
 - 동북권: 고려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이 위치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편으로서, 2024년에는 팬데

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증가 추세로 전환

- 서북권: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위치한 교육 중심지로, 팬데믹 동안 큰 감소를 겪었으나 외국인 거주자 수가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 서남권: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서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음
- 동남권: 교육 인프라가 발달하여 팬데믹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외국인 거주자 수를 유지

〈표 V-20〉 서울특별시 권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2019~2024)

지역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도심권	38,019	39,667	34,771	35,057	38,328	36,870
동북권	67,631	67,938	56,685	57,037	66,109	70,978
서북권	28,737	29,239	24,136	25,261	28,396	29,887
서남권	131,955	124,791	97,890	92,440	91,884	95,013
동남권	20,440	20,511	18,149	18,066	18,910	19,982
계	286,782	282,146	231,631	227,861	243,627	252,730

자료: 법무부(2023). 연령대별 인구수를 이용하여 작성.

○ 글로벌 도시로의 비전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주민대상 마스터플랜 수립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는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 핵심과제는 4대 분야, 총 20개로 ①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으로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초빙하고 글로벌 기업과 테크 유니온을 포함한 기업 유치하여 첨단 분야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②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으로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및 K-뷰티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예정임. ③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출산과 돌봄 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활동비의 지원과 다문화 통합형 어린이집 확대 등이 포함됨. ④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함



[그림 V-4]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24.5.20)

○ 다양한 외국인 주민 대상 서비스 운영 중

- 2008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을 개소하면서 “서울외국인포털”로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의 도시 정착과 역량 계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취창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서울글로벌센터, 내외국인 교류활동과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주민 자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등, 타겟팅 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표 V-2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상 지원서비스

제공주체	주요 사업
서울글로벌센터 (2008년 개소, 도시혁신그룹무브먼트 및 하이퍼다이버시티 공동위탁)	- 취·창업 투자관련 체류자격(비자) 발급 지원 - 외국인 주민 생활상담 제공(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 기술창업 및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 창업이민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 사회 통합프로그램(법무부 연계 외국인 한국생활 적응과 자립, 정주여건 향상) 교육 제공
서울외국인주민센터 (2014년 설립, 이주민센터 친구 위탁운영)	- 출입국, 노무, 보건 및 복지, 주거, 행정, 가족, 교육, 안전 등 일상생활 고충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 전문 상담(법률, 노무 상담) - 심리 상담(1:1, 7주간 총 5회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 생활한국어(기초·중급·고급, 말하기, 한국어능력시험 대비)·컴퓨터 교실(기초, 엑셀, 파워포인트) - 시민역량강화교육(정주여건 개선교육, 체류, 세무, 노무, 금융, 취업 등) - 미디어교육(디지털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교류 기회 제공) - 안전교육(사고 및 재난, 응급상황 관련 대응 정보 및 교육) -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 한국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 내외국인주민 문화동반자 교실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 외국인주민 포털 운영 - 자원봉사단 운영 - 생활정보 다국어 번역, 생활정보 제공 및 번역 - 지원기관 간담회 운영
글로벌빌리지센터 (2008년 설립, 강남, 금천, 서래, 성북, 연남, 이촌, 이태원에 센터 개소)	- 회화 봉사활동, 배식 봉사활동, 환경봉사활동 - 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건강 교육프로그램(무용, 필라테스, 명상) 운영 - 한국어대화 모임 및 외국인커뮤니티 활동 지원 - 한국어교육 - 다국어 종합상담 서비스 - 문화체험 및 스포츠 행사
외국인노동자센터 (2008년 설립, 강남,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에 센터 개소)	- 교육지원사업(한국어교실, 토픽교실, 교육아카데미 등) - 상담지원사업(생활, 노무, 가족, 통·번역 상담) - 커뮤니티 지원(국가별 자조모임, 수공예교실, 안전보건 교육 등 정서적 지지망 형성) - 지역사회조직 사업(외국인협의체, 의료지원, 홍보활동) - 문화지원 사업(관광명소 탐방 및 문화체험) - 인권문화 다양성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2015년 설립, 스마트교육재단 운영)	- 교육지원사업(한국어교실, 검정고시대비반, 방과후 학습멘토링) - 상담사업(다국어상담서비스,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관계 형성 프로그램, 청소년 소통회의) - 문화교류사업(문화예술 동아리, 또래관계 증진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이주여성상담센터 (2013년 설립, 이주여성인권센터 위탁 운영)	- 다국어 상담사업(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일본어, 인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21개국 서비스) - 전문심리상담 지원 - 법률, 의료, 위기 지원 사업

○ 외국인 주민대상 대학기반 미래지향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청

- 이와 같이 외국인주민대상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상담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사업의 경우 한국어 중심의 강좌들이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1) 대학을 기반으로 교육의 수월성 제고 및 인증체제 강화, (2) 첨단기술 및 미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가 요청됨

● 사례: 핀란드 에스푸시 대학 평생교육 협력체제

- 헬싱키 수도권에 위치한 에스푸(Espoo)시는 핀란드의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20.1%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임.
- 핀란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20개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지자체-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결합한 협력 모델을 구축
- 다양한 자산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의 연구·교육기능, 특히 창업과 관련된 기능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사례: 독일의 Integrationskurs(이민자 사회적응 통합교육)

- 독일 이민자 및 난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통합교육과정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함께, 독일의 법체계, 역사, 문화 및 가치관에 대한 시민교육도 병행(일부 이민자에게 의무 이수 부과)
- Berufsausbildung(직업훈련 인증)을 통해 대학 학위와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특히 IT, 경영, 보건 분야에서는 인턴십과 함께 이수할 수 있는 듀얼 교육 시스템)
- 이민자 통합교육 이수 후에는 취업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추진방향

- 비전: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특화 서울평생교육
- 목표: 지자체 연계 대학 평생교육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고도화
- 추진전략
 - 언어 및 문화 공유를 넘어서 미래형 직업역량 계발을 통합한 업스킬
 - 대학의 인프라 및 자원을 개방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 지자체 및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동

☑ 주요 추진과제

- 대학연계 외국인대상 프로그램 고도화
 - 언어+직무역량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첨단기술 분야 인재육성 평생교육 마이크로디그리 개발 및 운영
- 대학의 외국인주민 접근성 강화
 - 중등교육 프로그램 및 비정규 프로그램 이수자의 선발 확대
 - 다국어기반 강좌 개설 및 홍보
- 외국인주민 대상 지원기관의 협력체계 연동
 - 서울시 권역별 외국인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대학평생교육 특성화
 - 지자체 외국인지원체계와의 연동성 강화(콘소시엄 구성)



[그림 V-5] 글로벌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안)

☑ 선정 및 평가 계획

- (사업명) 글로벌 서울 평생교육 지원사업(SELIE-GT: **S**eoul **L**ifelong **E**ducation for **G**lobal **T**alent at University)
- (사업 기간) 3년(2+1, 2년 단계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주요 수행 내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평생교육에 외국인주민대상 접근성을 강화하고 직무역량, 미래첨단산업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추진
- (선정 기준)
 - 지역특성 및 대학 특성화의 관련성
 - 외국인대상 프로그램의 체계성
 - 실무형 프로그램으로의 적합성
 - 외국인대상 학습지원체계의 합리성
 - 지자체 및 외국인지원기관과의 연계성
- (사업 유형 및 지원 규모)
 - (유형1) 미래형 외국인대상 평생교육: 권역별 1개 콘소시엄(교당 5억 내외, 총 25억원)
 - (유형2) 친화형 외국인대상 평생교육: 총 8개 콘소시엄 (교당 3억 내외, 총 25억원)
 - * 교당 지원예산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학의 사업유형, 외국인주민대상 모집규모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핵심성과지표)
 - (유형1) 미래형 외국인대상 평생교육: 마이크로디그리 개설수, 외국인 이수자 취(창)업율
 - (유형2) 친화형 외국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강좌수, 외국인 이수자 증감율

6) 서울형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 배경

-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및 특성화 사업과 같은 지역평생교육 사업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이 광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어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평생학습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광역 중심의 평생학습 진흥체계의 필요성 대두
- 지역 평생교육사업의 종합적 연계·집중 지원으로 자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하며 지역 현안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 마련
- 서울은 이미 서평원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의 Hub이자 전담기구로서 광역수준에서 요구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계 및 운영하는데 서평원의 역할이 요구됨

☑ 내용

〈표 V-22〉 서울형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이 직업 및 인문사회 영역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함
유형	기반조성형	- 시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실생활에 도움되는 교육을 촘촘하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촉진 - 청소년(진로, 적성교육)→청년(자산설계, 결혼, 육아)→중장년(기업체 맞춤형 기술교육)→노년(시니어 건강 프로그램)
	스마트시민 육성형	- 서울 현안이슈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회혁신 플랫폼을 구성하고 시민역량을 향상 - 대학과 서평원이 지역 해결 이슈 발굴하면,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퍼실리테이터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나 워크샵 형식으로 솔루션을 제시
	지역문제 해결형	- 서울의 지역특성 및 인구구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 내 문제에 대한 완화 해소 - 교육공동체 조성형, 창업가 육성형, 선배시민 활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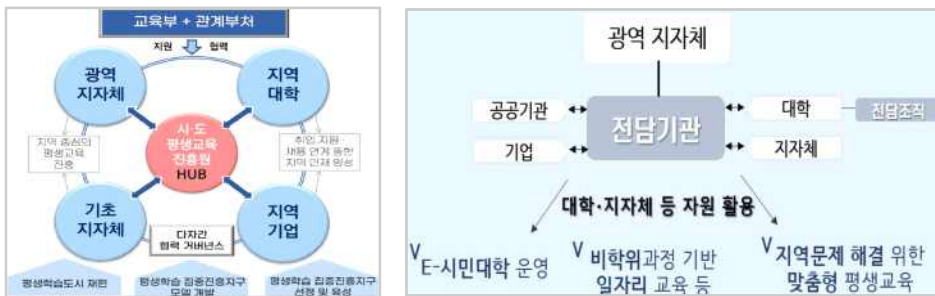
☑ 운영

○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 1유형(대학 간 연계형) :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수행
- 2유형(대학 외부 연계형) : 대학과 대학 밖의 자원(지자체 평생교육기관이나 기업 등)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운영

○ 사업전담조직

- 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서울시에는 서평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학은 서평원과 연계하여 대학 내 진흥지구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지정



[그림 V-6]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운영체계

☑ 성과관리

○ 핵심성과지표

- 서울형 평생학습 집중지구 구축(전담조직-시도, 대학)
- 교육과정 개발, 개설 및 운영 실적, 교육과정 이수율, 참여자 만족도

○ 자율성과지표

- 교육과정을 통한 서울시민의 역량 향상도
-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건수
- 교육과정을 통한 (취·창업)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제3절.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성과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1.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방안

가. RISE체계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확장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화

- 신규사업의 차별성과 성과목표 명료화가 무엇보다 선행과제
 -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당국의 재정지원 안정성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성과에 대한 확인과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체제 수립
- 서평원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지자체에서의 기초단위 평생교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 구축 중요
- 서울시 RISE 비전체계도 상의 성과지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 서평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결국 대학에서 운영하여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대학에 유인자가 되는 방식, 대학의 교육활동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확인 필요
-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선정·중간 모니터링·성과평가 및 결과활용 구체화 필요
 - 대학의 사업 참여 유인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는 사업 기획 필요
 - 사업 선정 관련 기준 구체적으로 제시 중요
 - 사업 운영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평원과 대학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
 - 우수사례 공유 등 성과포럼 등을 통해서 대학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

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별 맞춤형 성과지표 관리

-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서울 열린대학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통 성과지표와 선택성과지표,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성과관리 고도화 추진

1) 핵심공통 성과지표와 사업별 성과지표

- 핵심공통 성과지표: 과정 및 산출형 성과지표로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 교육과정 이수율, 참여자 만족도” 등을 핵심적인 공통성과지표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별 성과지표: 세 개 사업별로 각각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대표 성과지표(안):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실적,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
 -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대표 성과지표(안): 마이크로/나노디그리, RPL 실적, 취업 연계율, 학습자 지원 실적
 - 서울 열린대학 조성 대표 성과지표(안): 교육과정 이수 실적, 학습자 지원 실적

〈표 V-23〉 사업 맞춤형 성과지표 예시

구분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서울 열린대학 조성
사업 내용		문제발굴 및 해결 솔루션 도출	- 직업 재교육·향상교육 과정 - 직업-고용연계 과정 -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 및 고도화	Liberal Arts - 인문교육, 생애역량교육
성과지표	공통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 - 교육과정 이수율 - 참여자 만족도		
	사업	-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실적 -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	- 마이크로/나노디그리, RPL 실적 - 취업 연계율 - 학습자 지원 실적	- 교육과정 이수 실적 - 학습자 지원 실적
	참고 pool	리빙랩 개발 및 운영 실적	- 성인학습자 취업률(재직유지율, 직무 전환 추진률) -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활성화 - 성인학습자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고도화 -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총원율, 중도탈락률	

2) 자율성과지표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대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관리하는 정보공시 관련 성과지표의 활용 필요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련 학사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 제안 필요
 -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 리빙랩 개발 및 운영 실적
 -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 : 성인학습자 취업률(재직 유지율, 직무 전환 추진률),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활성화, 성인학습자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고도화,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
 - 교육부(2023b)에 제안된 〈자율성과지표 예시〉 자료 참고

〈표 V-24〉 자율성과지표 예시

목표	자율 성과지표	
직업평생 교육의 혁신	• 성인학습자 신입생 충원율 • 성인학습자 장학금 지원 실적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수 • 재직자 교육과정 이수자수 • 성인학습자 정원 확보율 • 성인학습자 중도탈락률 • 성인친화적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배출 실적	• 직업교육심화과정 이수율 • 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 DX 교육과정 이수율 • DX 소단위 학위과정 취득률 • DX 교육과정 취·창업률 • DX 직무 전환확대 추진율
지역현안 해결	• 유학생 취업·정주 실적 • 지역기업 기여도 • 지역혁신기관 기여도	• 지자체 기여도 • 지산학연 공동 기술사업화 실적 •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 운영 수

출처: (교육부, 2023)

다. 사업 발전 단계별 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 성과관리

- 사업 발전 3단계(고도화·확산)를 위해서는 질 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단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인증형 프로그램 운영에 질 관리 등의 과업이 이에 포함됨

※ 대학혁신지원사업 발전 단계(이정미 외, 2022)

- 1단계(기획·연구):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도입, 개발, 기초 연구 등이 해당함
- 2단계(구축·운영):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단계
- 3단계(고도화·확산): 세부 프로그램이 2단계를 거쳐 질 관리, 전체 대학으로 확산이 보편화되는 단계임. 기존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하는 단계도 포함됨

1) 성과관리체계 구축

- RISE 체제 이후 국고지원사업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진행되는 만큼 서평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사업 수준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사업 맞춤형 선정평가 지표 설정, 컨설팅 기준 설정, 종합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 결과 활용 등으로 구성된 성과관리방안 모색 필요
- 사업의 질 관리 차원에서 강좌수, 수강인원, 이수율, 수요자 만족도 등은 성과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그러나 사업 맞춤형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상의 항목에 더해 사업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 평생직업교육 모니터링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교육위 지적사항). RISE 체제 이후에도 평생교육분야 사업에 대한 전문성에 기초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하므로 서평원 차원에서 공적 지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부가가치형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소외계층의 인구 구성비가 높은 지역과 연계한 사업 참여에

대해 선정단계를 포함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함

2) 다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의 전면적 재설계 필요

- 서울소재 대학이 국고지원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참여 수준이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서평원의 역할이 중요함
- 컨설팅은 현재 서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실무(행정) 컨설팅 외에도 종합컨설팅에 대한 도입이 필요함
- 컨설팅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 항목(남수경 외, 2021, 2023)에 대한 고려를 제안함
 - 컨설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컨설팅의 점검요소 및 항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목에 대한 컨설팅 결과의 반영이 성과평가 결과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컨설팅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전제된 컨설팅 과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컨설팅의 기능과 역할, 의미의 명료화, 체계적인 컨설팅 세부 기준의 마련, 전문가 컨설팅, 실무자 컨설팅, 참여형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에 대하여 구성하여 제공함

〈표 V-25〉 컨설팅 내용 및 성격 예시

내용		방식	대상	시기	특징
사업 계획/ 성과 지표	1차년도 계획서 컨설팅	개별대학 집중 컨설팅	전체	1차년도 계획서 확정	구체성
	계획서 및 지표 변경 컨설팅	컨설팅단 상시 운영, 참여형 컨설팅	희망대학 저성취대학	수시	
실무 (행정)	재정지출 등 실무 관련 컨설팅	재단 상시 지원	희망대학	수시	
성과	우수성과 도출 및 확산	전문가 세미나형 컨설팅	전체	종합평가 이후	포괄성

출처: (남수경 외, 2022)

- 컨설팅의 내용 및 결과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컨설팅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팅 내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이정미 외, 2022)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기본 틀을 구성하면 다음 [그림 V-7]과 같음

AS IS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컨설팅) 사업계획서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현장 확인 • (결과평가)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업 평가 간담회 형태로 진행								
TO BE	<table> <tr> <td data-bbox="240 761 353 987">성과 평가</td><td data-bbox="353 761 1266 987"> • (모델) 다년도 사업모델, 부가가치형 사업모델 적용 평가 • (체계) 선정평가-자체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 (지표) 평가유형에 따른 지표 차별화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성과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및 관리 - 핵심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 • (활용) 성과분석 결과와 인센티브 및 선정평가 연계 </td></tr> <tr> <td data-bbox="240 987 353 1257">성과 지원</td><td data-bbox="353 987 1266 1257"> • (보완 컨설팅) 최종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 전반 검토,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보완사항 자문·권고 •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대학별 수요에 대응하여 정기·수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종합 컨설팅) 사업주기 종료시 사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다음주기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td></tr> <tr> <td data-bbox="240 1257 353 1398">성과 확산</td><td data-bbox="353 1257 1266 1398"> • (성과확산 및 환류) 성과공유회(포럼, 심포지엄), 성과사례집 발간, 사업계획 및 보고서 공개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td></tr> <tr> <td data-bbox="240 1398 353 1501">인프라</td><td data-bbox="353 1398 1266 1501">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td></tr> </table>	성과 평가	• (모델) 다년도 사업모델, 부가가치형 사업모델 적용 평가 • (체계) 선정평가-자체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 (지표) 평가유형에 따른 지표 차별화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성과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및 관리 - 핵심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 • (활용) 성과분석 결과와 인센티브 및 선정평가 연계	성과 지원	• (보완 컨설팅) 최종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 전반 검토,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보완사항 자문·권고 •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대학별 수요에 대응하여 정기·수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종합 컨설팅) 사업주기 종료시 사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다음주기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성과 확산	• (성과확산 및 환류) 성과공유회(포럼, 심포지엄), 성과사례집 발간, 사업계획 및 보고서 공개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 (모델) 다년도 사업모델, 부가가치형 사업모델 적용 평가 • (체계) 선정평가-자체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 (지표) 평가유형에 따른 지표 차별화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성과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및 관리 - 핵심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 • (활용) 성과분석 결과와 인센티브 및 선정평가 연계								
성과 지원	• (보완 컨설팅) 최종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 전반 검토,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보완사항 자문·권고 •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대학별 수요에 대응하여 정기·수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종합 컨설팅) 사업주기 종료시 사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다음주기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성과 확산	• (성과확산 및 환류) 성과공유회(포럼, 심포지엄), 성과사례집 발간, 사업계획 및 보고서 공개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그림 V-7]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기본 틀

2.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가. 개선의 기본 방향

1) 서평원 사업 운영 거버넌스 개선의 기본 방향

- 서평원과 25개 자치구들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치구-대학을 권역별로 묶어서 거점 형식의 네트워크 구축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보장될 경우 LiFE 사업체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학 내 전담 인프라의 구축 확대 필요
 - 기 구축한 우수사례 대학 현황 공유
 - 사업 성과지표로서 이들 전담 인프라 구축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
 - 사업비에서 이들 전담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지원하도록 예산집행지침 유연화
 - 대학간, 대학과 지자체간, 대학연합과 서평원간 네트워크 확대 필요

2) RISE 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에서 서평원의 역할 정립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서평원의 역할
 - 서울시 평생교육 허브로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 RISE체제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정립, 대학과 협의체 구성 기반 지속적 소통
 - 대학별, 지역별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실태,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공유
 -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별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대학의 비학위과정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DB구축 및 인증관리 지원
- 평생교육정책 전문가가 인식하는 서평원의 역할

- RISE체계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정책 주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국평원이나 연구재단이 하던 사업 선정,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서 책임
- 평생교육 관련 데이터 관리, 수요 분석 및 공유

3)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에서 대학 내 담당조직

- 서울소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본부의 관점, 사업 운영 경험 등에 따라서 대학 내 담당조직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 차이 상존
- RISE체계 하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내 담당조직 체계화 필수과제로 제시 필요

〈표 V-26〉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 거버넌스

구분	주요 내용
전문대학 업무담당자	•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인식 • 기획부서와 산학부서가 함께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
일반대학 업무담당자	• 서울지역 LiFE사업 참여 대학들의 사업 운영 지속성이 낮았다는 점에서 운영조직체제의 안정성이 매우 낮음(명지대, 동국대 정도만 우수) • 단과대학이나 학과 단위 대학교육사업으로 인식 • 통합된 별도 총괄담당부서를 두거나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진행 • 대학전임교원 중심으로 사업 운영
평생교육 전문가	• LiFE나 HiVE사업 운영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대학 중심으로 지원이 효과적 • 평생교육총괄지원조직체제 구축보다는 서평원이 주도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총괄 기능 강화 중요

다.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1) 서평원 중심의 서울 RISE 내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필요성

○ 서울 평생교육사업 운영체제

-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평생교육정책팀, 평생교육사업팀, 평생교육지원팀, 중장년사업팀) 중심으로 운영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은 서평원을 중심으로 설계 및 운영
- 25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

○ RISE 체제에서는 중앙정부 수준과 광역지자체 수준의 대학연계 사업이 서울 RISE 체제 안에서 편성 및 운영됨

- 현재 서울 RISE센터가 서울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역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고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RISE체계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이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평원이 운영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첫째, 평생교육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점, 둘째, 그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중앙정부수준의 사업에 대한 대체 및 보완의 측면에서 설계하고 운영한 점, 셋째,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위해 서울소재 대학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폭넓게 구축한 점, 끝으로 서울시-진흥원-자치구 간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자치구의 평생학습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평생교육 연계 사업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 RISE 체제에서도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주체는 서평원이 되는 것이 적절함. 이를 통해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설계의 타당성, 운영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RISE 체제하에서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통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하민지, 2023)

- 지역대학의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대학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이양한 재정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그 주요 권한도 함께 이양되어야 함
-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필요한데, 각 지역들의 산업군과 분

- 포로 볼 때 수도권에 밀집된 현재의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렇기에 기업과 산업 기반이 지역에 이전·형성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강력한 전략과 지원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가 지자체 주도적으로 대학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예산 이양 외에도 지자체가 대학교육 투자에 재량을 갖고 대학 지원 계획 및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함

2)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서평원의 기능과 역할

- 교육부(2023b)에 제시된 RISE 체제에서 시·도와 RISE 센터의 역할 구분을 살펴보면, 대학연계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체계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됨
 - RISE 체제에서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는 총괄담당과 사업담당으로서의 역할을 맡는데 총괄담당에는 사업기획, 예산편성, 채용관리, 평가준비, 추진기반의 역할이 있고 사업담당에는 계획 수립, 예산확정, 사업수행, 자체평가의 역할이 있음
 - 서울연구원과 같은 지역 RISE 센터는 크게 사업기획과 지원·성과관리로 역할이 구분되고 사업기획에는 대학-지역 혁신기획, 대학-지역 연계협력의 역할이 있고 지원·성과관리에는 대학 지원과 성과 관리의 역할이 있음



[그림 V-8]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

- <표 V-27>은 교육부(2023b)에서 제시한 RISE 체제에서의 시·도와 RISE센터의 역할 구분을 서울에 맞게 제시한 것임. <표 V-28>은 현재 서울시의 RISE 운영 조직에 해당하고 서울연구원은 조직체계에서 RISE 운영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

〈표 V-27〉 서울시와 RISE센터의 역할 구분

구분	주요 내용	
서울시	• 서울시 RISE 사업 예산결산 및 중앙부처, 서울시의회 대응 • 서울시 RISE 사업 평가환류 총괄 • 대학별 계획서 검토 및 추진사항 총괄 • 서울 RISE 센터 구성 및 운영 총괄	
RISE 센터	• 서울시 RISE 계획 방향성 수립 지원 • 서울시 RISE 사업 평가환류 지원 • RISE 사업운영, 성과관리 기술 지원 • RISE 사업수행 대학 공모 및 선정 • 관계기관 RISE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서평원의 기능 및 역할 대학연계 평생교육지역문제해결 사업에 대한 운영주체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서울 RISE의 중심 운영체계 내 위치

〈표 V-28〉 서울시의 RISE 운영 조직: (총괄) 대학협력과

구성	업무
대학협력정책팀	• 서울시 RISE 및 캠퍼스타운 전략 검토 및 수립 • 서울RISE센터 구성 추진 • 대학 관련 법령 및 조례(서울RISE 조례 제정 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종합계획 수립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관련 대응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관련 예산 편성
대학협력사업팀	• 서울시 RISE 전략별 세부과제 계획 수립 및 추진 • 서울시 RISE 센터 운영 관리 • 서울시 RISE 추진 TF 운영 • 서울시 RISE 참여 대학 공모 및 선정 평가 • 서울시 RISE 사업 성과평가 • 시·RISE센터·대학 실무회의 운영 • 서울시 RISE 관련 외부기관(타 시·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협력 • 서울시 RISE관련 지역현황(산업, 대학 등) 분석

3)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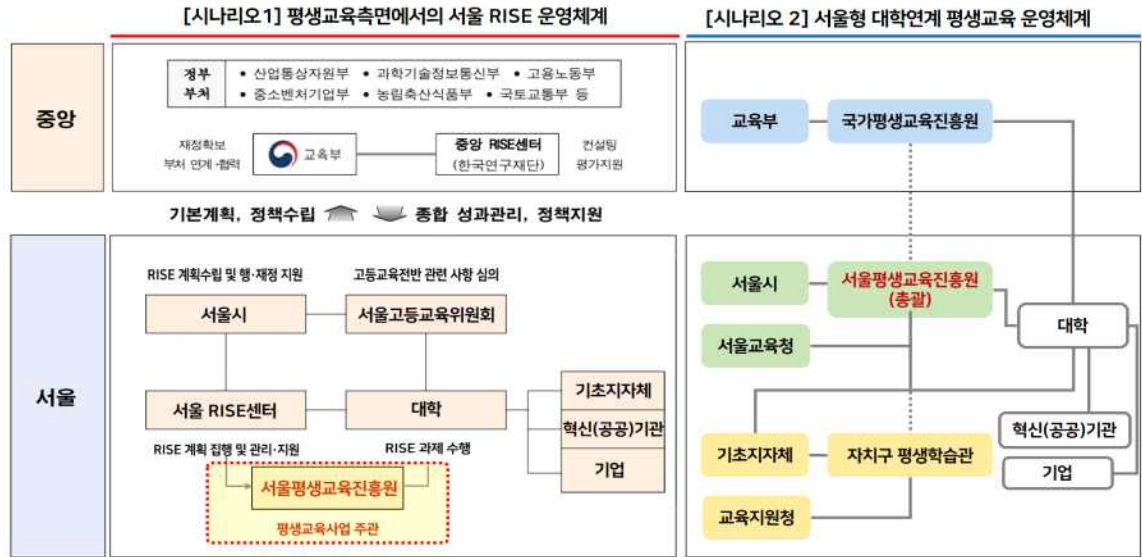
☑ [시나리오 1] 서평원 주관의 서울 RISE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모델

-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이 서평원에 위탁운영될 경우 서울 RISE 운영체계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서평원을 중심으로 [그림 V-10]의 서울 RISE에서 지역문제해결프로젝트, 중장년직업·평생교육고도화, 서울열린대학조성에 대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됨
- 서울 RISE 체제에서는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역시 서울시 RISE 사업 내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서울시의 RISE 운영 조직인 경제실의 경제일자리기획관에 대학협력과 소속 대학협력정책팀, 대학협력사업팀이 서울 RISE 체제에 대한 총괄 조직으로 보임(〈표 V-28〉 참고). 서울연구원의 RISE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위에 제시한 교육부(2024)의 구조 상 서울연구원의 역할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평원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체계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서울 RISE에서 평생교육지역문제해결 분야의 사업이 서평원에 위탁되는 경우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성과관리 기술을 지원하며, 사업수행 대학 공모 및 선정 등을 중심으로 서울 RISE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서평원의 기능 및 역할이 설정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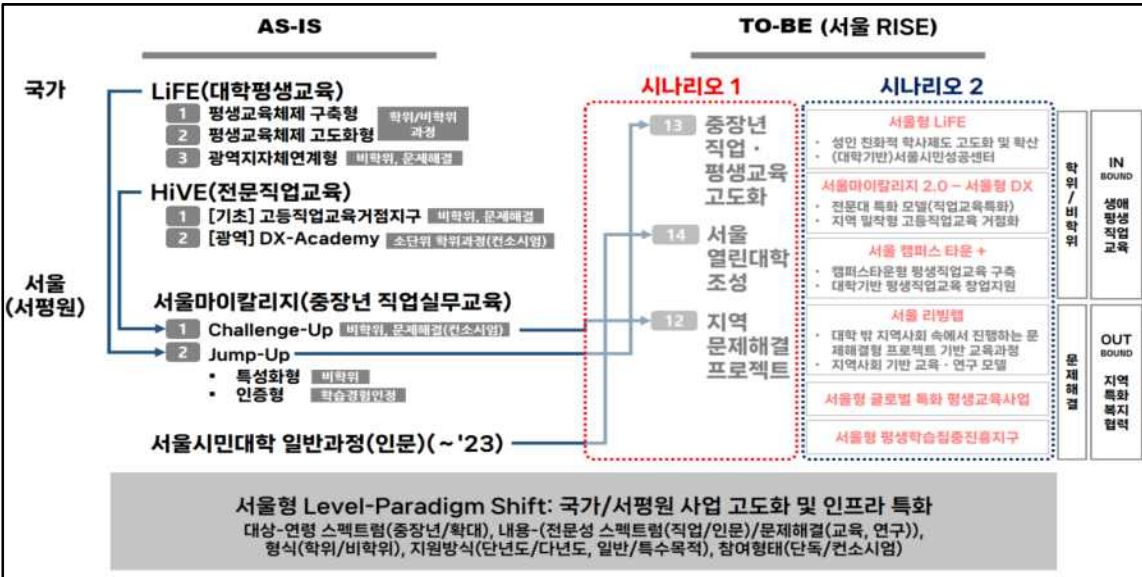
☑ [시나리오 2] 서울 RISE 외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모델

-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RISE 내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할 경우 서평원은 서울연구원의 유관 및 협력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서평원은 서울 RISE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울형 LiFE, 서울 마이칼리지 2.0-서울형 DX, 서울 캠퍼스 타운 플러스, 서울 리빙랩, 서울형 글로벌 특화 평생교육사업, 서울형 평생학습집중지구사업 등 다양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함
- 이를 통해 서울의 지역적, 인구구조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사업 운영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체계를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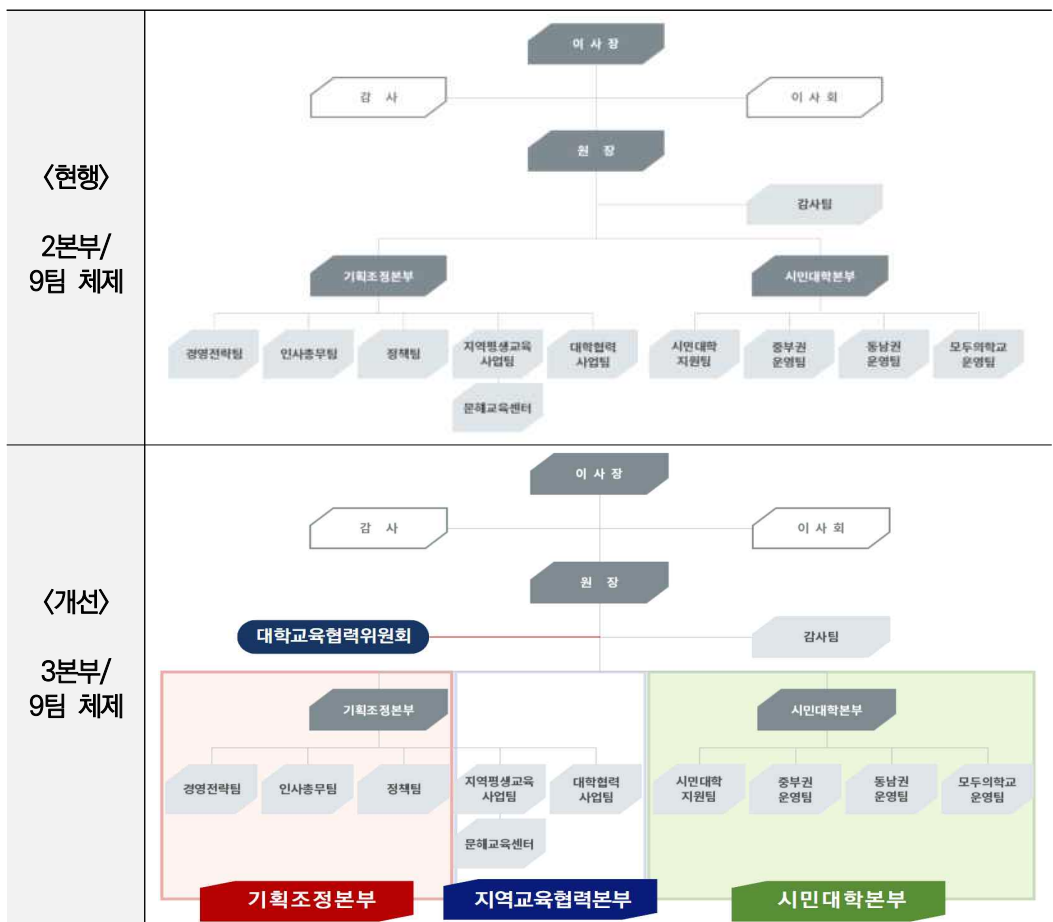
[그림 V-9]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체계



[그림 V-10] 서울 RISE 운영체계 안에 따른 서평원의 사업 모델

4)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제 재구조화 방안(안)

- 서울의 인구 특성 변화, 서울 RISE체계 기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확대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서평원 조직체제를 ‘사업 기반’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기획조정본부’는 서평원 전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사업 기획, 서평원 인적·물적 인프라 총괄 관리, 각종 위원회 관리 등 ‘기획’과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체제를 구축함
 - 현재 ‘기획조정본부’ 하에 있는 사업팀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사업 부서로 위상을 정립함. 즉 현재 기획조정본부 하에 있는 지역평생교육사업팀과 대학협력사업팀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역교육협력본부’를 신설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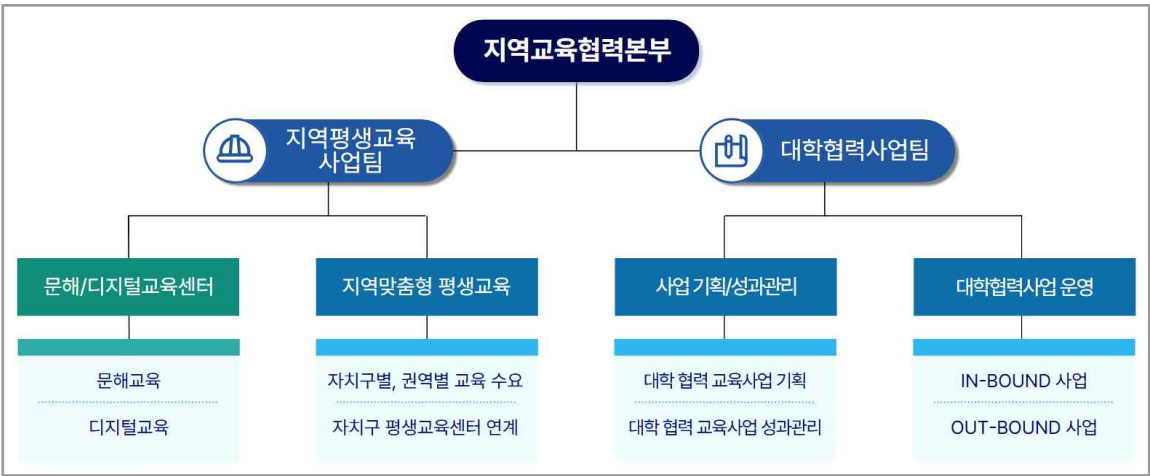


[그림 V-1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제 재구조화 방안(안)

- LiFE 사업이나 HiVE 사업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서울형 사업으로 기획,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기획부터 성과 관리 전반에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자문조직으로 ‘대학교육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전체적으로 2본부 9팀 체제를 3본부 9팀 체제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팀 구성 단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RISE체제 하에서 서울시, 서울연구원 등과의 업무 분담 체제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교육협력본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지역교육협력본부 산하로 (현) ‘기획조정본부’에 지역평생교육사업팀과 대학협력사업팀을 이 동함
- 지역평생교육사업팀 산하에 있는 ‘문해교육센터’는 문해의 범위를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확대 하여 ‘문해/디지털교육센터’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 ‘대학협력사업팀’ 산하에는 크게 ‘사업기획/성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대학협력사업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문해/디지털교육센터,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사업기획/성과관리, 대학협력사업 운영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 내용은 [그림 V-12]와 같음



[그림 V-1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지역교육협력본부’ 조직체제 구성(안)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가. 규제 개혁으로 대학 자율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확대

- 교육부는 RISE 사업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방대육성법」제22조)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
- (권한위임) 지방대육성법 등, (규제개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개정 추진

〈표 V-29〉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 요청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교직원 인사	• 겸임교원 학기 단위 임용, 별도 채용 절차(특별채용) 허용 등
학사 운영	•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 완화, 국내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학점기준 완화 등
타부처 관련	• 자율주행 로트를 활용하여 인근 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 운영 허용,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학과의 이동수업 거리 제한 예외 등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 따라서 RISE 체계하에서 서울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동안 규제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학위과정) 성인학습자 입학전형에 대한 규제 완화

1) 배경

- 제도적으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성인학습자를 입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대학의 참여가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위연계형 평생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임

- 평생·직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학도 특별전형’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학령기 대상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소재 일반대와 전문대에 대한 입학전형 상의 규제 완화가 요구됨

2) 개선 사항

- 따라서 대학 내 평생교육 운영체제 구축, 즉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및 전담조직 설치, 학내 총괄 관리체계 마련(성과관리, 교원인사 포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 학습자 입학전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 연령제한이 아닌 재직 경력 요구 등을 통해 사업 취지에 맞는 성인학습자 입학 전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대학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서울시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함

VI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VI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 연구개관

- 이 연구는 국내외 재정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RISE 기반의 서울형 대학 연계 평생교육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성과관리 및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1) 교육부와 시·도에서 시행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변화 전망을 고찰하고, 2)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3) 서울의 특성(인구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서울의 권역별 대학 분포와 대학연계 평생교육 수요를 고찰하였음. 4)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에 대한 관련 주체별(서울소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LiFE 및 HiVE사업 업무담당자, 국가단위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정책 전문가 등)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하였음. 이상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5)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재구조화 방안과 6)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성과관리 및 운영체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2.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특징과 기본 방향

- 주요국 운영 사례, 서울의 특성 분석, 전문가 FGI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도출한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음

가.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설계 관련

- 메트로폴리탄 도시가 가지는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구 다양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수요를 포용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산업기반에서 비롯되는 고급 인력이나 정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인구 집중화로 대학중도탈락자, 학교밖청소년, 경력단절여성, 해외 이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 역시 수용해야 함
 - 서평원은 (1) 기초소양과 직업전문성 제고를 아우르는 전문성 스펙트럼, (2) 선취업자 학위 취득 요구에서 노년기 복지형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연령 스펙트럼을 조직하여 대학의 특성과 매칭하는 역할 적극 수행
- 서울형 LiFE사업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구독대학” 모형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전통적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재개념화하고 구독형 대학교육으로 전환하는 서울형 대학평생교육 체제 혁신 가속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HiVE 사업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전문대학 중심의 직업역량 교육 및 인증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직업훈련체계는 직업을 준비하는 단계, 신입단계, 중견 경력자 단계로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고, 특정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운영 관련

- 고령화 사회 및 평생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교육적 욕구는 증가하나,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에 대한 정보력, 학비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이 부족하여 접근 제한 발생
 - 성인들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돕는 성인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대학의 체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4년 학위과정 중심의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률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전환 속도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단기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로 자격증, 마이크로 디그리 등을 기반으로 학위과정까지의 참여 기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직업훈련분야에서의 수요와 연계되는 과정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에서도 프로그램의 이수와 학위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단기 이수과 인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적으로는 1) 대학 자체에서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2)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인증형 이수 체제를 갖추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대학, 지자체, 성인학습자 등 관련 주체의 참여를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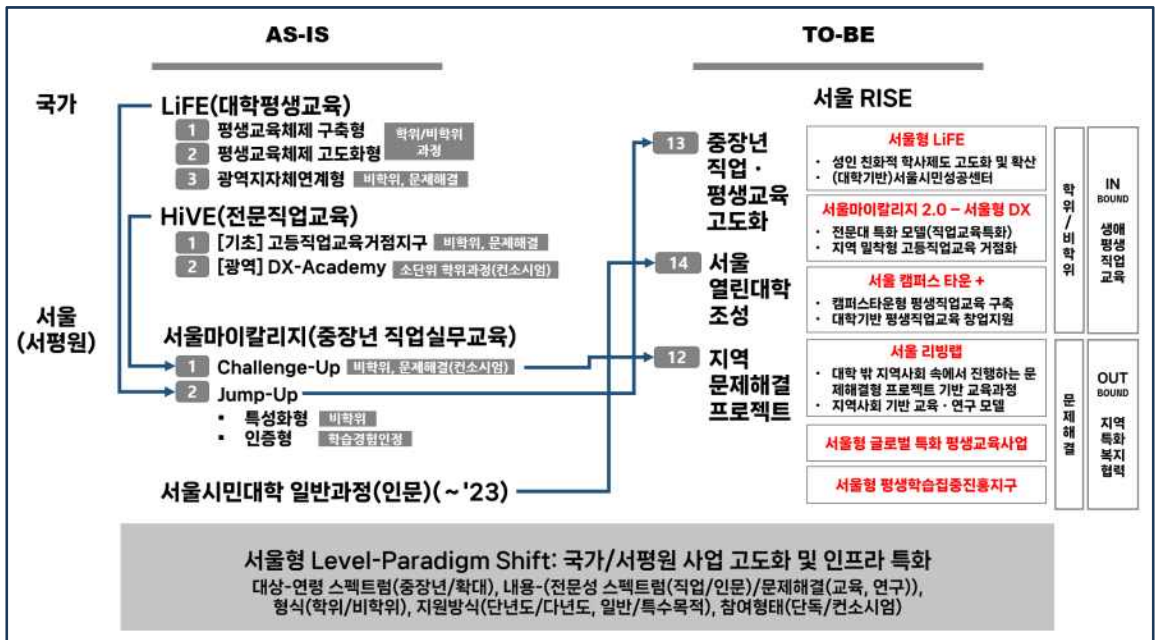
-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은 서울의 대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육-연구-지역사회봉사 일체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 프로그램에는 1)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실습형 교육활동, 2) 교수의 연구활동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행, 3)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상시적인 봉사활동 등이 포함됨
- 서울형 LiFE사업, 서울형 HiVE사업 등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학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 문제(실업, 노령화, 이주민 증가)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들이 대학의 강점과 소재한 기초자치구 등의 특성에 따라서 기초인문소양 및 문해교육, 직업역량 강화, 전문가 재교육 등 운영 지원
 -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요구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분담, 운영하는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
-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평원은 지자체 평생교육의 실행뿐만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조사 연구, 지도자 양성 및 연수, 시범사업의 인큐베이팅, 교육실행기관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메타적 지원 조직 기능을 강화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다년도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평원이 재정당국이나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책 의제 발굴 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성인학습자 전형의 규제 완화, 대평생교육 참여를 제고를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3.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재구조화 방안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사업 재구조화의 기본방향과 RISE 체제를 대비하는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과제에 근거하여 서울 RISE 체제의 지역사회 동반성장 과제와 함께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서울 RISE’로 제시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재구조화 기본 틀]

- ‘서울 RISE’에서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은 ‘In-bound형’, 즉 대학 안으로 지역주민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Out-bound형’, 즉 대학 밖 지역사회 속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In-bound형’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중심의 학위/비학위과정 프로그램과 대학의 취·창업 인프라 활용 중심의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
 - 해당 사업으로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고도화 모델로서 서울형 LiFE 사업, HiVE DX-Academy를 서울마이칼리지에 적용하여 전문대학에 특화된 서울형 DX를 구현하는 모델로서 서울마이칼리지 2.0사업, 대학기반의 평생직업교육 창업지원 모델로서 서울 캠퍼스 타운 플러스사업 등이 포함
- ‘Out-bound형’ 프로그램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이해, 문제해결 등 PBL,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활용 강좌를 확대하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지역사회 기반 연구 프

그램'으로 구분

-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교육·연구 모델로서 서울 Living-lab 사업과 서울형 글로벌 특화 평생교육사업, 서울형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 등이 포함

4.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방안

가. 핵심공통 성과지표와 사업별 성과지표

- 과정 및 산출형 성과지표로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 교육과정 이수율, 참여자 만족도” 등을 핵심적인 공통성과지표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별로 목표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대표 성과지표(안):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실적,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
 -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대표 성과지표(안): 마이크로/나노디그리, RPL 실적, 취업 연계를, 학습자 지원 실적
 - 서울 열린대학 조성 대표 성과지표(안): 교육과정 이수 실적, 학습자 지원 실적

나. 자율성과지표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대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관리하는 정보공시 관련 성과지표의 활용 필요.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련 학사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 제안 필요
-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 리빙랩 개발 및 운영 실적
- “중장년 직업·평생교육 고도화”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 : 성인학습자 취업률(재직유지율, 직무 전환 추진률),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활성화, 성인학습자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고도화, 성인전담학과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

다. 사업 발전 단계별 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 성과관리

AS IS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컨설팅) 사업계획서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현장 확인 • (결과평가)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업 평가 간담회 형태로 진행								
TO B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44 523 353 705">성과 평가</td><td data-bbox="353 523 1255 705"> • (모델) 다년도 사업모델, 부가가치형 사업모델 적용 평가 • (체계) 선정평가-자체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 (지표) 평가유형에 따른 지표 차별화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성과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및 관리 - 핵심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 • (활용) 성과분석 결과와 인센티브 및 선정평가 연계 </td></tr> <tr> <td data-bbox="244 705 353 929">성과 지원</td><td data-bbox="353 705 1255 929"> • (보완 컨설팅) 최종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 전반 검토,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보완사항 자문·권고 •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대학별 수요에 대응하여 정기·수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종합 컨설팅) 사업주기 종료시 사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다음주기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td></tr> <tr> <td data-bbox="244 929 353 1045">성과 확산</td><td data-bbox="353 929 1255 1045"> • (성과확산 및 환류) 성과공유회(포럼, 심포지엄), 성과사례집 발간, 사업계획 및 보고서 공개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td></tr> <tr> <td data-bbox="244 1045 353 1126">인프라</td><td data-bbox="353 1045 1255 1126">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td></tr> </table>	성과 평가	• (모델) 다년도 사업모델, 부가가치형 사업모델 적용 평가 • (체계) 선정평가-자체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 (지표) 평가유형에 따른 지표 차별화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성과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및 관리 - 핵심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 • (활용) 성과분석 결과와 인센티브 및 선정평가 연계	성과 지원	• (보완 컨설팅) 최종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 전반 검토,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보완사항 자문·권고 •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대학별 수요에 대응하여 정기·수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종합 컨설팅) 사업주기 종료시 사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다음주기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성과 확산	• (성과확산 및 환류) 성과공유회(포럼, 심포지엄), 성과사례집 발간, 사업계획 및 보고서 공개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 (모델) 다년도 사업모델, 부가가치형 사업모델 적용 평가 • (체계) 선정평가-자체평가-연차평가-중간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 (지표) 평가유형에 따른 지표 차별화 및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성과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및 관리 - 핵심성과지표·자율성과지표 • (활용) 성과분석 결과와 인센티브 및 선정평가 연계								
성과 지원	• (보완 컨설팅) 최종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 전반 검토,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보완사항 자문·권고 • (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대학별 수요에 대응하여 정기·수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종합 컨설팅) 사업주기 종료시 사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다음주기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성과 확산	• (성과확산 및 환류) 성과공유회(포럼, 심포지엄), 성과사례집 발간, 사업계획 및 보고서 공개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기본 틀]

5.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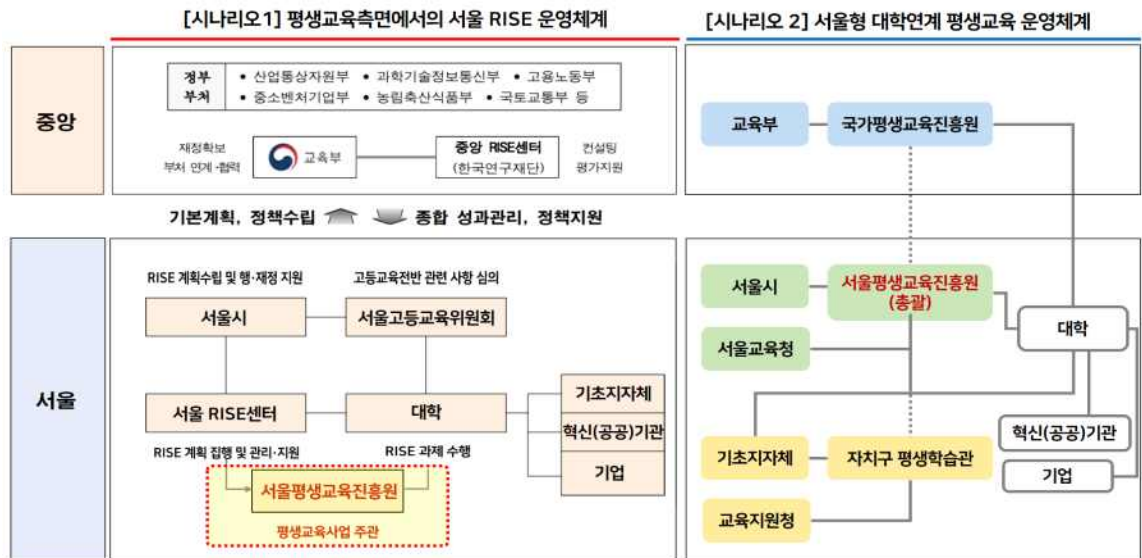
- 서평원과 25개 자치구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치구-대학을 권역별로 묶어서 거점 형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RISE 체계 하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시나리오 1] 서평원 주관의 서울 RISE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모델
 -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이 서평원에 위탁·운영될 경우, 서평원을 중심으로

로 서울 RISE가 서울 RISE 운영체계 하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 지역 문제해결프로젝트, 중장년직업·평생교육고도화, 서울열린대학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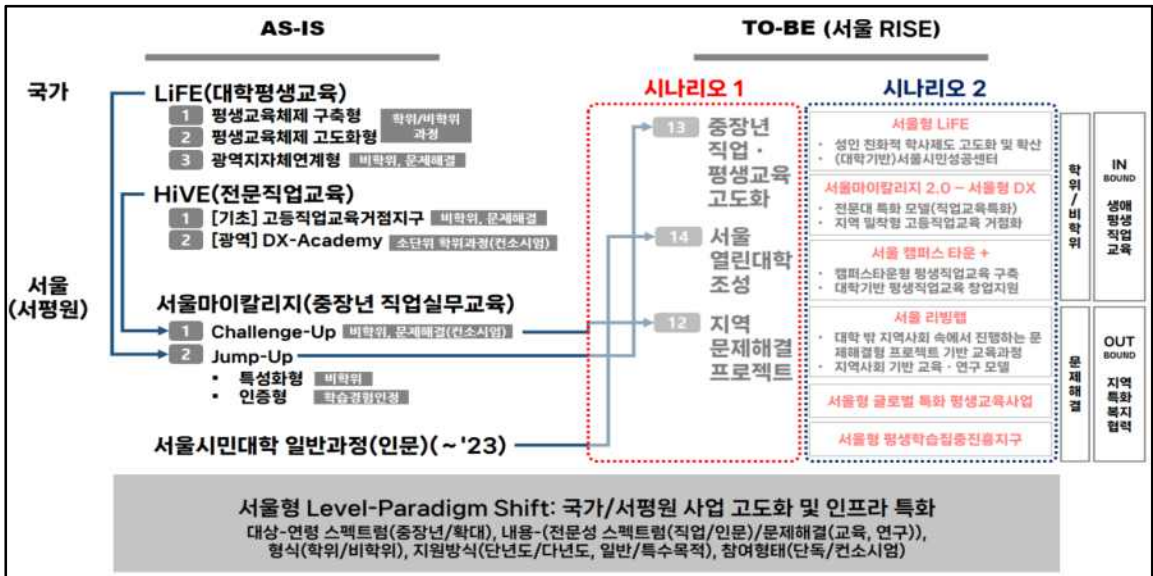
- 서울 RISE에서 평생교육지역문제해결 분야의 사업이 서평원에 위탁되는 경우, 서평원이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성과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수행 대학 공모 및 선정 등을 중심으로 서울 RISE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에 대하여 서평원의 기능 및 역할 설정

○ [시나리오 2] 서울 RISE 외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운영 모델

- 서울연구원에서 서울 RISE 내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할 경우, 서평원은 서울연구원의 유관 및 협력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서평원은 서울 RISE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울형 LiFE, 서울마이칼리지 2.0-서울형 DX, 서울 캠퍼스 타운 플러스, 서울 리빙랩, 서울형 글로벌 특화 평생교육사업, 서울형 평생학습집중지구사업 등 다양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함



[서울 RISE 체제에서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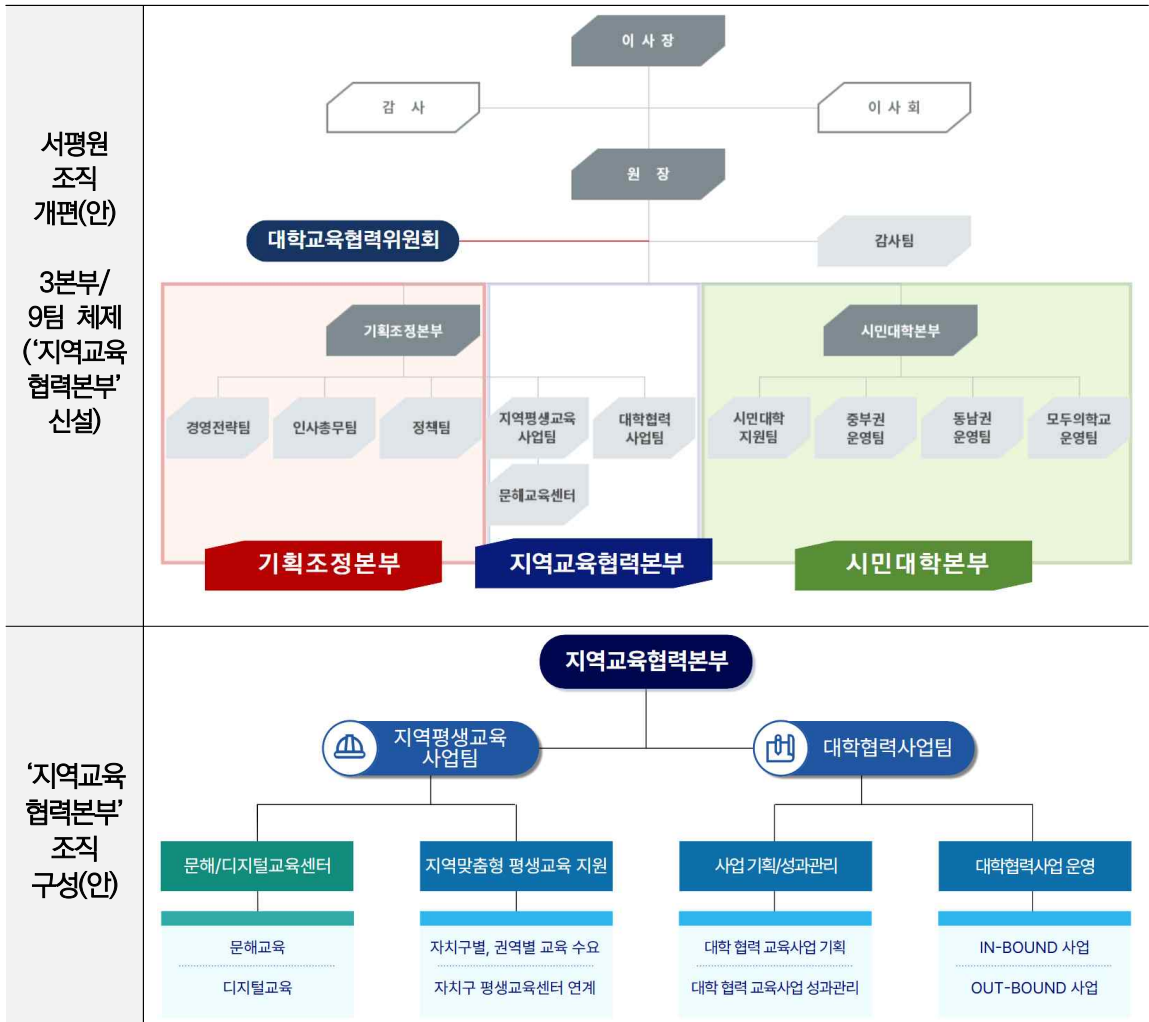


[서울 RISE 운영체계 안에 따른 서평원의 사업 모델]

6.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대학협력사업 운영조직 개편 방안

- 서울의 인구 특성 변화, 서울 RISE체계 기반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확대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서평원 조직체제를 ‘사업 기반’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기획조정본부’는 서평원 전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사업 기획, 서평원 인적·물적 인프라 총괄 관리, 각종 위원회 관리 등 ‘기획’과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체제를 구축함
 - 현재 ‘기획조정본부’ 하에 있는 사업팀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사업 부서로 위상을 정립함. 즉 현재 기획조정본부 하에 있는 지역평생교육사업팀과 대학협력사업팀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역교육협력본부’를 신설 운영함
-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교육협력본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지역평생교육사업팀 산하에 있는 ‘문해교육센터’는 문해의 범위를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확대하여 ‘문해/디지털교육센터’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 ‘대학협력사업팀’ 산하에는 크게 ‘사업기획/성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대학협력사업운영’

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서울 RISE 운영체계 이후 서평원의 대학협력사업 운영조직 개편 방안]

제2절.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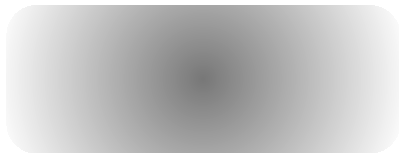
- ‘서울’, ‘평생교육’, ‘서울의 대학’ 입장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의 고등·평생교육 재정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단한 기회라고 볼 수 있음
 -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7년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등에 이르는 동안 고등교육 지원사업은 ‘지방’ 또는 ‘지방의 대학’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었음
 - 서울의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LiFE, HiVE 등의 사업에서도 여전히 지역 활성화,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사업 운영의 방점이 찍히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의 대학들에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음
 - 이제 RISE 체계 하에서 서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서울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마련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의 인구 특성(등록인구와 생활인구)과 교통 편이성, 우수한 대학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은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되지만 한다면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따라서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전략 수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는 “서울형”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그 특징을 포착해서 정책에 담는 것이었음
 - ‘서울형’은 ‘고도화’ 또는 ‘선도’의 의미를 담고 있음. 서울시민대학, 서울마이칼리지 등으로 발전하면서 이미 서울평생교육원은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보다 서울의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수준 높은 대학연계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운영해 왔음.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마련함과 동시에 타 시·도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핵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진은 RISE 체계 하에서 기존의 우수 사업을 계승, 발전, 정교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울형 사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서울형’은 서울 전체 - 생활권 단위 - 자치구 단위를 특정 짓지 않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데 있음. 이는 높은 인구 밀도와 편리한 교통,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

등을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서울 특성 분석에서는 생활권역별·자치구별 인구 및 사회·문화 특성을 모두 분석하여 평생교육 수요를 보여주되,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재구조화에서는 운영 단위를 다양화하였음. 서울의 특성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 장차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역시 서울 시민의 맞춤형 교육 수요를 발굴하여 대학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서울형’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도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함. 즉,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사업단위 비용)와 지원기간(다년도)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지자체는 충분히 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함. 참여하는 대학에 최대한 정보와 자율성을 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사업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역시 연차평가, 모니터링, 종합평가 등을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특히 서울의 대학 가운데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교육을 특성화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해야 할 것임

○ 이 연구는 '22년 발표된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27)」 실행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음. 5차 계획은, 이전의 계획이 사회통합적 지향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개인의 성장’과 ‘생존’에 중점을 두었음. 특히 대학의 역할 확대, 지역 평생학습 진흥, 생애도약 지원, 사각지대 해소, 경력 및 자격 연계,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체제 구축 등,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이 이 여섯 가지 핵심과제와 결부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UNESCO 회원국 간 성인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민총생산(GNP)의 6% 교육재정 확보와 성인교육 부문의 재정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재정 규모는 2023년 기준 1조 4천억 원, 즉 국민총생산(GNP) 대비 0.036%에 불과하며, 평생교육재정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의제 형성이 절실함
-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2025년 12월 기한이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기간 연장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하여,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의 발굴, 지원, 확산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4).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4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0).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1). 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책임집니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 교육부(2022a).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예비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 교육부(2022b).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2c).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링크 3.0)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3a). 2023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3b).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운영 체계 및 사업 안내서(ver 2.0). 교육부
- 교육부(2023c).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4a). 2024년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기본계획.
- 교육부(2024b). 2024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기본계획.
- 교육부(2024c). RISE,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인천지역혁신 정책세미나(2024.4.16.). 인천광역시·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책포럼.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5).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신규 선정 핵심성과지표 작성 양식.

교육부.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2023). 2022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교육부공식블로그(2021.9.13). 제1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성과포럼 온라인 개막, <https://if-blog.tistory.com/12577> 에서 검색(24.7.31.)

교육부공식블로그(2023.2.1.). RISE 체제. <https://if-blog.tistory.com/13967>에서 검색 (24.7.31.)

교육부공식블로그(2023.6.14).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발표. <https://if-blog.tistory.com/14254> 에서 검색(24.8.20).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김진, 김성주(2023).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3-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진희, 김경애, 이정우, 김지혜, 임종현, 김영석, 이로미, 강충서(2023). 커리어 전환기에 놓인 4050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철희(2023). 국제동향 관점에서 바라본 직업능력개발과 평생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태준, 최상덕, 박승재, 이정우, 한승현, 채대석, 임형재(2022).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남수경, 김민희, 김성식, 박주병, 이희숙, 라시아카시, 신민종(2023).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남수경, 김민희, 김훈호, 원세림, 이희숙, 신민종(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원 배분 포물리 적절성 분석 및 '21년 성과 관리방안 마련. 한국연구재단.

남수경, 김용태, 원세림, 최현정(2023). 해외 평생교육 재정 동향.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김용태, 원세림, 최현정, 양병찬, 김현수, 이경화(2024).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개선 방안.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

박상옥, 윤창국, 이재준(202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미래 운영 모델 개발 연구 (FR2022-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인우(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 교육혁신 현황 분석. 한국연구재단.

배영주(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LiFE)과 대학의 평생교육적 체제 전환, 성인계속교육연

- 구, 12(2). 63-84.
- 서연미, 하수정, 김민지, 이종표, 이길재, 이종호, 채창균, 허동숙, 조성호, 진화영, 문승현(2023). 지역 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서창수(2022).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학평생교육 토픽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8(3). 197-228.
- 성지은, 한규영, 정서화(201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16(2), 65-98.
- 양흥권(2019).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특성 변천에 관한 연구: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평생 교육·HRD연구, 15(2), 281-302.
- 이경화(2023). 평생교육재정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미, 김민희, 이길재, 차지철, 유호준, 박태양(2022). 2019-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백서 발간을 위한 종합성과분석 연구. 한국연구재단.
- 이정미, 왕문혜(202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네트워크 분석 - C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32(3), 81-105.
- 이정표(2021).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평생교육 연계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정표(2022). 국민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제21차 국가평생교육 정책 포럼 자료집.
- 이정표, 이병규, 이웅상, 황인성, 안현용(2023). 일터-대학 연계 기반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정 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희수(2023). 지방시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의미와 쟁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광수(2017). 대학과 지자체의 평생교육 연계 유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417-435.
- 전광수, 김형재, 황정훈(2017). 지방 정부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동향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3), 683-692.
- 전라남도(2024). 전라남도 공고 제2024-760호 『전라남도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RISE 시범사업)』 공고
- 정민승(2024). 이상주의적 비전과 정책대상의 소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30(2). 1-26.
- 주희정, 정지은, 김경인, 최광성, 문찬주, 김민석(2022).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2023).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중앙일보(24.05.28). 전문대학 가치 제대로 반영하도록 서울시는 RISE 계획을 보완해야.
- 채재은(202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LiFE 사업 개편 및 재구조화 방안. 제21차 국가평생교육 정책 포럼 자료집.
- 최동선, 김남희, 류지은, 임언, 안현용, 임정훈(2021).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정윤, 문보윤, 백승주, 손윤의, 조옥경(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연구, 기본이슈페이퍼, IP 2023-03, 한국교육개발원.
- 충청투데이(23.9.24). 정부 대학정책 엿박자: 정부 대학정책 엿박자… 3400억 규모 지역 연계사업 ‘안갯속’.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209>에서 검색. (24.7.31)
- 하민지(2023).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G-BRIEF. 경남연구원.
- 한국대학신문(21.12.3). LINC 10년 역사 이어가는 LINC 3.0… 대학들 ‘기대 반, 고민 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0327>
- 한국대학신문(23.09.21). 교육당국 “라이즈 앞둔 전문대, 하이브 사업 취지·성과 잇는 노력 기대”.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2830>
- 한재우, 박효선(2023). 지역 지자체와 연계한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차세대융합기술 학회논문지, 7(9), 1515-1526.
- 허영준, 이수정, 이상훈, 이정민, 신동준(2021). 교육자치 및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京都大学 (Kyoto University). . 社会人向け教育_リカレント教育 (生涯教育等) .
- 京都市役所, 大学のまち京都・学生のまち京都推進計画2019-2023.
- 文部科学省(2015~2019). 文部科学統計要覧.
- 文部科学省(2022).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 https://www.mext.go.jp/content/20211223-mxt_kouhou02-000017672_1.pdf.
- 法政大学 (Hosei University). 리カレント教育・生涯学習.
- 八王子市役所. (n.d.). はちおうじ学園都市ビジョン

- ASPEN Institute (2020). Building-a-Lifelong-Learning-System_December-2020_Aspen-Institute-Future-of-Work-Initiative.
https://www.asp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0/11/Building-a-Lifelong-Learning-System_December-2020_Aspen-Institute-Future-of-Work-Initiative.pdf
-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2023). Vision 2030: A Roadmap for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 Mintzberg, H., Ahlstrand, B., & Lampel, J. (1998). Strategy Safari: A Guided Tour Through The Wilds of Strategic Mangament. NY: The Free Press.
- Nam, J. G. & Lee, J. H. (2010). Conceptulaizing the Engagement of Univers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3(1), 19-38.

〈통계자료〉

- 대학정보공시(2019-2023). 대학정보.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법무부(2023). 비자발급 목적에 따른 등록 외국인 현황.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artclList.do> 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0-2023).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현황.
<https://data.seoul.go.kr/dataList/804/S/2/datasetView.do> 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20-2040).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별 인구 (추계인구).
<https://data.seoul.go.kr/dataList/10837/S/2/datasetView.do> 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23). 서울특별시 지역별 등록 인구(연령별, 동별).
<https://data.seoul.go.kr/dataList/10727/S/2/datasetView.do>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서울특별시(2023).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본보고서.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열린데이터광장(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s://data.seoul.go.kr/dataList/1/S/2/datasetView.do>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지방시대위원회 NABIS(2010-2022). 서울특별시 지역구 전입, 전출 인구.

<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 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지방시대위원회 NABIS. 균형발전지표.

<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 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지방재정365(2022). 2022년도 세부사업별세출현황. <https://www.lofin365.go.kr/> 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KOSIS(2010-2023).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통계청
통계청 KOSIS(2022). 시도 산업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 수.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3). 고등교육 현황,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4
년 10월 10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서비스(2023). 대학통계 중 행정구역별 대학 정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3). 유초중등 및 고등, 평생교육 학습자 현황,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4년 9월 10일 인출.

〈웹사이트 자료〉

EAFC. Retrieved from: ac-paris.fr

Erasmus+ Homepages. Retrieved from: e-slp.eadtu.eu

ILMONET Homepages. Retrieved from: ilmonet.fi/

London Learning Consortium Homepages. Retrieved from: <https://www.londonlc.org.uk/>
Learning for Professionals homepages Retrieved from <https://learning4professionals.se/>

Ontario State Homepages. Retrieved from:

<https://www.ontario.ca/page/government-ontario>

Ontario State Homepages. Published plans and annual reports 2022-2023: Ministr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Retrieved from:

[https://www.ontario.ca/page/published-plans-and-annual-reports-2022-2023-mini
stry-colleges-and-universities](https://www.ontario.ca/page/published-plans-and-annual-reports-2022-2023-ministry-colleges-and-universities)

SUNY Empire State Service Corps. Retrieved from: suny.edu

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Homepage. Retrieved from:

<https://continuing.torontomu.ca/contentManagement.do?method=load&code=CM000078>

서울형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전략 수립 연구

관리번호 : SLEI-2024-A-002 / 51-B553537-000014-01

발행일 : 2024. 10.

발행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편집인 : 대학협력사업팀 황미연, 최민음

주소 :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 02-739-4464

홈페이지 : slei.seoul.kr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